천도영험도량 · 지장도량 성 거 사
1만불 청동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봉안
상담문의전화 041-567-6820

현대불교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시 문화재 2호 봉황각, 유교문화원, 가평 법흥사 등
웰빙 ◎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0월 27일(음력9월 14일) 수요일 (주간) 제497호

'대안학교' 남의 일 아니다

각종학교 인정 법제화 눈앞… "교육 다양화 · 포교 위해 운영해야"

개신교 20 · 원불교 6곳, 불교계 '작은학교' 가 유일

비인가 대안학교를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초 · 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불교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불교의 교육이념이 대안학교의 교육이념과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의 대안교육 인식은 타종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미용 · 예술 · 외국인 교육 등의 특수교육을 법적으로 인정,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9일 확정된 참여정부의 '교육복지 종합대책 5개년 계획'에도 관련법 개정은 물론 대안학교 설립 · 운영 규정 법률안 제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이 '입시교육' 위주로 흘러 인성교육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 10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교육 체계다. 입시위주의 공교육에 부적응, 학업 중단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사회적으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종교계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종교계가 교육의 다양화를 모색해 학생들이 각자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종교계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선택 권리를 수호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계는 아직까지 대안학교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주요 종단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어떤 공론화된 논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진각종 관계자도 "한 차례 안건으로 제시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 계획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했다.

반면 개신교와 원불교는 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대안교육에 힘써왔다. 이들 종교들은 교육 참여와 포교활동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개신교에서는 인재양성과 교리전도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대안학교 2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자유터학교'도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다. 개신교의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폭넓게 분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불교에서는 대안학교 개념이 들어온 초기부터 관심을 가져 6개의 학교를 개교했다. 원불교는 주로 공교육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학업 중단 학생들의 사회 불신 해소 방법을 원불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남원 실상사 '작은학교'가 유일하다. 2001년 개교한 '작은학교'는 10명의 교사들과 지역주민, 학생들 간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생태주의적 · 연기적 학습방법으로 주목받는 대안학교다.

'작은학교' 학생 38명 중 절반 수에 가까운 15명 이상이 타종교 학생이라는 점은 불교의 넓은 포용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곧 불교계 대안학교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은학교 이경재 대표교사는 "조계종만 해도 교구 본사가 몇 개인데, 대안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점을 통해 불교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이런 대사회 활동을 왜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실상사 '작은학교' 관계자를 비롯한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불교계 인사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는데 입장을 함께 한다. 이들은 우선 각 종단별로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타종교의 대안학교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불교 이념에 맞는 대안학교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특히 원불교 대안학교가 불교계가 눈여겨 볼 좋은 사례다. '마음공부'와 같은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운영 체계도 참고할만하다. 원불교 대안학교들은 각 지방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인가를 받은 후 학교제도의 개념인 '자율학교' 인가를 다시 받는다.

이런 방법으로 각 지방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자율학교가 되면 학교 재량권이 강화돼, 자율적 교육 과정 권리를 50%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다. 원불교 학교가 교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도 '특징적' 대안학교의 면모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운영 때문이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1930년대 송광사 수석정(水石亭)과 그 주위 호수 모습을 담은 엽서사진. 수석정에 가기위해 스님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다.

사진속의 송광사

내달 3일부터 불일미술관서 '흔적, 그리고 일깨움' 역사사진전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는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승보종찰 송광사 역사사진전'을 연다. '1920~2000 흔적, 그리고 일깨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송광사 전경, 전각 등 성보문화재와 말사 사진이 선보인다. 격동기 한국불교를 이끌었던 구상 · 효봉 · 일각 스님과 송광사 스님들의 소방 훈련 모습 등 총 120여점의 사진들이 전시실 벽에 걸린다. 개막식은 11월 3일 오후 5시에 봉행된다. (063)755-0108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새 · 롭 · 다 buddhanews.com
동영상 뉴스 서비스… "한발 앞서 갑니다"

붓다뉴스가 확 달라졌습니다.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간인터넷 현대불교신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가 10월 15일부터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새로운 디자인으로 불자네티즌에게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20여명의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메뉴 구조를 간편하고 쉽게 바꿨습니다. 또한 한번 클릭으로 실시간 뉴스뿐만 아니라 현대불교신문의 기획기사, 연재기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뉴스' 및 '영상법문' 코너를 신설해 매일 동영상 뉴스 및 법문을 서비스합니다.

메뉴선택 기능 쉽게
정보 콘텐츠 대폭 보강
김홍근의 '참선일기' 새기획

새로 신설된 '김홍근의 참선일기'는 재가불자가 어떻게 참선수행을 해야 하는지 자세한 과정을 기록할 예정으로 초심자에게 매우 유익한 코너가 될 것입니다. 불교문양을 현대인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새단장한 화면 역시 네티즌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조계종 '인권위' 설치한다

20일 설치령 입법예고… 위원 10인 규모

조계종 내에 불교사상에 입각한 인권활동을 통해 불교의 이념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설치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20일 인권위원회 설치령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인권위는 △종단 인권활동 정책 수립 및 자문 △불교내외 인권 사안 대응 및 실천 활동 △인권 연구 및 교육 △국내외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종단과 관련된 각종 인권단체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인권위가 종단 내 기구로 설치됨에 따라 불교인권위원회 등 재야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불교인권운동에 새 장이 열렸다.

또 천주교측에서 주도해왔던 사형제 폐지 운동 등 대사회 인권운동에 불교계 역할과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부장(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사회부장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신계사 불사에 '금일봉'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이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법장 스님은 10월 21일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에 금일봉을 전달했으며, 혜해(흥륜사, 1000만원), 수현(한흥사, 500만원), 혜선(금용사, 300만원), 무관(조계종 총무부장, 100만원), 지원(사회부장, 100만원), 일관(포교원 포교부장, 100만원), 상덕(정수암, 100만원) 스님을 비롯해 심주완, 황보희, 김명순, 임명희, 한광일 불자들도 복원불사 모연에 동참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할'



그림 · 조태호

혜정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飛龍山 장안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래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전국에 세개의 국찰 장안사를 세웠으니 금강산, 불광산, 그리고 이곳 비룡산 장안사가 그곳이다. 문무왕 수중왕릉이 위치한 감포 앞바다를 바다의 용궁이라 부른 반면 여기 장안사가 위치한 예천 용주골을 육지의 용궁이라 전하여 온다.

향가 번역 보급의 사찰 | 용궁이 내려 보이는 사찰 | 고유의 법향이 풍기는 사찰

장안사 회룡대에 아미타 좌불을 모시고, 경북 일대 미타신앙의 근본 도량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4년 10월 31일 - 1부 봉안식 : 오전10시 ~ - 2부 봉축공연 : 오후 1시~

향가는 짧지만 삶에 관한 깊은 뜻을 담고 있어 읽을 수록 맛이 납니다. 향가는 한국인 정서의 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라 화랑 득오가 자신이 따르던 죽지랑이 죽은 뒤 영전에 바쳤다는 '모죽지랑가'를 비롯하여 현존하는 향가 25수를 정리한 68쪽자리 책자 30,000여권을 문경 예천지역 중 · 고등학생들과 방문객들에게 법보시 하였습니다. '삼대목(三代目)'이라는 향가집이 있었다고는 하나 지금은 내용을 알 수 없고 남아 있는 25수라도 널이 읽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필요하신 사찰에서는 연락주세요. 최소 법보시 비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안사 주지 지정 합장



참회업장가(懺悔業障歌)

엎어지고 거꾸러지고
보리(菩提) 향한 길을 잃고,
지은 업장 법계(法界)에 넘치나니
정계(淨戒)를 내세워 녹여보자.

오늘 간절한 참회를
시방 부처님은 증명하소서!

아! 중생계 다하면 내 참회도 다하리니
세세생생 참회하여
티끌세상 제도코저

비룡산 장안사 경북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전화 : 054) 655-1400 ~ 1



불교계 근무여건 개선 시급

불교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흔히 불교계에는 인재가 없다느니 전문가가 없다느니 하는 얘기들을 한다. 더 나아가다 보면 불교계에 종사하는 종무원이나 불교단체 인력의 질이 타 종교나 사회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이는 교계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우리 불교계의 인력 수급은 여러 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불교학생회 출신, 청년회 출신을 비롯해서 신도들의 자녀 또는 개인적인 인척관계, 알음알이 등을 통해 모집된다. 그러나 공채를 통해서 실무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임금·후생복지 수준 낮은편
전문성·장기근속 기대 못해

사정이 이렇다보니 근로조건이나 본인이 해야 하는 일,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채용이나 취업의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용되는 사람이 필요한 일에 맞추는 형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채용 방식은 종무원이나 단체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또 일반 회사와 비교도 되지 않는 낮은 급여 수준, 사회보장 체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후생복리 등에 이르기까지 불교계가 전문가와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작용된다. 특히 근로자 사회보장체계의 기본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찰이나 단체의 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사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이긴 하지만 사회에서 주어지는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과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찰이나 단체의 실무자들은 항상 노후나 퇴직 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건이 사찰이나 단체의 실무자들의 잦은 이직뿐 아니라 작고 큰 비리에도 연관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원인들이 일반적으로 능력 있는 인재들이 불교계를 기피하는 요인이고 신심으로 무장하고 교계에서 꿈을 펼쳐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아 떠나고 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불교계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찰이나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오는 사람들이나 갈 곳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 삶을 개척하고 완성시켜 나가려는 사람들임을 인식해야 한다.

불교 전문 인력의 발굴과 육성은 구두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감히 종단과 사찰은 종무원들과 단체 실무자들의 복리 후생에 투자해 현재의 낮은 급여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또 불교계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의 신심을 일을 통해서 꽃피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경쟁력 없는 급여와 복리조건으로는 인재를 끌어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제 능력 발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용성(서울 성북구 보문동)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태고종 '개혁호' 순항 중

20일 전통문화전승관 기공·발전기금 10억 돌파 "위상제고"

태고종이 10월 20일 서울 법륜사에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기공식을 열고 재도약을 다짐하고 나섰다. 이날 행사는 태고종 창종 후 40년만의 '종로시대' 개막이라는 상징성 외에도 총무원 집행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종단 개혁'과 맞물려, 종단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고종은 10월20일 서울 법륜사에서 전통문화전승관 기공식을 열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태고종은 2002년 4월 '참여와 개혁'을 주창한 총무원장 운산 스님 취임 이후 코스닥 상장업체인 에이엠에스 인수를 비롯해 불교 위성방송 사업자 인가,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인수, 선교육후득도 제도 시행 등 굵직한 종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태고종 총무원은 1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 전통문화전승관 건립불사를 통해 한국불교 내 제2종단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응집력이 떨어지고 재정이 빈약하다'는 기존의 종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전통문화전승관 기공식에서 "태고종도 할 수 있다는 종단 내 분위기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면서 한국불교 내 제2종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강조했다. 종정 혜초 스님도 유시를 통해 "큰 규모에 어울리는 종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총무원 집행부를 거들었다.

이 과정에서 종도들을 대상으로 모금하고 있는 '종단발전기금'이 10억원을 돌파해 총무원 집행부는 어느 때보다 고무된 분위기다. 이는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태고종의 변화가 읽혀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태고종의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열린 각종 종단불사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열린 종정 추대법회를 비롯해 10월 1일부터 선암사에서 개최되고 있는 합동득도 수계산림, 10월 18~20일 열린 승려 연수교육 등의 동참 인원이 예년에 비해 급증한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참여와 개혁'을 통해 종단발전을 꾀하겠다는 현 총무원 집행부의 종책과 노력이 종도들에게 먹혀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추진, 동방대학원대학 개교 등의 종책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0월중 동방대학원대학 개교 인가를 비롯해 부산과 충남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을 종단 산하단체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외적인 위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한국스님 중국체류 연장 해결"
中 종교국부국장 법장 스님에 확언

왕쭤안(王作安) 중국 국가종교국 부국장은 10월1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베이징 교민들을 위한 포교당인 만월사 종교 활동 자유와 관련 "이를 담당하는 종교국 1사 뿐 아니라 중국불교협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스님의 중국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중국불교협회와 협의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며 "중국불교협회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종교국에서 직접 해결해주겠다"고 답했다.

남동우 기자

종정 무구 스님 추대식
본원종, 11월5일

본원종 제4대 종정 무구 스님 추대법회가 11월 5일 오전 11시 총무원이 위치해 있는 서울 평창동 연화정사에서 봉행된다.

추대법회에는 본원종 소속 전국 사암 주지 및 대표 2백여명이 참석해 종단의 최고 어른의 추대행사를 축하할 예정이다.

무구 스님은 1929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17세 때 문경 김용사에서 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박봉영 기자

승가모임 '화엄회' 창립
회장에 장주 스님

조계종 승가모임 화엄회(회장 장주) 창립대회가 10월 21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렸다.

장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 모색과 종책 과제를 개발해 그 실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엄회는 △중앙과 교구의 협력체제 강화 △다양한 종단 재정 확충 △공정한 인사 제도 마련 △불교 인재 양성 △승려노후복지 실현 △국제화·인터넷 시대의 포교 △불교교세 지역별·연령별 불균형 극복 △종무행정 평가 시스템 구현 △종도 여론수렴 △사회문제 불교적 해결 등의 10대 사업과제를 내놓았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 하반기 의장 누구?

법등·법조스님 양강구도
종책모임 대결국면 뚜렷

조계종 13대 하반기 중앙종회의장은 어떤 스님이 될까?

제165회 정기중앙종회가 11월 3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이번 종회 주요 안건중의 하나인 13대 하반기 중앙종회의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스님은 법등(사진 왼쪽)·법조(오른쪽)·장주 스님 등 3명.



11월3일 정기종회개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선출

그러나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은 "장주 스님이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사실상 법등 스님과 법조 스님 양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법등 스님은 1961년 녹원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으며, 9·10·11·12·13대 중앙종회의원과 12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을 등을 역임했다.

1958년 도원 스님을 은사로 수계한 법조 스님은 9·13대 중앙종회의원, 13대 전반기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대구불교방송 사장에 추천됐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최대 계파인 일승회에서 출마한 법등 스님의 우세가 점쳐진다. 화엄회도 법등 스님을 지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보림회와 금강회가 21일 법조 스님을 의장 후보로 단일 추대키로 함에 따라 쉽게 우열을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종회법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수석, 차석부의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 부의장은 중앙종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과반수를 못 얻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재투표를 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재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때는 3차 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는 법계, 승랍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남동우 기자

등기 불가능 사설사암 등록받아
조계종, 12월부터 2개월간…교구본사 통해

조계종이 사찰명의로 재산등기가 불가능한 사설사암에 대해 종단 등록을 받는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10월 19일 "조계종 소속 스님이 사찰을 창건해도 사찰재산이 무허가 건물 및 농지인 경우에는 현행 사회법상 사찰명의로 재산등록이 불가능해 사찰재산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공고했다.

또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은 미등록사설사암으로 간주해 앞으로 종헌·종법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2011-1701~3 남동우 기자

본사사령

김재경 편집국 취재2부 차장
命 불교정보센터 총괄팀장
김두식 편집국 취재부 기자
命 불교정보센터 영상팀장

2004년 10월 15일

웰빙 시대
자연과 내가 조화되는 세상 자연5화 사찰건강생식 스님과 불자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위한 선택
스님과 불자들의 필수 건강생식

효능에 대한 학술지의 임상실험 결과 발표 내용
· 체지방 분해 : 한달 평균 3Kg 체지방 감소 (미국 국립보건원 권장량) 특히 건강에 해로운 복부지방에 효과적
· 혈압조절효과 : 고위험군에서 거의 정상수준 회복
· 혈당조절효과 : 고위험군에서 평균 13% 감소 효과
· 혈중지방과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 : 고위험군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각각 21%, 11% 감소
· 안전성 : GPT효소 검사를 통한 안전성 입증

제품의 특징
· 안전하여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연구소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임상적, 기초의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상실험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 단순한 체중감소가 아닌 체지방의 선택적 분해, 체질개선을 통한 각종 성인질환을 개선시켜 몸의 균형을 이루어줍니다.
· 맛과 포만감 : 맛이 없는 기존 생식제품과는 달리 불편함이나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으며 1포만으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식사 대용으로 적합합니다.

자연동화의 핵심은 「KSH-28」입니다
KSH-28은 한의학 관련 유일한 정부 연구소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우수벤처업체 (주)바이오그랜드가 공동으로 수행한 정부지원 연구과제 「비만치료용 복합한약제제 개발」의 결정체로써 비만개선 및 성인질환 개선 효과가 탁월한 천연물들을 최적으로 배합, 동결건조 시킨 비만개선식, 체질개선식, 건강지킴식입니다.

국제 특허출원 및 학술지 발표
본 제품에 대한 연구 내용은 '비만 및 성인병 치료용 조성물'이라는 제목으로 특허 출원되었으며, '비만 및 성인병 위험인자에 대한 천연물 식품의 인체 및 동물 효능 연구'라는 제목으로 〈한국 식품 영양과학 회지〉에 발표하였습니다.

※ 2004년 12월까지 특별할인 판매합니다.

■ 판매원 : 수효사회복지대학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번지 ■ 연구개발 : KIOM 한국한의학 연구원 / 본 연구원은 한의학 관련 유일한 정부연구소입니다.
상담문의 : (02) 313-2398 010-2668-4695

엄마 아빠와 문화재 가꿔요

18일 안동서 '한가족 한문화재 가꾸기' 운동 발대식

"우리 주위에 잊혀져가는 문화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주말 가족 나들이도 되고, 아이들에게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고성 이씨 제사'라는 문화 행사를 돌보면서 더 자긍심을 느끼게 됐어요."

김내영(34 · 안동)씨 가족의 문화재지킴이 활동 사례발표다.

"고성 이씨 제사는 오래돼서 할 말이 많을 거다. 자주 가서 풀을 뽑아줘야겠다" 딸 민주(초등1년)양의 깜찍한 발표에는 연방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10월 18일 경북 안동시 중심에 위치한 '태사묘'에는 '한가족 한문화재 가꾸기' 운동 발대식이 거행됐다. 조용하던 태사묘에는 문화유산헌장이 울려 퍼지고, '우리 문화재 우리가 가꾸고 지키자'는 소리가 높이 퍼져갔다.

간간이 비가 흩뿌리는데도 전국에서 문화재를 사랑하고 아끼는 문화 애호가 200여 명이 모였다. 안동문화지킴이를 비롯해 경주 신라문화원, 대구 거리문화시민연대, 광주 대동문화연구회, 서울 한국의 재발견, 인천 해반문화사랑회 등 전국 11개 문화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다.



"우리는 모두 문화재 지킴이" 10월18일 한가족 한문화재운동 발대식에 참가한 가족들.

2002년 5월부터 안동문화지킴이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가족 한문화재 가꾸기' 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다. 이 운동은 가족 단위로 하나 이상의 문화유산을 맡아 청소부터 주변정리, 문화재 훼손 방지 등의 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문화재청과 안동시도 전폭적인 후원을 약속하며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동 이수다원 다도회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차와 다식을 준비했고, 중요무형문화재 23호 강정열 씨의 가야금 병창과 이정훈 씨의 마임, 한국인형극연구회 양혜경 씨의 길굿 공연이 이어졌다.

태사묘의 넓은 잔디와 동재, 서재, 경모루 곳곳에는 이미 활동 중인 가족문화재지킴이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갓난아기를 업은 아이 엄마부터 고등학생 딸과 함께 온 아버지까지, 평범하지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이들이다.

김현미(34 · 안동)씨는 "많은 문화재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유익했다"고 한다. 한은진(33 · 안동)씨는 "딸 예원(5)이가 고택에만 가면 '지킴이'가 됐다고 좋아한다"며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인(人) 1사(社) 1교(校)의 1문화재 가꾸기 운동이 우리문화재를 현장에서 지키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동문화지킴이 임재해(안동대 민속학교수) 대표는 "'한가족 한문화재 가꾸기' 운동은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의 하나"라며 "언젠가는 모든 국민이 문화재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문화 애호가들의 머리 속에는 이미 이 운동을 전개시켜나갈 구상이 가득했다.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은 "문화원이 가진 조직력을 이용해 학교,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재 지킴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사진/안동=배지선 기자

안성 봉업사지, 범종제작 유구 첫 발견

태조 왕건의 진영을 봉안했던 고려시대 거찰로 조선시대 폐사된 안성 봉업사 절터에서 범종 제작 유구가 경기도박물관(관장 이종선)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다.

경기도박물관은 지난 9월 10일 죽산리3층석탑(경기도유형문화재 제78호) 남측 지역을 발굴하던 중 종의 외형틀과 바닥에 해당하는 주형유구(鑄型遺構)와 주형에 주입할 청동을 녹이기 위한 용해유구(鎔解遺構)를 발견했다고 10월 2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견된 주형유구는 틀을 놓았던 원형의 띠를 반원형의 네 귀가 달린 단단한 소토 덩어리로 감싼 모습으로, 형틀 내부는 지름 77cm, 종구의 두께는 5cm이며, 높이 2cm의 종의 외형틀 흔적이 남아 있다.

또 주형유구에서 4m가량 떨어져 있는 용해유구는 동-서 3.2m, 남-북 2.6m의 규모로 할석재를 사용해 만들어졌으며, 안쪽에는 목탄층이 넓게 확인되었다.



용해유구.



주형유구.

정영호 교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장)는 "고려시대 범종의 제작시설이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례이며 동아시아에서도 그 유례가 드문 일이다"고 평가했다.

봉업사지에서는 지금까지 죽산리 5층석탑(보물 제435호)을 비롯해 3종 7점에 이르는 많은 석조문화재들과 통일신라시대 목탑지, 고려시대 건물지와 부속시설 등 모두 28개소의 유적이 확인됐으며, 고려 광종대 독자적 연호인 '준풍(峻豊)' 등 40여 종 500점의 명문기와류, 막새류, 청자, 중국자기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됐다.

박익순 기자

환경부, 천성산 약속 파기

독자검토 후 고법에 의견 전달…환경단체 반발

환경부가 8월 26일 합의한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한 전문가 공동검토 실시' 약속을 일방 파기했다. 이에 대해 도롱뇽소송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공단의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10월 19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지질 · 지하수 전문가 2인과 습지 전문가 1인을 위촉,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천성산 지역 자연 변화 정밀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터널공사가 습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은 환경부가 9월 10~14일 철도시설공단이 대한지질공학회에 연구를 의뢰해 2002년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문헌검토와 2박 3일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끝에 얻어진 것이다. 환경부는 이 내용을 10월 15일 부산고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환경부의 행동은 지율 스님의 청와대 단식정진이 58일째 이른 8월 26일,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해 환경단체 · 환경부 · 철도시설공단 3자가 함께 전문가검토를 실시하자는 합의를 사실상 깨뜨린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와 불교단체들은 반박성명을 즉각 발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시민행동은 10월 19일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에 대해 환경부가 독자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산고법에 제출한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2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항의 시위를 벌였다.

지율 스님 역시 곽결호 환경부 장관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강유신 기자

포항시장 종교편향 언행 물의

지역불교계 공개참회 · 퇴진 요구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이 물의를 빚으며 국민적인 비난을 산데 이어, 또다시 한 지방단체장의 종교 편향행위가 반복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주인공은 경북 포항시의 행정 책임자인 정장식 시장. 정 시장은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6일)을 앞둔 5월 2일 '포항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발족한 '포항 홀리클럽'의 창립을 주도하는 한편, 그 이후에도 종교 편향적인 행동과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 왔다.

이에 대해 포항지역사회연구소는 9월 19일 성명을 통해 "시장은 재직 동안 포항 홀리클럽에서 탈퇴하고 포항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는 운동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포항불교계 역시 10월 11일 시에 대해 "시장 직위를 이용해 특정종교 도시 만들기에 나서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공개참회와 퇴진을 요구했다.

정 시장은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자 10월 12일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특정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면서도 "그 동안의 행위는 종교적 편향이 아니다"고 변명했다.

한편 108명 시민과 불자들이 '서울시 봉헌' 발언을 한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차심리가 10월 21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2차 심리는 11월 18일로 예정됐다.

강유신 기자

불교생태학 연구 '에코포럼' 창립

불교생태학 연구의 저변을 확산하고 생태 ·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결집하기 위한 에코포럼(공동대표 고건 · 홍기삼)이 10월 17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고건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에코포럼이 앞으로 환경실천운동의 합리적 ·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며 포럼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에코포럼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정례포럼을 열고 생태학과 환경, 불교관련 인문 · 자연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발표와 대안 모색에 나서게 된다. 정례포럼과는 별도로 학기별 우리사회의 생태 · 환경문제에 대한 '쟁점 심포지엄'을 개최해 각종 현안들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조용수 기자

미륵종, 종단협 회원가입

미륵종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가입됐다. 종단협 회원종단은 25개에서 26곳으로 늘었다.

종단협은 10월 19일 열린 불기 2548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미륵종의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미륵종은 자각각타(自覺覺他) 전법도생(傳法度生)을 종지로 1987년 창종한 종단이다. 종조는 진표율사이며, <미륵삼부경> <금강경> <화엄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다. 현재 총무원장은 송정 스님(김해 관음정사)을 중심으로 150여 사찰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강의석 군 "종교자유 달라" 2차 단식

학교측 절차 문제로 예배선택권 시행 미뤄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46일간 단식을 한 강의석 군(18 · 서울 대광고 3)이 10월 16일 재차 단식에 들어갔다. 학교측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며 9월 25일 합의한 '학내 예배 선택권 보장'에 대한 실천을 미루고 있기 때문.

강 군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학교가 전교생에게 예배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서로 작성된 합의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강 군은 지난 6월 16일 강제 예배를 반대한다는 교내 방송을 한데 이어 서울시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벌이다 지난 7월 8일 제적 통보를 받았다.

이후 강 군은 퇴학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종교 자유를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결국 9월 1일 퇴학무효 가처분결정을 내렸고 학교는 이에 따라 9월 25일 예배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강 군에게 했었다. 학교에 복학한 강 군은 그동안 수능을 준비하며 종교 자유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강유신 기자

종교법인 484개 중 불교법인 123개

2004년 8월 기준으로 문화관광부가 허가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종교법인체는 총 484개이고, 이 중 불교법인체는 123개로 조사됐다.

문화관광부가 10월 18일 밝힌 법인현황에 따르면 종교법인은 재단법인 270개와 사단법인 214개를 포함해 총 484개로 나타났다. 불교법인은 재단법인 49개와 사단법인 74개 등 123개였으며, 개신교는 232개(재단 117, 사단 115), 가톨릭은 82개(재단 72, 사단 10), 유교는 21개(재단 17, 사단 4)였다.

특히 불교법인은 절반가량인 68개(재단 25개, 사단 43개)가 서울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남동우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곤지암 우리절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금강경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고암대종사 추모재 및 생신재
오는10월28일 목요일(음력9월15일)은 우리절 주지 동봉스님의 은법사이시며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故고암대종사님의 제16주기 추모재일입니다. 그리고 오는11월16일 화요일(음력10월5일)은 고암대종사의 탄신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인사 용탑선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문도회 사암에서 추모재 및 생신재를 봉행합니다만 우리절에서도 불자님들과 함께 큰스님의 덕화를 기리고자 합니다.

◆ 태화산산신제
오는11월7일 일요일 오전10시부터 우리절에서는 태화산 산신제를 봉행합니다. 이미 관음전 내에 산신단을 모시고 매일 아침저녁 예불과 함께 사시마지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2005학년도 수능일을 앞두고 올리는 이번 태화산 산신제에 불자님들의 깊은 관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산신제에 공양물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곡≫제13권 발간
오는11월7일 태화산산신제에 즈음하여 우리절주지 동봉스님의 ≪일원곡≫제13권이 발행됩니다. 이번 제13권에는 영산재 작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참석하신 불자님들께는 출가 · 재가를 가리지 않고 다 나누어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미국식 개방형 이사제 도입시

"건학이념 못살린다" 촉각

'사립학교법 개정안' 불교 · 타종교계 반응

열린우리당은 10월 17일 미국식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초기에 언급됐던 '교원 임면권의 학교이관'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정기구화'는 제외됐다. 아직 국회 상임위 교육위원회 조정과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어 법이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불교계도 사립학교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개정법안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반응이나 움직임은 없는 상태. 다만 법 개정으로 건학이념을 지키는데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데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불교와 다른 종교계의 반응을 살펴본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것은 1963년이다. 당시는 교육과 관련한 투자를 국가가 전담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때문에 개인의 학교설립을 장려하기위해 사학재단의 운영권을 모두 보장해 사실상 개인의 사유물로 인정하는 수준의 사립학교법이 만들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등교육의 50% 이상, 대학교육의 75%(학생수 기준)를 사립학교(재단 1500개, 학교 2000곳)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들은 일부 사학재단의 고질적인 전횡과 비리, 재단설립자 일가의 족별경영과 세습문제 등의 근절을 법개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불교 종립학교 현황과 반응은?

불교계가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모두 33개교(2003.10 광동중 이학송 교장 조사자료)인 것으로 파악된다. 조계종은 산하의 13개 학교를 거느리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를 운영하는 승가학원, 직지사의 능인학원, 봉선사의 광동학원, (재)안양원의 보문학원 등이 있다. 천태종은 금강불교학원, 진각종은 회당학원, 총지종은 부산에 대동학원 등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동국대 상임이사 영배 스님은 "사립학교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개인이 설립한 곳들이 대부분인데 종교계가 설립한 사립학교까지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종교계 학교를 제외하는 보완적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능인학원 이사장 장윤 스님은 "불교계 중 ·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 이상으로 엄격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계종의 입장은 아직까지 원론적인 수준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사학 재단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건학이념이 훼손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총무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타종교 반응은?

개신교와 천주교 등의 반응은 '결사적'이다. 전체 사립학교 가운데 기독교 재단학교의 비율은 중고교 400여개(25%), 대학 201개(73%) 이나 되기 때문이다.

9월 9일 열린 세미나에서 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법인이사회의 기능을 무력화 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선교의 사명'을 구현하기위해 설립된 기독교계 사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서강대 이사장 박홍 신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교육복음화를 막은 공산주의식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적 개신교 단체들은 10월 4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19일에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등 사학단체 대표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배상요구, 헌법소원을 거쳐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천주교 주교회의도 20일 반대 성명을 냈다. 조용수 기자

불 교 공식입장 유보 천주교 반대성명 발표

개신교 국가배상 · 헌법소원 · 학교폐쇄 불사 방침



조계종 한마음선원이 10번째 해외지원인 캐나다 밴쿠버지원을 10월 10일 개원했다. 사진은 밴쿠버지원 개원법회 테이프커팅 모습. 사진제공=한마음선원 밴쿠버지원

한마음선원 밴쿠버지원 개원

10월 10일 … 정기 · 특별법회 계획

조계종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이 열번째 해외지원인 캐나다 밴쿠버지원(지원장 혜룡)을 10월 10일 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안양본원 주지 혜원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혜호 스님 등 150여명이 동참했다.

혜원 스님은 이날 축사에서 "불교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고, 나를 밝히는 것은 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캐나다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데 밴쿠버지원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밴쿠버지원은 2002년부터 일부 신도를 중심으로 법회를 가져오다 2003년 혜원 스님이 밴쿠버를 방문, 첫 법회를 열면서 개원 준비에 들어갔다.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와 어린이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1-604-582-8234 강유신 기자

"종교적 성향 유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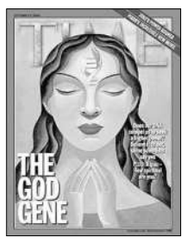
'타임'지 커버스토리로 다뤄

'종교의 기원'을 놓고 벌어졌던 '갑론을박'이 최근 미국 사회에서 재현됐다. 미 시사잡지 <타임(Time)> 최근호는 '우리 유전자 속에 신은 존재하는가?(Is God in our genes?)'라는 커버스토리에서 종교의 기원을 둘러싼 서양사회의 논쟁을 소개했다.

이번 논쟁이 신을 종교의 기원으로 생각하는 서양종교의 '창조설' 대신, 불교의 윤회사상을 기초로 유전자가 인간의 종교적 성향을 좌우한다는 새로운 가설을 증명하는 근거로 사용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잡지는 서양 과학계가 인간의 종교적인 성향을 유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타임은 1979년 진행된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연구가 종교적인 성향을 유전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첫 시도였다고 밝혔다.

미네소타 대학의 과학자들은 입양돼 각각 다른 환경 속에 자란 84명의 쌍둥이를 테스트한 결과, 둘 사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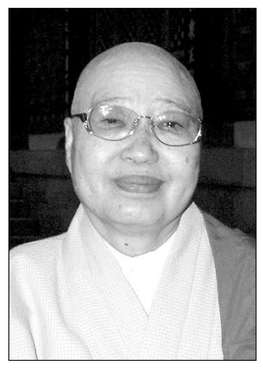
상당한 종교적 일치성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펜실베니아 대학의 과학자들은 종교적인 유전자를 인간의 종교적 성향뿐만 아니라 명상 등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의 뇌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결과를 보고했다.

타임은 이와 같은 서양종교의 연구 성과를 뒷받침하는 종교로서 불교, 특히 윤회설을 소개했다. 저명한 불교학자인 로버트 써먼 교수(컬럼비아대)은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종교적인 유전자'를 전생으로부터 물려받는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이런 '종교적인 유전자'의 덕택에 보편적인 믿음, 개방성, 관대함 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임은 아직 불교의 윤회론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강유신 기자

한국의 비구니 스님 <24> 각림 스님

목숨 내걸고 정진 또 정진



"신도들에게는 관음주력도 시키고 절 수행도 하라 하는데 그래도 내게는 선이 첫째라. 선수행은 앉으나 서나, 죽으나 사나 해야 하는 것. 이생에 다 못하면 내생에서라도 해야 할 출가자의 사명이오."

각림 스님(사진)은 1999년 상좌 혜욱 스님에게 봉덕사 도량을 맡기고 다른 상좌와 함께 하안거를 나러 서울 승가사선원으로 향했다. 세수 57세 이상은 받아 주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우겨서 들어갔다. 비장함 그 자체였다.

"그때는 참선하다 죽어야겠다 했지. 아무도 못 말려. 그러고는 해제를 하고 나왔어." 그렇게 첫 번째 한 철은 별 탈 없이 마쳤다. "겨울에 다시 수덕사 견성암으로 방부를 들였는데 그만 한 달 만에 탈이 났지 뭐야. 병이 나서 그냥 나왔지."

그런 스님에게 요즘 새로운 기쁨이 하나 생겼다. 지난해 7월 태어난지 하루 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속초에서 데려와 키우는 일이다. 이름을 '도솔'로 지은 스님은 도반들 모임에 나가거나 외부 신도들이 찾아오면 도솔이 자랑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이렇게 거동하고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감사해요. 난 이제 내일 당장 숨이 멎어도 아쉬움이 없어요. 그냥 새 옷 갈아입는 거라 생각해요. 다만 내생에는 성불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지."

교도소 교화위원 · 비구니회 등서 활동

어린이집 위탁 받아 새싹포교 '박차'

노구를 돌보지 않는 무리한 정진 탓인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다. 그런 스님을 상좌들이 다시 봉덕사로 모셔왔다. 혜욱 스님은 "정말 가시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때가 스님의 세수 77세이던 해였다. 평소 늘 77살까지만 살면 이생의 연은 끝내리라던 스님은 가실 날, 시간까지 미리 정해두셨던 분이었다.

각림 스님은 거짓말처럼 평소 말씀하시던 그날 그 새벽 백짓장 같은 얼굴로 수차례의 고비를 넘겨가며 혜욱 스님과 상좌들의 애간장을 녹였다.

그렇게 밤을 새고 난 스님은 이튿날 오히려 정신도 밝아지고 잃었던 건강과 언어도 다시 되찾았다.

상좌들은 스님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했다.

올 여름에는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세계여성불자대회까지 참가할 만큼 건강도 회복됐다. 불편한 거동에도 여전히 아침, 저녁 예불은 거르는 법이 없다.

각림 스님은 1927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양주 회암사에서 은사 고근 스님을 모시고 출가,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이후 대성암, 석남사, 내원사 등 전국의 선방을 다니며 수행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대중교화에 원력을 세우고 춘천 봉덕사 창건불사를 시작했다.

전법과 봉사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 춘천교도소 교화위원, 전국비구니회 강원지회장으로도 활동했다. 혜욱, 명관, 현욱, 청욱 스님 등 도제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93년 춘천시로 부터 연꽃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어린이들이 불법의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어린이 포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용수 기자

大韓民國 寺刹은 悠久한 歷史와 燦爛한 文化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사찰 Home page 開設로 많은 衆生을 구제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世界에 전파하십시오. 貴人이 最先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귀인(貴人)은 最高의 寺刹Home page를 만들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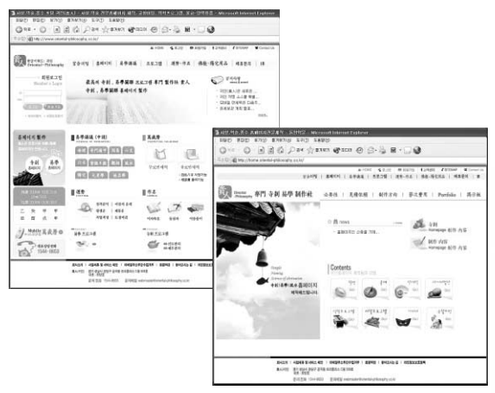
貴人 Oriental Philosophy 專門 寺刹 易學 制作社

귀인의 홈페이지는
여러분의 생각을
한차원 높여드립니다



貴人 寺刹 Home page 特別 行事期間 (10월 27일~11월 11일) 特典

1. 最新 업그레이드된 貴人 作名 3.0 1set 無料支給
2. Mobile 萬歲曆 1set 無料支給
3. 貴人 有料 萬歲曆 3년 使用權 無料支給
4. 土亭秘訣, 黨舍柱, 오늘의 운세, 觀相, 꿈해몽 3년 無料링크
5. 日辰 달력 무료링크
6. 무료 이름풀이 3년 무료링크
7. 貴人에서 開發되고 있는 最高의 寺刹프로그램 (신도, 재무) 50% DC된 價格에 提供
8. 마지막으로 寺刹 Home page 계약시 13% DC해 드립니다.



야후(yahoo)에서 귀인, 네이버(naver)에서 동양학문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www.oriental-philosophy.co.kr
한글인터넷주소 : 귀인, 동양학문, 신도관리, 사찰관리, 기문, 기문둔갑, 사주대전, 육효, 자미두수, 양택, 오운육기
● 대표전화 : 1544-8653 대표 : 최 양호 H.P : 019-217-3505

“피자 가득 담긴 우정 나누기”


피자를 먹으며 사랑을 나누는 200여 명의 성우원 원생들과 혜원정사 신도들.

혜원정사 장애우 사랑 10년째
법회 · 장기자랑하며 편견 없애

“피자 맛있어요. 끝내줘요.”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 육화전에서는 피자 파티가 한창이다. 10월 21일 점심시간 혜원정사를 찾은 200여 명의 성우원 원생들은 분명치 않은 발음으로 피자 파티의 즐거움을 표현했다. 지체장애인시설인 성우원 원생들이 1년에 한 번 혜원정사를 찾아 피자파티를 연 날, 혜원정사 봉사회 회원들이 총 출동해 파티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다.

봉사자들이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학생회 지도 교사로 8년째 성우원을 방문하고 있는 임수영 선생님의 진행으로 장기자랑이 열렸다. 이어진 법회 시간은 <반야심경> 봉독 · 원허 스님의 간단한 인사말로 대신했다. 불편한 몸이지만 합장하고 <반야심경>을 또렷하게 외는 원생들이 제법 눈에 띈다.

혜원정사의 초청으로 1년에 한 번 절을 찾아 피자 파티와 법회를 시작한 것은 1993년. 올해로 11년째를 맞았다. 혜원정사 학생회에서 성우원 봉사를 해오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원생들을 사찰로 초대하자는데 뜻을 모으면서 시작된 행사였다. 그때만 해도 맛보기 어려웠던 피자를 대접한 것이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것이다.

요즘도 학생회 회원 20여명은 한달에 한 번 꾸준히 성우원을 찾아가 원생들과 즐거운 놀이를 함께 하며 친구가 돼 주고 있다. 선배들이 졸업하면 후배들이 이어온 성우원 봉사는 이제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정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이날 피자 파티에 참석한 봉사자들은 “원생들과 함께 피자를 나눠 먹으며 서로를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원허 스님은 “10년 전, 처음 장애아들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당황하는 걸 보고 스스로 놀랐다”며 “일년에 한번 사찰을 찾아 피자파티를 여는 일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값진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산사는 지금 ‘단풍 연주’ 중


대구 광덕사 대웅보전 앞에서 열린 가을산사음악회는 감미로운 선율을 선보이며 불자들을 사로잡았다.

대구경북 지역 불자들은 곳곳에서 펼쳐지는 산사음악회로 더욱 풍성하고 감미로운 가을을 맞고 있다.

10월 16일 경북 청도 적천사(주지 덕현)가 개산 134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은행나무 별빛 축제’를 시작으로 선석사, 금강사, 광덕사 등에서 연이어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1340년 만에 800년 된 은행나무(천연기념물 58호) 아래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펼쳐진 적천사 산사음악회는 500여명의 청도군민들이 바쁜 일손을 놓고 모여 드는 등 성황을 이뤘다. 퓨전 국악관현악단 여음의 공연과 가수 박창근, 블루스 밴드, 적천사 반야합창단, 청도 모계고등학교 박병기 교사의 색소폰 연주를 감상하며 군민들은 잠시나마 여유를 누렸다.

19일 대구 광덕사(주지 운성)가 개최한 광덕사 합창단 후원의 밤 가을 산사 음악회에는 7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카페가수 김난영, 박숙희, 이군천, 이은자 씨를 비롯해 플룻으로 유명한 서연 스님의 공연을 감상했다. 이날 광덕사 신도들은 음악회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약차, 보이차, 커피와 도너스를 대접했다.

그 외에도 17일에는 성주 선석사(주지 선문)가 자원봉사단을 창단하면서 음악회를 개최했고, 대구 금강사(주지 현철) 금강반야합창단의 제 6회 정기발표회가 16일 동구 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나눔의 온정기 우리이웃 buddhanews.com

보현사 ‘아름다운 토요일’

“사는 즐거움 돕는 보람 커요”



“양말 5켤레, 가방, 옷 4벌, 아이들 장난감 2개, 머리핀도 1개, 포크 5개, 냄비 1개…. 이 냄비는 비행기 날개 만드는 소재로 만들었다는 건데 어디서 찾았어요? 전부 2만 3천원입니다.” 이것저것 한가방을 샀는데 겨우 2만3천원이다. 쇼핑백 대신 마음에 드는 가방 하나를 사서 거기에 모든 물건을 넣었다.

대구 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가 지역 종교단체로는 처음으로 재활용품 전문매장인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개최한 10월 16일 동아쇼핑 9층. 이날 ‘아름다운 가게’는 문이 열리자마자

불자들 재활용품 3천여 점 기증

손님으로 가득 찼다. 아예 오전 오후 2번씩 다녀가는 사람과 새로운 물건이 많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렸다가 찾아온 손님들도 많았다.

보현사 신도들은 이날 하루를 위해 한 달 전부터 재활용 물건 3천여 점을 불자들에게 기증받았다. 양말 공장으로부터 재고품 양말 300켤레와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신도로부터는 신발 50켤레를 찬조받기도 했다.

이날 보현사 신도들은 30명이 2교대로 명예천사라는 이름표와 연두색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이 상품을 잘 고를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현사 주지 원일 스님도 이날 하루는 동아쇼핑에서 연두색 앞치마를 입고 나섰다.

신도회장 이영순(49) 씨는 “처음에는 ‘내가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도 될까’라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모든 손님들이 자기에게 맞는 물건을 기쁜 마음으로 구입해 가는 것을 보니 너무 즐겁고 보람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종립학교 수업개선 방안 모색

불교교육연합회 교학발표회

불교교육연합회 주최로 불교 종립학교를 순회하며 종립학교 청소년 교화를 위한 연구 주제를 선정 · 발표하는 제 34회 교학발표회가 10월 22일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최주석)에서 열렸다.

교학 발표회는 전국 종립학교 연합회인 불교교육연합회에서 지정하여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행사로 종립학교 청소년 포교 방안을 논제로 교법사의 주제 발표와 연구 수업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 교학 발표회에서는 금정중 이석언 교법사가 연구 수업과 논문 발표로 수업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석언 교법사는 ‘불교의 의례-우란분절과 칠월 칠석’이라는 종교 수업을 통해 불교의 효와 사랑을 새롭게 정리하고 청소년들의 효사상 고취와 순결한 사랑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업을 가졌다. 조별 발표, 촌극 등으로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수업은 전국에서 참여한 교법사, 종립학교 교장 등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석언 교법사는 ‘불교적 심성프로그램을 활용한 부적응아 지도 방안 연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아를 화랑도 수련사상을 응용, 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석언 교법사는 화랑도의 ‘도의로 서로 사귐’에서 응용한 예절, 명상, 다도교육과 ‘춤과 노래로 서로 즐김’에서 연극, 시조창을 ‘산천을 노님’에서 야영 체험활동, 템플스테이, 야생화 견학, 불적유적지 순례, 문화유적 탐방 등의 수업 형식으로 부적응아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같은 수업 형식은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부적응아 지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천미희 기자

“마음 찾는 도량 되길”

해인사 고불암 개원법회



합천 해인사 산내 암자 고불암 낙성, 점안 및 개원법회가 10월 17일 열렸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 총무원장 법장 · 중앙종회의장 지하 · 수좌대표 인각 ·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과 심의조 합천군수 등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 점안식과 현판식, 2부 산사음악회, 3부 개원법회로 진행됐다.

법전 스님은 법어에서 “가야산에 조주스님의 본래 마음을 찾아내려는 사부대중이 정진할 수 있는 도량이 생겼다”며, “조주 스님의 본래마음을 찾기 위해 운문선사의 ‘고불노주’공안을 잘 참구해 보라”고 강조했다.

고불암 감원 선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산중화합에 앞장 설 것, 고불암 대중의 보살핌이 필요한 수행자를 모시고 살 것, 특별선원과 재가자 수련원을 개설하여 수행도량으로 만들 것, 고불암의 모든 소유권을 해인사로 등록하며, 창건주를 해인사로 지정하여 해인사 공찰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배지선 기자

노인무료요양원 ‘화방동산’ 2돌 기념법회 및 부속동 준공

2002년 문을 연 노인무료요양시설 남해 화방동산(원장 효천)이 10월 30일 개원 2주년을 맞아 고산 스님 초청 기념법회를 연다.

사회복지법인 화방동산이 운영하는 화방동산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노인요양시설의 대표 모델로 꼽힌다.

특히 30일 준공식을 갖는 신관에는 최첨단 설비를 갖춘 영화관, 노래방, 프로그램실, 전망대와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이 꾸며졌다.

개원 2주년 기념법회가 열리는 30일, 고산 스님 초청 법회와 입주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한지 공예 작품전, 화방동산 활동 사진전 등을 선보인다.

천미희 기자

문화행사로 가을 산문 ‘활짝’

통도사 개산대재 회향

개산 1359주년을 맞은 불보종찰 통도사(주지 현문)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산문을 활짝 열었다.

10월 21일 개산대재 및 영축사생대회 입재식을 시작으로 6회 부도헌다제, 부처님 가사 · 자장율사 가사 친견 등의 행사를 열었다. 22일에는 괘불 헌괘, 불공의식, 개산대재 법요식, 재롱잔치, 12회 공주 마곡사 괘불탱 특별전, 개산대재 기념 합창제, 지역 노인 위문 공연도 가졌다.

현문 스님은 “자장 스님을 재조명하는 대학생, 일반인 학술대회나 구하 스님을 상징하는 상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개산대재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천미희 기자

설기문 박사의 제2기

빙의치유 세미나

1997년 이후 **국내 최초로 "최면-전생 상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전문 제자를 양성하고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설기문 박사가 풍부한 학술 및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빙의치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 세미나에서는 최면치료와 전생치료의 원리와 실제를 함께 강의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교육일정 : 11월 10 ~ 11(수 ~ 목요일), 17 ~ 18(수 ~ 목요일), 23 ~ 25(화 ~ 목요일)
• 교육시간 - 매일 10:00 ~ 19:00 (교육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

(2) 교육내용 : ① 전통적 최면과 에릭슨의 간접적 최면법
② NLP(신경-언어프로그래밍)와 시간선치료(Time Line Therapy) 기법
③ 전생치료 및 영가천도의 원리와 기법
④ 볼드윈 박사의 빙의치료법

(3) 등록방법 : 참여희망자는 11월6일까지 아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고 반드시 별항에 제시된 연락처의 전화나 e-메일로 확인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 128-05-0000-897 (예금주: 설기문)

(4) 교 육 비 : 200만원 (마감일 이후는 210만원임)

(5)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 수리산 창박골 기슭
-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서 2km거리임 (안양역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수원역에서 각각 20분 거리임)

(6) 기타 참고사항
① 3명 이상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② 본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도 추가교육과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참여자에게는 기본강의교재, 참고도서 2권, 실습용 녹음테이프를 제공하며 수료시에는 수료증을 드립니다.



■ 강사소개

- **학력 :**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대학원(석사), 미국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 **경력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 전공 교수 역임.
미국 Califomia 주립대학교와 캐나다 University of Victoria에서 각각 객원 교수 역임.
1997년 이후 국내 최초로 "최면-전생 상담" 공개 세미나를 열고 최면-전생상담을 보급하고 제자 양성을 하였음.
- **자격사항 :**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상담학회 공인 상담전문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면치료, 전생치료, 시간선치료, NLP 과정을 공부하고 해당분야의 공인 전문자격증을 다수 취득함.
볼드윈박사에게서 전생치료-빙의치료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자격증 취득함.
(소속 공인 단체: American Board of Hypnotherapy, American Board of NLP, Time Line Therapy Associat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gression Research and Therapies)
- **언론보도 :** KBS를 비롯한 TV, 방송, 각종 신문, 잡지와 같은 언론 매체에서 최면, 전생치료, NLP 치료 및 자기개발과 관련하여 수 차례 보도됨. 특히 1998년에 KBS-2TV에서 방영된, 전생에 "독립군"이었던 여인에 관한 내용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음.
- **저서 :** "최면과 전생퇴행", "최면과 최면치료", "최면의 세계"
"설교수가 안내하면 혼자서도 전생 가기 참 쉽다"
"자기혁신을 위한 NLP파워", "NLP와 건강", "NLP의 원리"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외 다수 출간함.

■ 빙의의 문제와 볼드윈박사의 빙의치료법

빙의란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른 영가가 침입하여 심신의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 결과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진단 또는 치료가 되지 않는 심신의 고통을 받게 되며 심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빙의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번하게 있어왔다. 특히 미국의 볼드윈박사는 의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세계 최고의 빙의치료전문가로서 독특한 "6단계 빙의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설기문박사의 노하우 뿐만 아니라 볼드윈박사의 빙의치료 원리와 실제를 전수하는 장이 될 것이다.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부설 한국 최면-전생 상담 센터 • 전화 : 031)442-5598, 011-1762-4598 / 홈페이지: www.mindcoach.co.kr / e-메일: mindcoach@naver.com

지암불교문화재단 '청년문화원' 개원

청년·문화·정보화에 역점

네트워크 구축…불교 문화 공유·홍보
홈페이지·사찰 관리프로그램 등 지원

새로운 청년불교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사찰 정보화를 선도할 불교청년문화원이 개원한다.

지암 이종욱 스님의 유훈을 잇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지암불교문화재단(이사장 성담)은 11월 7일 오전 11시 강원도 평창 지암정사에서 불교청년문화원 개원식과 재단 출범 및 지암정사 개원 1주년 법회를 개최한다.

지암불교문화재단산하 단체로 구성되는 불교청년문화원은 △문화원과 함께하는 사찰 △문화원과 함께하는 청년회 △불교문화 교육관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홍보 등 4가지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불교 청년 네트워크 구축, 청년 불교문화운동, 불교문화교류, 봉사활동, 온라인 정보교류, 불교문화·참선·다도교육 등 다양한 테마의 불교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우선 정기적으로 큰스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법문을 듣고,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한편, 자원봉사, 사찰 성지순례, 불교 역사문화 기행, 청년한마당 등의 행사와 교육관에서 진행할 예절교육, 전통차와 다도, 불교문화, 불교도서관, 명상과 참선 등 교육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 및 홍보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업 계획 중의 하나. 사찰 정보화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한 청년문화원 측은 정보인프라 구축, 홈페이지, 사찰 관리프로그램, 사찰 컴퓨터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사찰관리프로그램의 불필요한 메뉴와 불편한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사찰관리프로그램은 회원에게 무료로 보급한다. 청년 불교 네트워크도 구성해 사찰 정보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지암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성담 스님은 "친일논란이나 불교분규 문제로 사장되었던 지암 종욱 스님이 근세 한국불교에 남긴 발자취와 업적을 재조명해 그분의 뜻과 정신을 되살리고자 재단과 불교청년문화원을 설립하게 됐다"며 "종욱 스님의 유훈을 이어 설립한 지암불교문화재단은 불교청년문화원을 비롯해 문화사업, 도서출판, 사회단체 지원, 장학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033)335-7896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1인 10등불 확산운동' 전개

'생명평화' 결성 1주년 대회…평화학교 개설



생명평화 탁발순례 사진전 모습.

10월 15일부터 남원 실상사 일대에서 열린 '2004 생명평화대회'가 17일 '1인 10등불(회원)확산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하고 회향했다.

지리산생명평화결사(이하 '생명평화')가 결성 한해를 맞아 '참회와 성찰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마다 생명평화학교를 개설해 10만등불 서약운동의 기초를 다지기로 했다. 또한 생명평화탁발순례도 여름, 겨울 순례를 멈추고 지리산생명평화학교에서 1개월씩 안거에 들기로 했다.

생명평화는 평화대회 마지막 날 열린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전국에서 연인원 500여명의 회원이 모여 펼쳐진 '생명평화대회'는 15일 '삶 나누기', 16일 '참회와 성찰', 17일 '생명평화 서약'으로 진행됐다.

생명평화탁발순례 평가회에서 순례단은 "3월 1일부터 지리산권을 시작으로 제주와 부산을 거쳐 현재 경남권을 순례 중"이며 "순례 길에서 2000여명의 사람을 만나 1000여명이 '생명평화결사'의 등불이 됐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생명평화학교, 가을강좌

지리산 생명평화결사 산하 빛고을생명평화학교가 10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04 가을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26일 생명평화탁발순례중인 도법 스님(생명평화와 진리의 길)의 강연을 시작으로 시인 박남준, 가수 한보리(시와 노래로 나누는 생명평화), 녹색평화 발행인 김종철(산업사회의 대안은 없는가) 등의 강연이 펼쳐진다. 또한 종강에 앞서 고대사연구가 서정록 씨와 함께 1박2일간 '아시아 고대와 북미 인디언의 삶과 문화'를 배우고 체험한다.

이번 강좌는 매주 2회(화·금 저녁 7시) 광주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 5층 강당에서 펼쳐진다. (062)264-9242 이준엽 기자


빛고을 광주의 불교합창단이 모여 '가릉빈가의 음성공양'(사진)을 올렸다.

광주·전남사암연합회(회장 혜향)는 10월 16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광주·전남 불교합창예술제'를 개최했다.

금년으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합창제에는 향림사, 증심사, 원각사, 한마음선원, 금광사, 백양사, 광주불교사암련 합창단 등 광주지역 7개 사암 및 사암련 불교합창단이 참가했다.

합창제에 앞서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합창제를 통해 불교음악이 불자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사암련 회장 혜향 스님도 인사말에서 "사찰과 불자들이 찬불가 보급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합창예술제 성황

향림사·증심사 합창단 등 참가

양양 진전사 복원 가시화

10월 19일 상량식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陳田寺) 복원이 가시화됐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는 10월 19일 진전사지에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전사 복원 상량식을 봉행했다.

신흥사는 지난 4월 복원 기공식에 이어 총 9억8천만 원을 들여 내년 5월말까지 20평 규모의 대웅전과 40여 평 규모의 요사채를 전통양식에 따라 복원하고, 탐방객을 위한 대형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종조전을 건립하고 선원도 복원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주변 정비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전사는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사찰로 조계종 종조(宗祖)인 도의국사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법을 선양했던 곳으로, 진전사지에는 현재 국보 제122호인 삼층석탑과 도의선사의 묘탑으로 추정되는 부도(보물 제439호)가 남아있다. 한명우 기자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요청

불갑사 영광군청 간담회서

영광 불갑사(주지 만당)가 전남도에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은 10월 21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불갑사가 자리한 불갑산이 무분별한 도로개설과 산 정상에 건설중인 팔각정, 5만평 규모의 골프장 건설계획 등으로 심각한 자연훼손이 우려되고 있다"며 "공원지정으로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불갑사는 이를 위해 15일 영광군청에서 열린 '박준영 전남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을 공식요청하고 도지사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불갑산은 영광군과 함평군에 걸쳐 자리해 있으며 천연기념물(112호) 참식나무, 상사화 등 희귀식물 자생군락이 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남양주 보광사

"대중과 호흡하는 도량 될 것"


주지 선우 스님이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에게 만다라를 설명하고 있다.

계절에 단청이 들고 있다. 여름내 푸른 기운을 내뿜던 나뭇잎들이 시간의 흐름을 일깨우며 완숙미를 자랑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과 오남읍의 경계를 이루는 천마산에 자리 잡은 보광사(주지 선우)에도 눈이 시리도록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

천년고찰인 보광사는 고려 광종 때 혜거 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1851년(조선 철종 2년) 판부사 이유원이 중창했지만 한국전쟁으로 다시 폐허가 됐다. 선우 스님의 은사인 화담 스님이 현재의 토지와 전답을 마련하고 대웅보전을 중창하다 열반에 들었다. 이제 고스란히 선우 스님의 몫이 된 것이다.

1998년 주지 소임을 맡은 후 스님은 직접 포크레인과 트럭을 몰며 불사 재정비에 나섰다. 평소 문화포교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졌던 스님은 보광사를 지역문화거점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천마산 산사축제'인 것이다.

10월 14일부터 시작돼 30일까지 열리는 산사축제는 크게 만다라 전시회와 산사음악회로 나뉜다. 만다라 전시회에는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수작(秀作) 만다라와 상처받은 중생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 자비의 어머니 수월관음도, 열반의 참 세계를 보이신 석가세존의 열반도, 참 삶의 깨달음을 전하는 진리의 그림 달마도 등이 선보인다. 여기에 수묵화의 항연과 문인화의 담백함이 더해 깊어가는 가을, 높은 하늘의 고요함을 노래한다.

10월 23일 열렸던 산사음악회에는 2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가을밤을 한껏 달뜨게 했다. 보광사에 거주하는 티베트 스님들의 챈팅(공연)으로 막을 연 산사음악회는 성열 스님과 심진 스님의 음성 공양과 터울림의 사물연주, 통기타 연주와 힙합 댄스그룹 갬블러의 공연 등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 되는 축제였다.

'천마산 산사축제' 열어 지역 활성화

고려불화 재현, 티베트 연구관 건립 서원

선우 스님은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산사축제를 내년부터 더욱 확대해 지역민 뿐 아니라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대거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광사를 수행공간, 신앙공간, 생활공간, 의식공간으로 구분해 공간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스님의 또 다른 서원은 고려불화를 모두 재현하는 것과 보광사에 티베트 관련 각종 기관들을 건립하는 것.

선우 스님은 "대중들이 가장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문화라는 코드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토양을 만들 뿐 아니라 대중포교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031)594-1316

글·사진/남양주=남동우 기자

2004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제3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실시 공고

불교교양대학보호와 정보제공을 위해 창립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3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 연합회에 등록된 교양대학(교육과정 1년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2004년 12월 5일(일) 오후 1시~오후 5시 (필기시험 및 면접)

· 2004년 10월 20일(수)~11월 10일(수)

· 시사일본어학원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계사 옆)

· 응시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수계첩 사본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진 2매(반명함판)
· 응시료 50,000원 (국민은행 023-01-0566-256 한국불교교육연합회)

· 학교별 일괄접수

· 서류전형 → 1차 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최종합격자연수 및 품수

· 2005년 1월 10일
※포교사 고시 문제집 신청 바랍니다.

· 연합회 사무국 02-734-9595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할 교육단체 및 교양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서울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4-9595 FAX 02)732-1207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氣와 사랑의 약손 교습 안내

- 서울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대상선정!

기공·호흡·운동요법·물리요법·자극요법·자세동작교정요법·정신심리요법·명상요법 그리고 기치유와 경락경혈요법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개별적인 특징에 맞추어 관리하여 드리며 약손요법을 배워 주변에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개별 전수를 해 드립니다.

기와 사랑의 약손 042-472-1881

전통양생법을 통한 건강 지키기

중국무술내가권(태극권, 형의권, 팔괘장)연구소

▷ 중국전통기공법·중국무술내가권
체력단련, 자세교정, 집중력강화, 자기조절, 각종 성인병 및 난치병 예방

▷ 벽곡 법(전통도가식 단식)
- 체질개선, 내장기능 증가 (필히 공력이 높은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별 특성, 목적에 맞는 공법지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9 메트로존 604호 (시청 맞은편)
상담전화 : 042-471-1882

경남 밀양·함안·창녕

깊은 역사 깊은 불심 '발전의 힘'

효와 충절의 도시 밀양.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사명대사 탄생지인 밀양은 유난히 불교세가 강한 곳이다. 인구 12만의 밀양은 사찰 수가 3백 곳을 훌쩍 넘겼고 하루가 다르게 사찰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니 불교세가 어느 정도 인지를 짐작케 한다.

300여 곳에 이르는 사찰 수에 비해 교회 수는 78곳. 게다가 몇 년 전부터 교회 증설이 멈춘 상태이며 전국에서 가장 기독교 전도가 안 되는 곳일 정도로 불심이 강한 도시로 통한다.

함안의 경우도 7만 인구에 102개의 사찰을 자랑한다. 창녕은 3만 인구에 사찰 수 70여 곳에 이르며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여느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잘 정돈된 사찰 표지판이 창녕의 불교세를 대변해 준다.

이처럼 불교세가 강한 것은 영남의 일반적인 분위기이긴 하지만 밀양, 창녕, 함안은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사찰 수가 많은 편이며 대를 이어 절에 다니는 말뚝 불심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 밀양 밀양의 어느 아파트. 87곳 세대 중 70% 이상이 절에 다닌다. 교회에 다니는 집은 열 세대에도 못 미친다. 이 아파트는 밀양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밀양의 불교세가 강한 원인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지만 사명대사 탄생지라는 역사적인 자긍심에서 유래하는 듯. 그래서 사명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봄 · 가을로 사명대사를 기리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 표충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표충사는 현 주지 혜오 스님 부임 이후 많은 변화를 이뤘다. 서래각선원을 복원, 다시 열었고 재가자들을 위한 무료 선방인 대홍시민선원도 운영하고 있다. 서래각선원은 효봉 스님이 입적한 곳으로 그 전까지 주지실로 사용되던 공간이다.

기름보일러, 심야전기 보일러, 나무 때는 아궁이 등 전천후 시설을 갖춘 서래각선원은 한국 불교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가 담긴 밀양 불교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곳. 조선왕조가 멸망한 후 50년이 지난 뒤에 표충사에서 도인이 100명 나온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때문일까. 혜오 스님의 선풍 진작을 위한 노력이 예사롭지 않다. 참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뭐한다고 벽만 쳐다보고 앉아 있나?' 하는 일반의 의구심을 사기도 했고, 한때 밀양불교 전반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표충사의 변화는 이제 시민선방의 활성화로 새로운 불교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며 밀양 불교에 정법의 바람을 일으키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도심에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를 주도하는 용궁사의 활약도 돋보인다. 용궁사는 밀양 유일의 조계종 인가 불교교육기관이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우수한 교수진이 강의를 펼치는 밀양불교대학 설립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또한 <초심>이라는 사보를 발행, 문서 포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초심> 발간 3주년을 기념해 시작한 노인초청 위안잔치 및 이웃을 위한 한마당은 천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자리 잡으며 지역민에게 다가서는 불교의 이미지를 굳히는데 한 몫 했다.

또한 매달 한번 밀양불교합창단과 함께 펼치는 밀양경찰서 유치인 생일 찾아주기를 펼치고 있으며 향후 노인복지사업, 유치원 운영 등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밀양불교는 현재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불교세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기타 종단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특성상 결집이 어려운데다 이렇다할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명대사의 탄생지라고는 하지만 사명대사의 호국 불교를 시대에 맞게 재조명할 제대로 된 학술대회 하나 없고, 말뚝 불심의 구심점이 될 불교회관조차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중인 사명대사 연구를 거울삼아 사명대사의 뜻을 기리는 학술대회를 개최, 학자와 학예연구원 등의 인재를 양성하는 길을 모색하는 한편, 밀양만의 특색을 살린 불교 중흥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 함안 군 단위로서는 상당히 많은 사찰 수를 자랑하는 함안은 88년 창립된 함안군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함안군불교연합회가 펼치는 대표적인 연중행사는 4 · 8봉축 행사, 6 · 25 전몰군경 합동위령재, 연말 탁발대회 등이다.

특히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전몰군경 합동 위령재는 여항산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2천여 명의 희생자를 비롯한 호국 영령들을 천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사. 매년 군 관계자,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등에서 1천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불교행사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 창녕 장마면의 지석묘(고인돌), 창녕읍, 계성면, 영산면 등에서 발견된 고분군들이 창녕의 오랜 역사를 대변한다. 그만큼 창녕엔 고찰이 많고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을 비롯 국보 2점과 관룡사 대웅전, 약사전 등 보물 9점을 포함해 불교문화재가 경주 다음으로 많은 곳이기도 하다.

1600년 전통의 관룡사는 보물을 4점이나 보유한 사찰로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어 시대적 요구에도 잘 부합하고 있다.

지역민을 위해 사찰이 존재해야 한다는 정안 스님의 지론에 따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에 적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초에는 산림법회를 열어 화엄경, 지장경, 금강경 등의 경전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수행도량으로도 널리 알려져 창원, 마산에서도 찾아오는 불자들이 있다.

또한 통도사 창녕 포교당인 인왕사는 창녕 유일의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하며 농촌 실정에 맞는 포교 방편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불교교양대학 동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모임은 경로당 청소, 독거노인 밑반찬, 도시락 배달 등으로 불교계의 대사회 봉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포교를 위한 유치원 불사를 발원하고 있으며 신도 중심으로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도심포교당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창녕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종단 간 불협화음 해소와 지역을 위한 불교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그것. 종단화합을 통해 지역을 위한 일에 소극적인 사찰의 힘을 결집해내는 일이 창녕 불교발전의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

밀양 · 함안 · 창녕=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밀양 용궁사의 노인 초청 잔치 및 이웃을 위한 한마당.

밀양
사명대사 출생지 '자부'

함안
호국불교 전통 잇기 분주

창녕
농촌포교·복지 불사 앞장


창녕 관룡사를 찾은 불자들이 주지 정안 스님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540년만에 서래각선원 복원

혜오 스님
밀양 표충사 주지



"도대체 선이 무엇이고, 견성성불이 무엇인지 그런 것 물어보시오." 혜오 스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한 가지, 선풍진작이다. 주지 소임을 맡자마자 540년 만에 서래각선원을 복원했고, 재가불자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대홍시민선원도 열었다. 서래각선원을 복원하기 위해 주지실도 내놓았다. 도인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

향곡 스님 제자로 3년 6개월간 조계종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 통도사 보광선원장 등을 역임한 스님은 선원 수좌 뒷바라지를 최상의 즐거움이자 보람으로 안다.

실천하는 불자 양성

선운 스님
밀양 자은사 주지
밀양사암련 회장



스님은 원전에 토대를 둔 포교, 교육의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틈나는 대로 원전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밀양의 스님들과 신도들을 위해 아함 교리를 강의할 계획으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불교사상, 실천, 체험을 통한 이론정비가 확고해야 불교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종교의 생명은 실천'이라고 늘 강조하는 스님은 종교가 현실 속에서 불교적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찰들이 힘을 모아 고민해야 한다고. 밀양불교발전을 위한 토론회, 원전 강의를 통한 불교기초 교리 강의 등도 이를 위해서다.

밀양 불교 '구심점' 지켜

혜봉 스님
밀양 용정사 주지
해동종 종정



밀양불교사암련 회장을 3대에 걸쳐 6년 역임, 밀양경찰서 경승실장 9년 역임 등 밀양불교의 산 증인. 스님은 법회를 자꾸 열어야 신심도 일고, 포교도 된다는 지론으로 사암련 회장 당시 만등법회, 방생법회, 보살계 법회 등을 꾸준히 열며 종단 화합을 도모했다. 스님은 요즘 사암련 활동이 저조하고 협조가 되지 않아 걱정이라며 어른다운 염려를 토로했다. 용정사를 22년 동안 일로써 수행 삼으며 대웅전, 보광전, 산신각, 용왕각을 갖춘 도량으로 일궜다. 해동종의 발전을 통해 지역불교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투명한 재정운영 '귀감'

만각 스님의 방엔 18년 전에 그린 봉암사 불사 조감도가 걸려있다. 지금의 도량을 보고 그린 듯 조감도가 현재의 봉암사와 정확히 일치할 정도로 스님은 20년 불사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투명한 불사를 위해 스님에겐 특별한 장부가 있다. 스님은 장부 정리의 달인이다. 수기로 작성한 장부만 펼치면 신도의 법회 참석일, 불사금 내역까지 정확히 나온다. 이처럼 투명한 재정관리로 스님에 대한 신도들의 신뢰는 절대적이다. 법화종 총무원 재무부장을 10년 연속 지내고 있는 것도 스님이 그만큼 삼보정재 관리에 철저하기 때문이다.

만각 스님
함안 봉암사 주지
함안불교련 회장



제2의 고향서 포교 발원

광덕 스님의 맏상좌인 스님은 광덕 스님 입적 후 5년 동안 불광사 법주를 지내다 최근 함안으로 왔다. 젊은 시절 함안에서 10여 년을 보낸 스님에겐 함안이 제 2의 고향인 셈. "깨달음은 생활을 떠나 있지 않고 사회에 뛰어들어 울고 웃으며 대중들과 같이 호흡하는 속에 있다"고 늘 강조한다. 함안불교련 회장을 4년간 역임하면서 스님은 지금은 함안불교련 역점 사업이 된 6 · 25 전몰장병 천도재를 처음 시작했다. 불교회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건립에 뜻을 두고 있기도 하다.

지정 스님
함안 봉불사 주지



열린 사찰·편한 도량 추구

정안 스님
창녕 관룡사 주지
창녕사암련 회장



관룡사에 가면 누구든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차실이 마련돼 있다. 열린 사찰을 지향하는 정안 스님이 주지를 맡으며 생긴 변화다. 또 한 가지 변화는 관룡사 제 모습 찾아주기 불사 추진. 외관상 불사가 진행된 것 같지 않지만 지표조사나 사적지를 토대로 불사를 꾸준히 진행해 관룡사 원형 복원을 추진 중이다. 대형불사 보다는 '사람의 훈기가 느껴지는' 불사를 희망한다.

통도사 포교국장, 재무국장, 유치원 원장 등을 고루 역임한 스님은 조계종 중앙 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위한 일 찾기 몰두

원진 스님
창녕 청련사 주지
창녕사암련 총무



청련사 도량 곳곳에 보기 좋게 가꿔진 잔디는 청련사를 찾는 사람 누구나가 감탄사를 터트리며 혀를 내두를 정도. 모두 원진 스님 솜씨다. 관음정사, 표충사, 운주암 등에 살 때 은사인 목산 스님과 함께 한 가람정비 경험이 청련사 곳곳에 녹아 있다. 창녕불교사암련 총무직을 맡고 있는 스님은 일을 만들어가는 재주를 지녔다.

주지를 하고 있는 동안,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도 사암련 회원 사찰에 전화를 걸어 목소리 높이길 마다하지 않는다.

공부 · 봉사활동에 '올인'

신본 스님
통도사 창녕포교당
인왕사 주지



10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스님은 사찰 정비보다는 오히려 신도 교육 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창녕 유일의 불교교양대학을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수요일 주 · 야간으로 이어지는 경전반과 교리반, 목요일 참선, 일본어 강좌까지 스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런 스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아 불교교양대 동문들은 경로당 청소,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도시락 배달 등 대사회 봉사를 통해 지역 내 불교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있다. 어린이집 불사를 통한 불교 저변확대를 발원하고 있다.

문서포교 앞장…교육·복지 활약

정무 스님
밀양 용궁사 주지



밀양 불교의 일꾼.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첫 주지 소임을 맡은 곳이 용궁사인 스님은 밀양불교의 일꾼을 자임했다. 밀양경찰서 내에 경승실을 만들고, 밀양에서는 처음으로 조계종 인가 교육기관인 밀양불교교양대학을 만들면서 밀양불교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감초'가 되었다.

특히 사보 <초심> 발간으로 문서 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복지를 향한 투자가 곧 포교로 이어진다고 믿는 스님은 노인복지를 위한 보호, 요양시설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혜일 스님의 탑사랑 놀이터로 방치…청소 7년·사지복원 원력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

창녕 술정리 주택가와 시장통을 잇는 길목에는 한 비구니 스님의 지극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탑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보 34호로 지정된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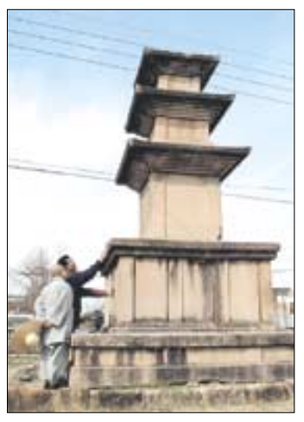
이 탑은 혜일 스님을 만나기 전, 동네 사람들이 마구 버린 담배꽁초에 시달리고, 시도 때도 없이 탑 위로 기어올라 장난을 치는 아이들의 기승에 몸살을 앓아 왔다.

그러나 7년 전 혜일 스님과 인연이 닿은 후 이 탑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동네 놀이터로 전락했던 탑 주변이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 정비사업에 들어갔는가 하면 스님의 노력으로 동탑 해체 복원 때 사라졌던 유리 사리병을 포함한 유물 14점을 38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찾아내기도 했다.

혜일 스님의 순애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탑에 대한 자료 조사는 물론, 그 탑이 있었던 사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복원 불사를 발원하고 있다. 혜일 스님은 탑전문가와 함께 동삼층석탑을 자주 둘러보는 일도 잊지 않는다(사진).

인양사가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한 스님은 이제 진신사리가 봉안됐던 청녕 술정리 동삼층석탑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탑이 되게 하기 위해 인양사 복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①능인선원의 모든일은 신도들이 '알아서' 다 한다. 상담 봉사를 하고 있는 신도들.
②병원에서 간병 봉사활동을 하는 일도 주요 활동중 하나다.
③능인선원 본부장들이 10월 12일 선원 극락전에서 능인선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④능인선원이 경기 화성시 일대에 설립 추진 중인 4년제 정규 '한국불교대학원 대학'의 조감도.
⑤능인불교대학 37기 수강생들이 10월 12일 능인선원 대법당에서 원장 지광 스님의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차곡차곡 공부하며 신행 새바람

불교대 출신 20만명 각계서 중추적역할…가정법회 1천여 곳 운영

대형 도심사찰 성공비결

1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2 구룡사
3 능인선원
4 부산 삼광사
5 안국선원
6 한마음선원

서울 능인선원(원장 지광). 지난 1984년 서초동 무지개상가에서 보증금 5백만 원, 사글세 15만 원, 28평 규모로 시작한 도심사찰이다. 당시 불교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서울 강남에 체계적인 불교교육과 신행활동, 현대적 감각의 법문 등으로 재가불자들에게 '信바람'을 일으킨 곳이다. 현재 신도 수 20만 명, 1천여 곳이 넘는 가정법회, 지상 3층 지하 5층의 현대식 건물 등이 이를 대변한다. 또 지금까지 서울 지역 220여 곳의 사찰 신도회원들이 능인불교대학을 거쳐 가는 등 이미 불교계에서는 '신도 사관학교'라고 불려질 정도다.

능인선원은 특히 사회 지도층 오피니어 리더그룹의 불자층도 두텁게 했다. 20년 넘게 불교대학에서 배출한 동문 중 전·현직 국회의원만 50여 명이 넘는다. 장·차관급 관계, 재계, 언론계, 기업 임원, 교수 등 내로라는 인사들이 능인불교대학에서 공부했다.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15기다.

능인선원의 성공 열쇠는 단연 중산층 포교에서 찾을 수 있다. 선원장 지광 스님이 내건 '기복불교 극복, 산중불교 탈피'의 교육 슬로건은 당시 서울 강남지역 중산층 지식인 불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1986년 3월 기초반 1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 37기가 공부하면서 '20만 신도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재가불자 운동의 진원지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기존의 '산중불교(山中佛敎)'라는 불교에 대한 인식도 바꿔놓는 한편, 기복에 젖은 재가불자의 신행패턴을 실천적인 '작복(作福)'으로 전환시켰다. (02)577-5800. www.gotobuddha.org

●'신도 사관학교' 불교대학…지식인 불자 호응

"해외에 나가서 불자들을 만나면, 꼭 한 명은 능인선원 불교대학 출신이에요."

능인선원 홍보출판원 이정희 부원장(57·수지심)은 이 말부터 했다. 그리고는 한 마디 덧붙인다. "몇 기세요?"

20년 동안 대학에서 배출한 인원이 20만 명. 이 부원장은, 능인선원의 성장 배경에는 불교대학 동문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나이와 상관없이 이 대학 졸업생들은 금새 선·후배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매년 2기수씩 6천여 명의 졸업생들이 동문에 편입되면서 그 끈끈한 조직력은 배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수도권 지역의 웬만한 사찰 신도회 임원들도 여기서 불교를 배웠고, 잘 나가는 직장·직능불자회 임원들도 이 대학을 거쳤다.

그럼, 불교대학의 어떤 부분이 오늘의 능인선원을 만들었을까. 체계적인 교과과정에 그 원동력이 있다. 먼저 기초반에 들어오면, 4개월간 불교기초를 차근차근 배운다. 지각·결석·조퇴도 엄격히 제한한다. 1개월 이상 결석하면 아예 졸업장을 주지 않는다. 그 만큼 '능인선원맨'이 되기 어렵다. 기초반을 마치면, 경전연구반·법사반·법사대학원 등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 총 4년 동안 기본교리는 물론 주요 경전, 불교사·불교사상·불교예술 등 쉴 틈 없이 불교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이처럼 선원 개원과 동시에 개설한 불교대학은 최근 들어 거사불교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직장·직능불자회의 핵심 동력 발전소가 되고 있다.

●'능인장·능인등' 법회조직 책임 관장

불교대학이 능인선원 조직체계의 씨줄이라면, '능인장·능인등'은 날줄이다. 최소 조직단위 능인등은 10여 명으로 조직돼 있고, 1천여 곳의 가정법회 기초가 된다. 능인장은 능인등 10곳이 모여 각 구역법회를 관장한다. 여기에 현법사(50여명)와 정법사(60여명)란 지도위원단이 가정법회를 직·간접적으로 지도한다. 현법사는 신입 법우, 불교대학 입학생 등의 신행활동을 이끌어 주고, 원로신도회격인 정법사는 서울 강남·강북, 수도권 등 전국 52곳의 광역법회를 책임·관장한다.

이처럼 조직화된 능인장, 능인등 제도는 능인선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올해 창건 20주년을 맞은 능인선원이 현재 본부와 종합사회복지관이 자리 잡은 포이동·서초동 법당과 삼성병원 법당, 자카르타 법당, 북한산 국녕사, 신림동 등룡사 등을 운영케 한 밑바탕이 됐다. 포이동 법당에 위치한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청소년·노인·법률지원·결혼상담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인근 빈민지역인 구룡마을을 돕고 있다. 또 19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과 동시에 문을 연 삼성서울병원 법당은 환자들을 위한 법회,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들을 돕는 호스피스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일사불란한 3백여 '무보수' 상근 봉사자

능인선원 운영은 1원(출판홍보원) 14본부(관리본부, 기별, 가정법회총본부, 교육, 기도, 법회, 재무, 상조, 구매 등)로 구성된 본부장 회의로 이뤄진다. 선원장 지광 스님은 법문과 기도, 신행 상담 등 정신적인 지도 역할을 맡을 뿐이다. 때문에 선원 운영은 전적으로 3백여 명의 무보수 상근 봉사자들이 '알아서' 한다. 종무행정은 물론 신도관리, 능인신문 제작, 신입 신도의 신행상담, 심지어 재정분야까지도 신도들이 맡는다.

굵직한 사업은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본부장 회의에서 다뤄진다. 여기서는 선원의 발전방향 등을 종합·기획하고 결정한다. 논의 방식은 민주적이다.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한다. 본부별 상이한 의견을 다수결로 해결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려도 '설득'과 '이해'를 통해 의결을 조율한다. 때문에 본부장들의 참여가 자발적이다. 또 사업을 직접 입안하고 집행하기에 신도들의 일처리가 주체적이다. 최소한 일을 누가 시켜서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선원 일이 빈틈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능인신협은행, 생협 '푸른나라', 상조회 등을 구성, 신도들간 상호부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선원 신도들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능인신협은행은 수신, 여신, 각종 공과금 수납 등 신도들의 은행 업무를 돕고 있으며, 생협 '푸른나라'는 농촌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선원 재정의 투명성 선언으로 이어졌다. 올해 재단법인 능인선원,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학교법인 능인선원 등 3곳을 외부 회계법인에 공개 감사를 받고, '돈'에서 확실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4년제 '한국불교대학원대학' 2007년 개교 예정

능인선원이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4년제 정규 '한국불교대학원대학' 건립이다. 이미 2002년 4월에 학교법인 설립 인가를 끝냈고,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인근 10만여 평의 부지를 매입했다. 개설 학과 구상도 마무리했다. 불교전법학과, 국제포교학과, 불교예술학과, 불교문헌정보학과, 동양의학과 등 5개과에 신입생 1백여 명을 선발한다. 올해 내 대학 건립의 첫 삽을 떠 개교 년도를 2007년으로 잡았다.

능인선원은 원만한 대학 건립을 위해 오는 11월 27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원 20주년 기념 법회 및 대학 건립을 위한 백만불 봉안법회'를 봉행한다.

올해 말까지 북한산 국녕사 복원 불사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조선 중기 사명대사가 국란에 대비해 창건했다는 국녕사를 지난 1998부터 복원 중인 능인선원은 현재 대웅전, 산신각, 종각, 요사채 등을 완공, 전통사찰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1년 관악구 고시촌에 개원한 등룡사를 명실공히 예비 법조인인 사법시험 고시생들의 수행처로 자리매김시킨다.

대사회적 활동도 강화한다. 기존 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을 한층 내실화하고,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자살 급증 등의 사회적 문제와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자살방지 예방 캠페인 전개, 자연보호운동 등을 벌여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불교의 모습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잘 키운 지도자 한명 수백만 명을 불자로"

인 터 뷰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



"제대로 키운 불교 지도자 한 명이 수백만 명을 불자로 만듭니다. 결국 사람이 다 합니다. 따라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지광 스님은 "한국불교의 발전 동력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한국불교가 대중화·현대화·조직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큰 나무가 넓은 그늘을 내줄 수 있다는 이치다. 그래서 스님이 공을 들이는 것이 바로 4년 정규 한국불교대학원대학 설립. 학교 건립을 위해 1단계 사업에 5백억 원을 쏟아 붓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스님은 해외 포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올 초에는 미국 뉴저지 포틀리 인근 10만여 평 부지를 사들였고, 지금은 미국 정부로부터 종교용지로의 변경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또 한국불교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현지인 포교를 해야 한다는 판단도 한 몫을 했다.

"이제는 한국불교도 우물 안 개구리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 다른 나라의 불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님은 이와 함께 국내에 포교당을 늘릴 계획이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전국 광역시와 도 단위에 지방포교당을 개원할 생각이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걸작의 魂을 만나는 '리움'

Leeum

■ 건물 자체가 세계적 작품 (마리오 보타 · 장 누벨 · 렘 쿨하스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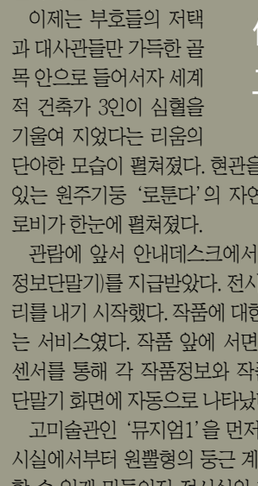
'리움'은 삼성 창업자 일가의 성 'Lee'와 'Museum'의 합성어다. '뮤지엄1' '뮤지엄2'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3개 동으로 구성된 리움은 2400여평의 대지에 연건평 8500평 규모로 아담하다. 하지만 예술적 가치나 시설면에서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건물자체가 예술작품이라고 불릴 만큼 건축가 3명의 독특한 개성과 혁신적 기법이 돋보인다.

'뮤지엄1'은 고미술관으로 스위스 출신의 '마리오 보타(Mario Botta)'가 설계한 직육면체와 원추형의 건물. 외관은 테라코타로 마감했다. 각층은 나선형의 계단을 통해 연결 되어져 있어 4층에서 1층까지 달팽이관을 돌 듯 자연스럽게 작품들을 관람하면서 내려올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뮤지엄2'는 근현대미술관으로 프랑스 출신의 '장 누벨(Jean Nouvel)'이 설계했다. 밖에서 보면 건물자체가 설치작품이다. 스테인레스 강판을 상자모양으로 쌓아 전시공간 겸 외벽이 되게 만들었다. 뮤지엄2에는 이중섭 박수근 서호도 이불 요셉보이스 백남준 등 국내외 유명 미술가들의 대표작 70여점이 전시돼있다.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는 네들란드 출신의 '렘 쿨하스(Eem Koolhaas)'에 의해 전혀 다른 느낌의 세 건물을 하나로 융합시켜 놓았다. 내부공간은 알차보였지만 밖에서는 다소 밋밋하다는 느낌이 든다. '보이지 않는 건축'을 끊임없이 시도해온 작가의 스타일이라고 한다.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 작품이 놓인 테라스는 주변 주택가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출입을 통제해 아쉬움을 남겼다.



리움의 외부전경.

"금동대탑(국보213호)은 고려 10~1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5층 목탑을 모방한 대표적(중략)… 개태사지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PDA단말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안내를 따라 천년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왔다. 관람객들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평소 도록으로만 보아왔던 국보급 성보(聖寶)를 감상하는데 몰두 했다.

서울 목멱산(남산) 기슭의 한갓진 고급 주택가쯤으로 여겼던 곳에 한국 최고의 '명품' 미술관 '리움(관장 홍라희)'이 10월 19일 문을 열었다. 미술관 관계자의 안내대로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을 내려 1번 출구를 나서자 낯익은 이태원 초입길이 나왔다. 이곳이 한강을 드나들던 나룻배와 갈매기를 내려다보던 포구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건물내부에는 '블렉박스'라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

10월19일 개관…예약제로 관람
작품정보 · 해설 PDA로 음성 제공
佛美館 마음정화 차원 1층에 설계
고려불화 · 금동대탑 등 국보 다수

이제는 부호들의 저택과 대사관들만 가득한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세계적 건축가 3인이 심혈을 기울여 지었다는 리움의 단아한 모습이 펼쳐졌다. 현관을 들어서자 천정까지 뚫려있는 원주기둥 '로툰다'의 자연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로비가 한눈에 펼쳐졌다.

관람에 앞서 안내데스크에서 손바닥크기의 PDA(개인정보단말기)를 지급받았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PDA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작품에 대한 해설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작품 앞에 서면 바닥에 깔린 동전크기의 센서를 통해 각 작품정보와 작품설명, 자세히 보기 등이 단말기 화면에 자동으로 나타났다.

고미술관인 '뮤지엄1'을 먼저 둘러보았다. 4층 청자 전시실에서부터 원뿔형의 둥근 계단을 따라 각 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전시실의 배치가 특이했다. 현재 전시중인 작품은 모두 120여점으로 이중에는 국보 25점, 보물 35점이 포함돼있다. 개관전시인 만큼 삼성그룹의 창립자 호암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남다른 열정으로 수집해온 미술품 가운데 가장 빼어난 작품들이 엄선됐다. 사실상 삼성문화재단 산하의 용인 호암미술관, 서울 호암갤러리, 광화문 로뎅갤러리에 소장된 국내외 명작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리움을 관람하면 우리나라 미술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의 '진품'을 한자리에서 모두 보고 나오는 셈이다.

4층 청자, 3층 분청사기, 2층 서화, 1층 불교미술과 금속공예 전시실에는 한국미술을 대표할 만한 도자기류와 조선 시대 화단을 풍미했던 서화가들의 대표작, 불화, 불상, 등 각종 불교미술작품들을 모두 볼 수 있다. 박 과장은 "국립박물관의 규모를 따라가긴 어렵겠지만, 리움의 한국 고미술 컬렉션은 질과 양에서 국내 최고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불교미술실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금동대탑'이다. 이렇게 크고(155cm) 섬세한 청동 주물탑을 만든 고려 장인은 누구였을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문양 하나하나를 정성으로 새겨놓은 고려인의 솜씨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늘 사진으로만 보아오던 '용두보당(국보 136호)'을 실물로 보는 즐거움 또한 크다.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도 국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됐다. 통일신라 경덕왕 13년(754) 8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황룡사의 연기법사가 발원하여 만든 <신역화엄경(新譯華嚴經)> 사경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경전이다. 신라 종이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움 그 자체다.



환하게 불을 밝힌 리움의 야경.

14세기 고려불화의 전형 '아미타삼존도(국보 218호)'와 '지장도(보물 784호)'의 상설전시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국내 10여점 밖에 남아 있지 않는 고려불화는 보존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상설전시를 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직접 실물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불교미술실은 철저한 온 · 습도 관리는 물론 유물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시기법에서도 밑에서 위로 불상의 상호를 올려 보도록 만들어 자연스럽게 관객이 불상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배려했다.

불교미술실의 손은석 선임 연구원은 "뮤지엄1의 1층에 불교미술실이 자리 잡은 것은 불교미술이 한국고미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다른 것도 있지만 각 층을 관람한 뒤 마지막으로 불교미술품을 보면서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금동불상의 쇼케이스는 독일의 '글라스바우 한(Glasbau Hahn)' 사가 제작한 것으로 세계최초로 천정에 고정된 독립장 형식을 채택했다.



금동대탑.



금동미륵반가상.



아미타삼존도.



대방광불화엄경.



용두보당.

'리움' 미술관 홍라희 관장



"리움 미술관을 통해 불자들이 불교미술 작품을 보다 폭넓게 감상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홍라희 관장은 오랫동안 불교와 인연을 맺어온 불자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여성불자모임인 '불이회(不二會)'의 회장으로 매년 젊은 불교인재를 발굴을 위해 '불이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홍 관장은 불이회를 통해 인재불사와 신행,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홍 관장은 현재 삼성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산하의 호암미술관, 호암갤러리, 로댕미술관 관장을 겸하고 있다.

'리움'을 이용하려면

올해 연말까지는 전화예약제로만 관람이 가능하다. 국내 처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미술작품과 떠나는 시간여행전'이 열리고 있다. 하루 허용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관람은 매일 오전 11시~오후 4시 까지 가능하다. 휴관일은 매주 일 • 월요일이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1번 출구, 버스 110, 0014, 0015번을 이용하면 된다.

(02)2014-6901 www.leeum.org

www.drsaju.com
사주박사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을 위한
역학전문 온라인 아카데미
운명 · 미래 · 삶 창
프로 사주박사 (www.drsaju.com) 는...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있는 선생님들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 입니다.
1.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 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 (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

불황이 마음을 닫게 한다고?

직장불자 뜨면 웃음꽃 '활짝'

어려운 때다. 장기화된 불황으로 닫힌 것은 비단 소비자들의 지갑뿐만이 아니다. '내 가족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져 있다. 하지만 여기,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을 강조하며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직장불자들이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불자회, 구로승무사무소법우회, 교사불자연합회, 선재마을의료회 등 바쁜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자 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직장불자들을 살펴본다.



불황속 직장불자들은 나눔과 봉사의 실천에 나서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 선재마을 의료회의 봉사활동 장면.

소외지역 생필품 지원 · 의료봉사 등 활발
일터불심 신행 · 포교 키워드 '나눔' 정착

● 소외된 이웃에 밝은 웃음을

구로승무사무소법우회(회장 우철재)는 짝수달을 '봉사활동의 달'로 규정하고 구로구내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노력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불편한 곳은 없는지,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를 파악해 생필품 지원과 가전제품 수리하기, 안마해드리기, 말벗 해드리기 등 홀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있다. 또한 1년에 두 차례씩은 특별 나들이 행사를 진행한다.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외출이 쉽지 않은 노인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서로의 정을 나누는 자리이다. 지난 10월 14일에는 관내 독거노인 100여분을 모시고 영종도와 인천국제공항 등으로 '일일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밖에도 구로승무사무소법우회는 격월로 화성 자제정사를 방문해 인근 텃밭 가꾸기, 지역 노인들 목욕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철재 회장은 "봉사하지 않는 신행은 있을 수 없다"며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 등 관내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27일로 창립 1주년을 맞는 인천중부경찰서불교회(회장 이판열)는 인천 지역내 장애인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에게 식량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력봉사도 하고 싶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시간을 내기 어려워 매월 1만원씩 회비를 걷어 이웃들을 위한 생활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중부경찰서불교회는 지난 추석에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라면, 옷 등의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6곳에 라면 40상자, 의류 200여점, 타올 150장, 의약품 등을 보냈다.

청내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경 등도 불자회에 속속 합류하는 만큼,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우리은행 서울불자회(회장 정진호), 성북구청불자회(회장 정후시), 경북지방경찰청불자회(회장 김성조), SBS 법우회(회장 허원제), 한국국방연구원 · 국방품질관리소 홍릉법우회(회장 이종인),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안양지역회(회장 유경순) 등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노력봉사활동과 생활용품 지원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약사 보살들

의료봉사의 대표주자는 단연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김광수). 선재마을의료회는 '보살행, 보시행, 의료행'을 좌표삼아 매주 일요일 서울 봉은사에서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진료를 진행하고, 매월 한 차례씩 의료시설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순회진료를 벌이고 있다. 10월 30~31일에는 양평 사나사로 수련회겸 순회진료를 떠난다.

특히 봉은사에서 펼치는 진료봉사는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내과진료는 물론, 한방과 치과진료까지 진행해 호응이 높다. 이밖에도 미아리성가복지병원, 은평구 도티병원, 적십자병원 등과 연계해 보다 정밀한 진료까지 책임지고 있다.

1997년에 창립된 경희의료원불자회(회장 권혁운)는 지난 7년간 의료원 내 불교자원봉사회와 간병봉사를 계속해오고 있다. 매년 3~4차례 대한가수불자회와 연합해 병원로비에서 '환자 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고,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 복지관들과 사찰 등을 찾아가며 '자비 의술'을 펼치고 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 역시 의료봉사를 진행한다. 소속 병원불자회들이 대부분 개별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은 불가능하지만, 매년 두 차례씩 연합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합천 해인사 의료봉사와 양주시에 위치한 장애인시설 등의 무료의료봉사를 진행했다.

김주효 회장은 "기본적인 의료기기 마련 등이 가장 어려운 문제지만, 많은 회원들이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진료 등 보다 전문적인 의료봉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봉사와 접목한 포교 · 교화활동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활선)는 매주 일요일을 '군법당 찾아가는 날'로 정하고 군인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과 상담봉사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매주 첫째주 1사단 신병교육대, 둘째주 1군단 특공대, 셋째주 3사단 신병교육대, 넷째주 1군단 포교대 등. 스케줄표만 들여다봐도 대한불자가수회의 활동양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상시적으로 교도소와 병원 등을 찾아 심신이 병든 이들을 노래로 치료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활선 회장은 "가수들이 찾아와 공연을 한다고 하면, 평소 법당을 멀리하던 이들도 전보다 쉽게 법당을 찾는다"며 "같이 찬불가도 부르고 신행고백 등 법담을 나누는 사이사이 청년들 가슴에서 불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국 지부별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가정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의 보조학습과 특수장애 학생들의 학습 및 외출을 돕는 학습 · 노력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산사체험과 문화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교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돕고, '문화재 보호'라는 새로운 봉사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포항교사불자회는 지난해 청소년문화재 교실을 개설하고, 사이버 청소년 신행상담과 불교공부방을 운영해 많은 청소년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오희창)는 전국 43개 교정기관을 통해 재소자 상담과 불우한 재소자에게 영치금 등을 전달하고 있으며, 삼천포화력본부 반야회(회장 김세권)와 고리원자력발전소 고리반야부인회(회장 유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자회(회장 암병현) 등도 빠르면 올해 안에 봉사활동을 불자회 내 사회활동으로 정례화 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광주지방국세청 불자회

안녕하세요.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동호회, 광주지방국세청 불자회입니다.

불교신자임을 내세우지 않는 청내 분위기를 바꾸고자 물밑에 숨어 있는 불자들을 향해 '잠수함 물 위로 띄우기 작전' 등 다양한 포교와 회유책(?)을 벌이고 있는 불자회. 국세청 내부 지식관리시스템 커뮤니티에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전국 국세청 불자들에게 부처님 말씀과 불자회 소식 등을 전하고, 때로는 청내 직원들의 불교 성향을 파악을 위해 주차장에 잠입(?)해 차량 내 불교용품 유무를 조사하는 열혈 불자회가 바로 우리 불자회입니다.



광주국세청불자회원들이 10월 2일 광주지역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 도배와 가구 정돈,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불자 발굴에 총력…전원 교리 교육
가족법회 · 봉사활동으로 '한마음'

이렇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불자회는 지난 2000년 7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터에서 실천하고자 창립했습니다.

현재는 90여명의 회원들이 끈끈한 신심과 가족과 같은 따뜻한 정으로 똘똘 뭉쳐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첫 창립법회를 갖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 중에는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불교신자임을 밝히기 꺼려해 처음 신행단체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1년 반동안의 끈질긴 노력덕분에 4년전 광주지방국세청 전산교육장에서 첫 법회를 봉행습니다. 이후 무각사에서 매월 두 차례 주지 스님을 법사 스님으로 정기법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불교 기본 소양을 높이고자 회원 모두가 불자회 내 기초교리 강좌와 무각사 교육 등을 통해 기초교리과정을 수료하고 수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천수경을 비롯해 반야심경을 자체 강의와 초청강의 등을 통해 공부하고 현재는 유마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회의 자랑거리는 무엇보다도 끈끈한 신심으로 똘똘 뭉친 조직력입니다. 불자회가 하위직급인 실무자들을 위주로 태동된 만큼, 회사업무는 물론 개인적인 애경사 등을 서로 챙겨주며 가족과 같은 정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 결과 11명으로 시작한 회원 수가 현재 90여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커진 것은 불자회 규모만이 아닙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활동 등을 매월 한 차례씩 진행하며,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복지시설 신축공사장 등에서 막노동을 하고 고추밭을 매거나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목욕을 도와드리는 단순 봉사를 담당해왔지만, 앞으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도울 생각입니다. 또한 초심 법우들을 위한 불교강좌를 대폭 강화하고, 주말수련회를 비롯한 사찰순례 등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회원 아이들부터 시작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법회와 봉사활동 등을 다양하게 마련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신행복합체'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윤영남 회장

www.15440108.com
☎ 1544-0108
야단법석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선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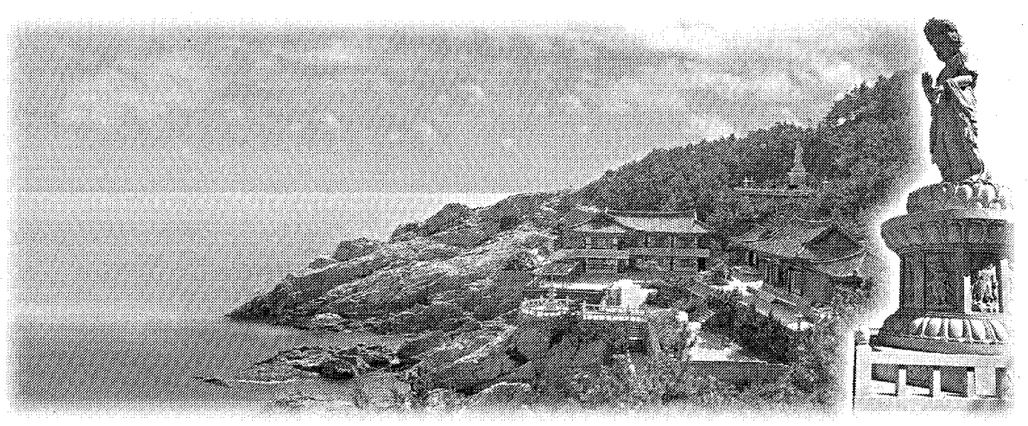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7억

(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사찰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아파트 밀집지역 (경남호텔뒷편)
- 평수 : 40평
- 가액 : 2천만원에 월 180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019-396-1624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해 부산 10분거리
- 대지 : 179평, 법당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2동
- 전세 : 4천만원 월세 : 2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일체 없음
- 즉시 법회 가능

055)335-3644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 부지: 1000평
- 법당: 30평 목조
- 요사: 30평
- 가액: 8억

① 서울 사찰 15억 미만 급히 구합니다
② 충청, 강원도 암자 2억 미만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내
- 부지 : 1.000평
- 법당 : 25평 (목재)
- 요사 : 40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경북 고령시내
- 부지 : 550평
- 법당 : 20평 (목재)
- 요사 : 80평
- 산신각 : 5평
- 양도가 : 5억 5천(융자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3동
- 평수: 38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25만원 권리금 1000만원

051)503-0908
019-291-5558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400여평
- 가옥 1동, 석가모니부처님, 후불탱화,신중탱화,산신탱화 스님방,샤워실,주방,창고, 주차장완비
- 가액 : 1750만원.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011-379-9860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내 포교 최적지
- 2층건물 중 2층
- 건물: 40평(법당 20평)
- 시설: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6-640-813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임
- 대지: 159평
- 총건평: 25평(요사채 12평)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8천만원 (답사 후 절충可)

019-503-7959

토굴 및 전원주택
- 위치: 경북왜관 마을끝집
- 총평수: 260평
- 40평 주택 2채 상태양호
- 마당 잔디
- 가액: 1억2천5백만원

011-522-4896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고령읍 소재
- 부지 : 5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채 : 80평(2층, 신축)
- 기타 : 산신각,석불,석탑 등
- 가액 : 4억 8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에 위치한 명성있는 전통사찰임

사찰안내(토굴)
- 위치: 경북 영천군 소재
- 부지: 1만평
- 법당 : 15평, 요사채 30평
- 가액 : 1억 8천만원
- 특징 : 산세와 계곡이 어우러진 청정도량임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 전국소재 사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018-536-4064 / 대구 018-689-0455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 3천2백평
- 법당, 요사완비
- 가액 : 전세 3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1-9415-6831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보은군 산외면 길탕리
- 산세 좋은 전답 임야
- 대지 : 200평, 조립식 건물 25평 창고 25평, 토목공사 2천평
- 4차선에서 5분거리
- 현시세 2억천만원. 가액 : 1억 5천만원

043)255-2773
016-402-1159

사찰안내
- 위치: 전주시내,중심지역대지상가주택
- 1층상가 6개. 2층사찰 대지 110평 건평120평 자신있게 갖춘 도량임
- 가액 총 4억8천 준비금 2억 8천이며 개인사찰 등기이전 상가에서 매월 170만원나옴. 융자 80%가능
- 대지는 8×6미터. 코너젖
- 비구니스님. 비구스님. 법사님도량

010-3166-8483

사찰안내
- 위치 : 울진군 울진읍
- 평수 : 사찰도량 600평 텃밭 700평
- 전세가액 : 2천만원
- 스님불사 관계로 '급'

011-554-2044
051)257-2044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가격 절충)

041)753-376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파계사 밑
- 법당, 친견실, 스님방, 욕실 공양간, 큰방 2개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800만원

011-514-757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구포 구남시장
- 총평수 : 50평

011-584-3898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중심가
- 대지203평 현 거래시가 250만원정도
- 사정상 급 1평당 195만원 (3억8천5백만원)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7층탑 5층탑
- 100년이상된 고목 2그루 포교 적합지
- 화장실 수세식 4칸
- 주차 7. 8여대 가능
- 주인직접

010-3133-0018

명당터 (암자 및 토굴로 최적)
- 위치: 경남 함양 (해발 650 고지 청정지역)
- 지리산 천왕봉 안대(정남향) 전망최고, 좌우로 계곡
- 부지 600평 (심야전기) 임야 1300평
- 가액: 1억 9천만원

010-4548-0499

사찰전세안내
- 위치 : 천안지역
- 가액 : 3억(절충가)
- 산세좋고 도량 넓음

016-9558-0306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
02)481-3635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3천5백

011-9391-8117

고찰터안내
- 경남 함양군 법화산
- 독립된 청정계곡. 야생차밭
- 16필지 총 7527평
- 관리지역 임야 4808평 1만원 전답 2919평 3만원 1억 3천만원

011-9393-4965

포교당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북부동 시내 10분거리
- 평수 30평, 방2, 주방, 샤워실
- 시설비 無
- 전,월세 절충 가능

055)386-2376
017-563-4602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장산아래
- 평수: 법당 15평, 방4개
- 가액: 전세 3천1백만원 (시설비 無)

055)386-3509
011-9585-1172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하동 사당골 계곡접, 교통편리
- 대지 : 60평, 단청필, 방4개
- 전세 : 보증금 6천만원. 월25만원
- 채소밭 40평
- 양도가 : 방6개,주방2,화장실2,욕실1 1억 5천만원
- 위치 : 경남 밀양. 창근 10개월
- 대지 304평, 법당 24평, 요사 27평
- 양도가 : 1억 8천만원

011-9357-5677

법당안내
- 위치: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도로변 (버스, 전철 5분거리)
- 5층건물 중 2층 전체 50평(법당,공양실, 접견실,사무실,2층대형화장실) 스님,사무실,방 별도(전용,화장,샤워실)
- 보증금 2000만원 월 115만원 (즉시법회)
- 답사 후 시설비 상담요

02)2699-763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 대지 : 170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40평 (방5,주방1,거실,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하천댐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공기
- 가액 : 3억 3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6-9771-2736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백운산 운장사 법당
- 10m 돌탑영험부처님
- 가액 : 1억 7천 5백만원

033)766-0057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입구
- 법당 : 20평(3층건물의3층)
- 옥상 넓음
- 가액 : 2천만원에 월 40만원

031-323-2890
포교당 꼭 필요하신 스님만 연락바랍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남산동 부근 전철역 2분거리
- 평수: 빌라 2층 40평, 법당 25평, 방2, 주방1
- 가액: 시설비 포함 평당 250만원

051)512-0437
011-622-7466

암자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진주 30분거리)
- 면적: 임야 약 5000평중에 등기 900평
- 특징: 산세가 수려하고 물 좋은 20년된 암자
- 가액: 1억5천만원(절충가능)

055)674-7839

포교당안내
- 위치: 성남시 중원구 신흥전철역 옆
- 2층건물중 2층. 평수: 17평
- 임법당, 방1, 목욕탕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6백만원
- 용도: 철학, 불교미술 적당

011-806-4867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30평
- 가액 : 2억원 (절충가능)

011-9543-022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반구동
- 평수 : 50평
- 2층 건물 중 2층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2천 5백만원

052)293-1237
017-856-3617

토굴 및 전원주택
- 위치: 경북왜관 마을끝집
- 총평수: 260평
- 40평 주택 2채 상태양호
- 마당 잔디
- 가액: 1억2천5백만원

011-522-489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창근 10개월
- 대지 304평, 법당 24평, 요사 27평
- 양도가 : 1억 8천만원

011-9357-5677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해 부산 10분거리
- 대지 : 179평, 법당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2동
- 전세 : 4천만원 월세 : 2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일체 없음
- 즉시 법회 가능

055)335-364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임
- 대지: 159평
- 총건평: 25평(요사채 12평)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8천만원 (답사 후 절충可)

019-503-7959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백운산 운장사 법당
- 10m 돌탑영험부처님
- 가액 : 1억 7천 5백만원

033)766-0057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입구
- 법당 : 20평(3층건물의3층)
- 옥상 넓음
- 가액 : 2천만원에 월 40만원

031-323-2890
포교당 꼭 필요하신 스님만 연락바랍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남산동 부근 전철역 2분거리
- 평수: 빌라 2층 40평, 법당 25평, 방2, 주방1
- 가액: 시설비 포함 평당 250만원

051)512-0437
011-622-7466

암자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진주 30분거리)
- 면적: 임야 약 5000평중에 등기 900평
- 특징: 산세가 수려하고 물 좋은 20년된 암자
- 가액: 1억5천만원(절충가능)

055)674-7839

포교당안내
- 위치: 성남시 중원구 신흥전철역 옆
- 2층건물중 2층. 평수: 17평
- 임법당, 방1, 목욕탕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6백만원
- 용도: 철학, 불교미술 적당

011-806-4867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30평
- 가액 : 2억원 (절충가능)

011-9543-022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반구동
- 평수 : 50평
- 2층 건물 중 2층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2천 5백만원

052)293-1237
017-856-361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팔공산 자락
- 대지 : 200평
- 임법당 20평,요사채92평중 (방8개,주방1,거실,화장실) ※ 산신각,야외 화장실 별도
- 부지 : 밭 3000평(유실수 식재)
- 특징 : 팔공산자락의 수려한 경관과 쾌적한 공기
- 가액 : 3억5천만원(답사 후 절충가능)

011-9211-7753

별장 겸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앞에 강이 보이고 뒤에는 소나무가 둘러쌓여 전망이 매우 수려
- 평수 : 400평
- 가액 : 2억 3천

010-3130-8301

포교당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도마동
- 평수 : 50평
- 오존불, 주택가 인근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천만원에 월 20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6412-3993
011-9819-1330

암자안내(작은)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70평, 건평: 40평(무허가)
- 가액: 7천 5백만원
- 즉시입주가능

051)643-4109
055)323-2858
011-9542-5726

사찰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평동 공단 인근
- 대지: 207평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목조) 25평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
- 가액: 1억(전세 5천만원)

062)943-3330
011-9600-8002

사찰안내
- 큰 바위산 밑 농장 12000평 (호도, 매실, 밤 나무)
- 스님방(욕실있음), 친견실, 법당, 공양간 큰방2개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1-514-7575

대명당(급)안내
- 위치 : 충남 계룡산 국사봉 산하 (대문앞까지 포장)
- 용도 : 수도원. 사찰, 별장, 주택 등 다용도로 최적
- 대지 : 366평 건물 52평 중 기와 38평 스라브 14평
- 법당 용도 약 18평 그 외 방 8칸 (2~3년 분납가)
- 가액 : 2억 7천만원

041)736-8311

사 찰
- 위치: 원주시
- 부지 : 1000평,법당 30평, 삼성각 7평 요사채 2동(30평, 15평) (목조 및 단청)
- 용왕궁
- 가액 : 3억 8천만원

033)731-6612

암자(급)안내
- 위치: 경북 성주
- 대지 : 80평
- 건물 : 법당, 방2개, 주방, 욕실
- 가액 : 2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 비구니스님이나 보살님 적격

053)792-0399
011-9586-0859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3천5백

011-9391-8117

사찰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곤양 IC에서 10분 진주시내에서 20분
- 임야 7500평, 대지 1000평 대웅전 25평 목조단청필
- 삼성각 7평 목조, 주지실 15평, 요사채 5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9343-9530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주문진읍
- 사용부지: 500평
- 년 20만원
- 건물, 임법당, 방 4개, 목욕탕 2개, 입식부엌
- 사용하기 편리함
- 가액: 6800만원

033)662-8713
011-806-4867

좋은 인연 찾음
- 백두대간 지리산 동하 뒤 천황산자락. 무량산. 남 앞으로 천왕봉, 장군봉 좌천룡우백호의 봉황포란형
- 종교부지 300여평 기타 1000여평 태백산 赤松 원통전 30평 요사채 30평 기타 지음
- 자연경관 300여만평의 숲에 쌓임. 숲속산길 일품
- 선방 및 기도처 휴양공간으로 최적. 등산로 옹달샘
- 여러조건 10억 → 지금 5억(불경기 및 급히 인도 요양)

055)674-2202 / 010-8019-4862
고성(경남)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 주례동
- 평수 45평, 3층건물 2층
- 큰법당 1칸, 방 2칸, 입식 부엌 및 화장실
- 법당에 삼존불 및 후불탱화 지장불 및 지장탱화, 신중탱화, 산신불 및 산신탱화, 용왕불 및 용왕탱화 영가단 설치
- 전세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모든집기 포함) 15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함
- 타지역 이사 관계로 급히 연락바람

051)327-0477
019-556-604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충북 제천시(중심지)
- 대지 : 80평
- 임법당 : 한옥 25평 요사채 : 스라브 1동 15평 합 : 건평 40평
- 즉시 법회 가능
- 현재 시가보다 이하
- 가액 : 1억 6천만원

043)648-6422
011-9408-642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대지: 200평(주차장 600평) 총 800평
- 공터: 400평
- 건축: 법당(고려시대 부처님상 아미타), 요사채, 방. 총 46평
- 가액: 3억 5천(답사후절충가능) (융자 6500만원포함)

011-9378-5637

사찰겸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부천 부천역 2분거리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 2층 30평 법당 1개 방2개 거실 욕실
- 대웅전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13자조각 완벽함
- 보증금 1천만원 월세5십5만원 시설비 1천 4백만원 포교요충지
- 스님개인사정상 급매.비구니스님, 비구스님.법사님.보살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주차는 80%. 주인직거래

032)667-8485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 가액: 2억5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 4층 건물에 3층
- 법당 : 30평, 시설일체 완비 삼존불, 탱화, 신중 방1, 주방, 상담실, 샤워장
- 지금 법회중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51-782-9386
016-9695-7001

사찰(급)안내
- 위치 :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일출봉에서 5분거리)
- 대지 : 1층 380평, 법당 23평, 목조단청, 칠층석탑, 입불석조약사여래불,산신당, 용왕당, 종각, 요사채 2동
- 1층과 같은 반지하 : 150평, 방7개, 20평법당. 사용가능 욕실, 공양실
- 특징 : 성산일출봉과 바다건너 우도섬이 보이고 도로에서 절이 보이며 마을이300m정도 떨어져 있음
- 가액 : 4억 8천만원

011-858-8892 / 064)702-9982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불교 각종 행사 염불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 구화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패의식

천도재	수륙재	산신재	점안식	바라춤	나비춤

행사에 염불해 드립니다
무진 051)468-7374
합장 018-523-7374

바구니스님이 만든 야생오미자차
高山에서 자생하는 오미자
기관지,천식,간장병,신장병
쉽게 피로하며 잘 붓는 사람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잔드린 함유
055)345-6667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무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좋은인연 바람
스님이 안계시는 암자나 사찰 부처님 모실분
비구스님의 역학으로 상담 및 포교 자신
무보시로 시작하겠습니다
011-880-9854

전국비구니 사찰 월동준비 보수작업안내
- 내용 : 건물, 상수도, 나무미화, 단청 석축, 조경, 보수작업해 드립니다
- 일당 : 5만원

041)563-4667
011-454-8315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神 비법 강의
요즘 불사 어렵죠. 초종파 불문하고 무조건 찾아오세요. 이곳에 선지식 1분 계시니 속지 않을 겁니다. 우주법계가 자신속에 있지만 모르면 道 아니다.배우고 나면 누구나 훌륭한 道人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용사 석탑 법경 합장요즘 불사 어렵죠. 초종파 불문하고 무조건 찾아오세요. 이곳에 선지식 1분 계시니 속지 않을 겁니다. 우주법계가 자신속에 있지만 모르면 道 아니다.배우고 나면 누구나 훌륭한 道人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용사 석탑 법경 합장
- 강 의 : 매주 월 화 수 10시 30분부터~17시 30분 까지 5시간 강의
- 연락처 : 055-573-7832 / 010-3189-3525
- 농 협 : 801175-52-023491 예금주 - 김창수(법경)
- 주 소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330번지

참선 법복, 바지
원통사 도량에서 수행하면서 정성껏 만든 법복 바지입니다. 잠옷, 재, 먹을 혼합하여 고운 무명천에 천연 염색한 바지 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좌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선하시는 남녀 불자님께 꼭 필요한 법복입니다.
(회색, 황토색, 검은회색)
대한불교조계종 원통사 자성월 합장
063)323-2100

황토 청국장
덕유산 관음도량에서 수행하며 정성껏 만든 청국장입니다.
토종 우리콩을 900m 약수로 가마솥에 장작불로 7시간끓여 황토방에서 솔잎과 발효
자연 건조한 청국장입니다
주문 063)323-2100
대한불교조계종 원통사 관음화 합장

신묘한 구성학
사주없이 간단한 숫자만으로 래방객의 래정 및 처한 상황등을 쉽게 알 수 있는 구성학을 개인지도함
(출장가능)
02)2274-0443
019-446-4755

역학무료
수강료 없음
▷ 기초부터 개업까지 책임지도
02)3453-0001

사찰운영하고 싶은 비구, 비구니,보살님 초빙합니다
철학상담.
약간의 자금 소유자 환영
017-390-0909
02)2201-0796

60대초반 나이로 술과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 독신남자로 사찰에서 차량운전과 사찰에서 처사로 할수 있는 일을 저렴한 보시로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지방사찰도 좋습니다.
031)826-1152
011-9753-4152

부전스님, 신심있는 공양주 모십니다.(40-50세)
▷ 경북 청도
011-540-7739

부전스님 구합니다
▷ 35세 미만
부산 사하구 시내
1일 1시간 3회 정근
011-509-0124

저는 조계종의 혜담스님 입니다.
23년간 수행하였습니다. 기도 중 신병을 얻어 병원에 반년 간 있었으며, 거의 2년간 고생하다가 우연히 경기도 안성의 도성사 도성 큰스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완쾌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면 널리 알려 치료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성큰스님은 이런 신병을 무료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016-562-3533

조용한 암자에서 수행기도 하시면서 운전할 비구스님이나 처사님을 모십니다
(운전면허 소지)
041)864-9143
011-392-6885

행자,공양주 구합니다
▷ 대구 팔공산
010-4816-654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50~60대
경기 곤지암
011-844-434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대
▷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7-260-3310

화주보살 구합니다
02)952-7277

참신한 비구입니다.
기도스님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010-3999-0075

수행 비구니스님 및 행자모십니다
▷ 나이 : 20 ~ 40세
부산 시내 포교원
018-801-2355

토굴(암자) 구 함
서울근교. 수도권
산(山)을 등진 도량 원함
017-297-4097

조용한 토굴에서 기도하며 수행하고자 합니다
빈집, 토굴 무상보시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17-517-0097
052)282-0097

광주광역시 도심에 있는 3층 사찰을 내절처럼 오래 보살펴주실 조계종 비구 또는 비구니 스님을 원합니다
062)222-0484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팔금강탱 나한탱(오백나한) 산신, 용왕, 독성탱
※ 먹탱화 홍탱화 ※ 무속종합탱(각종족자)
041)541-3545.3547 / 016-751-3545
홈페이지 : www.bongen.pe.kr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불모 오재택의 작품 사진 300여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모 오재택

조계종스님 설립한 부산 교통중심지. 포교당 90평 사원을 인연있는 비구니 법상좌로 하여금 스승처럼 의지하며 평생을 관리 운영케 하고자 40~50대의 포교에 뜻이있고 수행쳐인 도량을 찾고 자하는 조계종 재적 비구니스님을 구함
연락처 051)441-1430(부산)
054)653-1180(경북)
소백산 국내제2 지장보궁 내원암 부산설법원 해주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011-9221-129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강원도
011-9571-6479

발명특허 **(주)황토만세** 웰빙황토
氣
- 사찰암자토굴법당제작 및 리모델링
- 황토방 팔각정 가정찜질방 원두막 흙집 ※ 전국출장상담

〈주〉황토방주택사업부
전국시도 영업소 및 남녀 영업사원 모집 017-409-9599

이십팔숙 개인지도
- 사주와 이십팔숙의 특수비법 쉽게 통변 - 이십팔숙은 막힌 우운을 뚫어주는 비법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 02)926-1259 / 011-741-0867

역학수강생모집
- 매주 금요일 15시 (초보, 주야반)
- 특수비법 : 영가찾는 법, 개운법, 신살암기법, 쉬운 오행비법, 초보자도 들으면 기억됨
- 역학프로그램 공급 ● 전화상담 가능, 자격증 발급

백세 역리원(신사역 6번출구) 02)542-8404
011-9150-2284

21C는 불교로 간다!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 ▶신입생 주, 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배출기관
  - 도심속7층대법당, 최첨단시설
- ▶행자(예비스님, 남녀) 모집
  - 행자원있음(엘리트 스님양성 - 40세 이하,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직접지도합니다.
문의 : 011-9852-0075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목조건축물
(보수. 복원. 보존)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기와방수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래살충
- 목재 복원 시스템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 전용(부식)방부제
- 기타 공사
- 목재 방염 공사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 / 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代)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관상학. 기문둔갑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부처님 가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어느새 가을입니다.
현대가 성장해온 시간들이
벌써 12년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힘차게 도약하는 마음 가짐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성혼을 이룰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 밀어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150m 지점 쯤 자리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성혼을 이룰수 있도록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288-2944

콘텐츠 생산없이 디지털 미래 없다

동국大 전불연, '불교문화재 … ' 세미나
취약한 IT기반 · 기술력 중요성 등 지적

"불교계 홈페이지 중에서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 부다피아(www.buddhapia.com)가 사회 · 문화 · 종교 카테고리 내에서는 4,157위로 185위인 기독교의 '갓피플닷컴'이나 927위인 '가톨릭인터넷'에 비해 현저히 낮다."(신지용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정보화사업단 팀장)

"인터넷 상에 유포돼있는 성보문화재 해설문안, 통일된 용어 정립이 시급하다."(동국대 정우택 미술사학과 교수)

제6회 전자불전연구소 학술세미나가 10월 21일 '성보문화재 콘텐츠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 스님, 동국대 정우택 교수(미술사학과), 국립춘천박물관 최응천 관장, 신지용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정보화사업단 팀장 등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인터넷 내의 불교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신 팀장은 '불교문화와 콘텐츠' 논문을 통해 "기독교, 천주교 등 타종교 홈페이지는 300여 개에 이르는데 불교 홈페이지는 겨우 38곳만 검색 된다"며 불교문화와 관련된 인터넷 콘텐츠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신 팀장은 불교계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자 수가 이처럼 적은 이유를 '인터넷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과 '단방향의 정보제공으로 인한 사용자와 운영자간의 괴리' 등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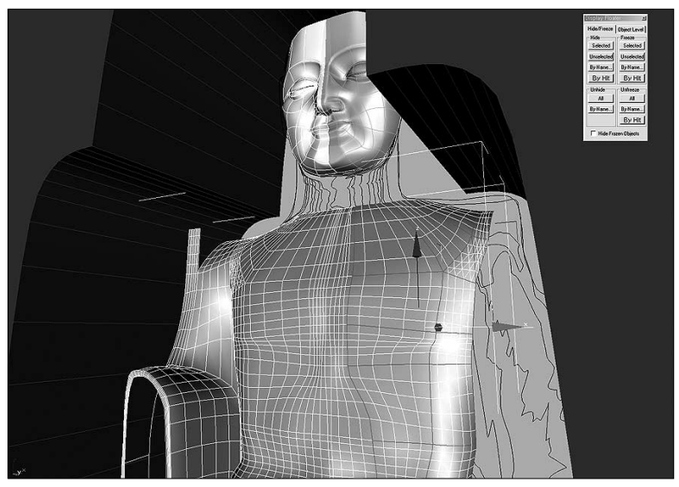
이어 신 팀장은 "지금부터라도 인터넷 불교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향후 불교계는 이미 개발된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주제가 명확하고 서비스 대상이 다양한, 고품질의 불교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 콘텐츠는 무료라는 인식이 전반적이어서 수익모델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콘텐츠를 기획 · 수집 · 가공할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 스님은 △캐릭터 제작, 관련 관광 상품 개발 등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문화산업으로 가공하여 상품화하는 전략 채택 방안 △종립학교 내에 성보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개설 △학제간의 협력과 사찰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통해 콘텐츠의 질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불교문화 콘텐츠 교육과정 관련해서 이용규 동국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문화지식과 컴퓨터 공학 기술, 문화 컨텐츠 개발 · 활용 기술 등의 네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 복원전문가 박진호 씨(숙명여대 강사)는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굴의 디지털 복원'논문을 통해 불교문화 콘텐츠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박 씨는 파괴된 바미안 석굴을 첨단 3D 기술을 통해 복원한 예를 설명하며 "21세기는 어떤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국가 위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술력으로 문화재를 보여주느냐가 국가의 위상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일본 미술사학자 구마모토 쇼신 교수의 실측도를 바탕으로 박진호 씨가 디지털 복원한 바미안 석불.

"국립중앙박물관 휴관 대책 필요" 한목소리

노웅래 · 우상호 의원 등 국감서 '대안' 제시도

지난 10월 17일 30여년의 경복궁 시대를 마감한 채 용산으로의 이전 준비를 위해 폐쇄된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정감사가 10월 19일 용산 새 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1년여의 휴관기간에 대한 우려와 새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웅래 의원(열린우리당)은 "1년간의 휴관이 국민의 문화 향유권 상실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서울시립박물관을 비롯한 경복궁 주변 박물관들을 연결하는 버스투어를 제안했다.

또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은 "인천국제공항에 82평 규모의 '작은 박물관'을 마련하고, 다른 문화기관으로 관람객을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휴관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중앙박물관의 제출자료를 근거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을 서울시민 60%가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홍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 박물관 준비와 관련 강혜숙 ·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전시 문화재 확보 방안을 추궁하며, 문화재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세계 주요 국가의 박물관 1관당 인구수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이 2만명, 일본이 3만7천명, 미국은 5만9천명, 프랑스가 4만5천명 등인데 반해, 한국은 13만5천명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박물관 향유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인 터 뷰

'불교용어 표준화' 주제 기조강연 하는 이평래 교수

"인터넷 시대 한글화 · 현대화가 목적"



"불교용어 표준화의 목표는 한글화 · 현대화입니다."

한국불교학회 회장으로서 불교용어 표준화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평래 충남대 교수. 10월 30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제41회 추계전국불교학술발표대회에서 불교용어표준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불교용어표준화 사업은 현재 불교용어 5,000개 표준안이 학술용어표준화 협의회에 제출돼 일단락된 상태다.

이 교수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한글세대가 늘어가는 상황 변화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불교용어 표준화는 그런 변화에 대한 대처 방식이며, 불교 현대화를 위한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문의 자유 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초 · 중 · 고 교과서는 표준용어를 따르겠지만 학자들의 연구논문에 강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음표기원칙과 관련, 이 교수는 "원음표기원칙은 인명 · 지명 · 서명 등 고유명사에 국한하고, 개념어의 경우 기존용어를 가급적 그대로 살리려 했다"며 "개념어 가운데 기존 번역어가 적절치 않을 경우에 한해 원음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있지만 불교용어를 표준화해야한다는 이 교수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 교수는 "불교를 한글화하고 현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불교용어표준화는 그 방편이다"고 강조했다.

"불교용어 50,000개쯤은 표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사전편찬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52>

정신과 물질의 경계

생각하는 것만으로 물체를 움직이거나 게임을 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팔이 없는 지체부자유자들도 휠체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생명체는 자신을 이루고 있는 장기들과 이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작은 세포, 그리고 세포내의 여러 유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은 결코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신호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고 있다. 생체 내에서의 유전자, 세포, 장기 등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은 화학 반응을 거친 전기적 신호이며, 모든 세포는 나름의 전기적 파장을 지니고 있고 인식과 반응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는 대표적인 전기 전달 세포다. 뇌는 이러한 전기적 신호를 뇌신경세포의 종합적 유형(pattern)으로 하여 저장하고, 평상시에도 뇌파라고 불리는 다양한 전기적 파장을 내고 있다.

신경정신학에서는 이미 뇌의 어느 특정 부위와 사람의 특정한 행동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관찰해 왔다. 이러한 유연관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할때 뇌파나 작은 눈동자의 움직임을 전기적으로 대상과 교류할 수 있는 정도로 증폭시키고 이 증폭된 전기적 신호를 무선으로 보내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생각으로 휠체어를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생체 내에서 뇌의 전기적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수족과 같은 원리로서 거리만 떨어져 있다 뿐이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체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정신작용은 불가에서 말하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五蘊)에서 식(識)에 해당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식(識)이라 불리는 우리의 주관적 정신작용과 대상으로서의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물체와의 경계선의 애매모호함을 다시 한 번 보게 된다. 생체 내에서 정신작용과 물질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하며 영향을 미치고 고정된 실체 없이 항상 흐름으로서만 나타나는 전기적 신호 및 파장이 이러한 관계의 매체(媒體)라는 점을 보여 줄 뿐이다.

현대과학은 비록 환원론이라는 방법론적인 한계는 있지만 결국 세상의 연기적 인과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이번의 연구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식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정신과 물질은 서로 영향주는 관계
'고정된 실체 없음' 속 연기 파악해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존한다는 점이다. 반야심경에서의 오온개공(五蘊皆空)이라는 말처럼 과학이 다루는 식(識)이란 오직 변화하는 관계로 나타날 뿐 실체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삼계유식(三界唯識)이란 표현처럼 정신과 물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 넘어 실체가 없기에 실체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연기적 관계성(依他起性)을 바탕으로, 이름하여 '한마음' 내지 '한물건'이라 불리는 그것을 향해 더욱 정진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보면서 불교는 과학이 다루는 말단의 식(識)작용만이 아니라 진정한 한마음을 다루고 있기에 불교가 과학적이라는 말보다는 과학이 불교적이라는 평소의 지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봄은 어쩔 수 없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그림 : 문병성

禪 카이로프락틱, 제3기 교육생 모집



1. 설립취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주며 베푸는 떳떳한 스님을 양성키 위해 **유능한 카이로프락터**로서의 정통교육에 힘쓰고자 설립함.

2. 교 과 목 : 1) 카이로프락틱(허리, 어깨, 골반, 경추등 척추교정술) 이론 및 실기
2) 해부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3) 경락, 스포츠 맛사지
※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강의함**

3. 교육기간 : 1) 2급과정 2개월(총 108시간)
2) 1급과정 1개월(총 54시간)

4. 지원자격 : 학력 경력 제한없음

5. 입학일시 : 2004년 11월 11일(목) 13:00

6. 원서교부 및 접수 : 본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內

인 사 말 씀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 2기 교육생을 수련시키면서, 많은 긍지와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 스님과 불자님들의 반응 또한 기대 이상이라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본 연수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성을 다해 一路 매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국난극복 소원성취 일광 스님의 합동영가천도

선망부모 유주무주 태아령, 조상령 합동영가천도

영가천도로서 유명한 一光 석일선 스님의 국난극복 성원성취 선망부모 유주 무주 태아령영가 합동 천도제를 지장도량 성거사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영가의 장애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불자님들이나 낙태 유산으로 남다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있는 불자님께서는 이번 합동 천도재에 꼭 동참을 하시어 업장소멸과 함께 여러가지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고 만사소원 성취하시어 성불의 인연과 불은(佛恩)의 가피가 각 가정마다 항상 충만하기를 비옵니다. 지난번 합동천도재때에 이미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소원성취와 함께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며 소원성취를 하신 불자님이 많았고 그동안 많은 사찰에서 영가천도를 해보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금번에 합동천도재와 더불어 많은 불자님들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합동 천도재 때에 생긴 영험담들.

- 합동천도재 전날 어떤 불자님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어디론가 가는 꿈을 꾸기도 하였으며 합동 천도재 전날 '나를 보내달라'는 조상님의 선몽을 받기도 하였다.
- 어떤 불자님은 천도재를 지내고 쌀이 가득 쌓여있는 방에서 되(쌀을 푸는 도구)로 쌀을 한없이 퍼부어 담는 꿈을 꾸기도 하였고, 어떤 불자님은 천도재를 지내고 꿈에서 아궁이에 장작더미를 한아름을 집어넣고 불을 지피고 그 불길이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사업성취) 천도재 이후로 양식장의 사업 수입이 두배로 늘어났으며,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히기도 하였고(전라도 광양시), 또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치매증세가 호전을 보였으며,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매일같이 잠만자고 횡설수설하던 딸이 천도재 이후로 그러한 증세가 완전히 없어졌다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반항만 하던 아이가 모범생으로 바뀌었고, 어떤불자님(천안시 봉명동)은 평소에 항상 어께가 아파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천도재 이후로는 아팠던 증세가 말끔히 사라졌고, 어떤 불자님은(경기도 의정부시) 병원에서도 못 고쳤던 허리 병이 천도재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으며 그외에도 여러 가지 믿기지 않는 일들이 눈에 띄도록 좋아졌고, 이룰수없을것만 같았던 일들이 성취가 되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불자님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 10월 1일 - (군산시) 그전부터 영가에 장애가 있는 줄을 알고 몇차례 천도재를 많은 사찰에서 지내보았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합동천도재를 지낸 그날 밤 어린아이가 신발을 신고 기어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꿈을 꾼 이후 정신이 맑아졌고 몸이 가벼워 졌다고 한다. (천안시) 천도재 이후 짖눌렸던 어깨의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합동천도재는 매월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에 봉행하오며, 당일 100% 천도시키오니 오시기전날 지장경독송이나 지장정근을 하시고 오시면 더욱 큰 가피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합동천도재 동참 보시금 : 한가족 10만원 동참 (농협 485047-52-060649 성거사)

※ 서울역 → 강남터미널 매월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 7시 30분에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성거사 전용 버스)

충남 천안시 목천면 송전리 282 **지장도량 성거사** ☎ 041)567-6820, 567-6822

전화접수로도 가능, 불참시에는 무통장에 입금하시고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이름을 알려주시면 동참을 못하시더라도 100% 천도 시켜 드립니다

일주문



소청심사위원장에 선출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10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조계종 소청심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효령대상' 사회봉사부문 수상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자승 스님은 10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회 효령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부문을 수상했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 창립법회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지각 스님(동원사 주지)은 10월 27일 오후 3시 광주 동원사에서 협의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대흥사 성보박물관장에

해남 대흥사 교무국장 한북 스님은 10월 18일 대흥사 조선불교연구원 사무처장 겸 대흥사 성보박물관장에 임명됐다.



국립경주박물관장에 임명

국립부여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과 유물관리부장 등을 역임한 김성구 씨가 10월 20일 국립경주박물관장에 새로 임명됐다.



경향신문 영업총괄부문장

前 경향신문 불자회 회장 강신철 씨(경향신문 불자회 고문)는 10월 22일자로 경향신문 영업총괄부문장(전무)으로 발령났다.

"대중불교결사대회 열어 재도약 할 것"

진흥원 홍승희 이사장, 불교디지털사전사업 등 계획 밝혀

"내년에 진흥원 창립 30년을 맞는 만큼 대중불교결사대회를 개최해 진흥원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홍승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사진)은 10월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월 8일 열린 이사회에서 창립멤버로서 책임감을 느껴 자청해 이사장을 맡았다"며 "1년 정도 진흥원의 확고한 기틀을 잡은 뒤 후임 이사장에게 넘겨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젊은 세대들과 호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 빈도가 높은 7만 단어를 선정해 영어, 일어, 중국어로 계재해 온라인 등을 통해 서비스할 불교디지털사전을 진행 중"이라는 홍 이사장은 "진흥원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장 · 단기 불교포교 및 불교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홍 이사장은 "양주에 건립을 추진했던 불교문화체험관 공사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지난해 진흥원이 발간한 한영불교성전을 전국의 호텔에 보급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해설서도 지속적으로 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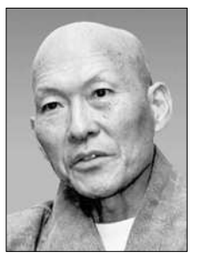
최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에서 진흥원 스님이사 파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과 관련해 홍 이사장은 "진흥원 창립당시 총무원장 스님이 이사직을 수행했었다. 이후 실효성이 없어 불교진흥원은 재가자 위주로 운영하고, 불교방송의 경우 스님이사가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정리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 체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분명히 했다.

신임 홍 이사장은 산업은행 총재, 재무부장관을 거쳐 1975년부터 대한불교진흥원 감사 및 이사, 1990년 불교방송 이사, 현재 성곡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가장 신뢰받는 종교지도자 "법정 스님"

국내 최고 경영자 · 네티즌 투표서… 김수환 추기경 2위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의 저자인 법정 스님(서울 길상사 · 사진)이 김수환 추기경을 제치고 국내 최고 경영자들과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종교인 리더 1위에 올랐다.

한국리더십센터가 국내 최고경영자(CEO) 포럼 회원인 각 부문 CEO와 기업 임직원 100명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리더'를 선정한 뒤 상위에 오른 이들을 대상으로 네티즌 1762명으로부터 설문을 실시한 결과 종교계에서는 법정 스님(34%)이 김수환 추기경(26%)을 제치고 신뢰받는 리더 1위로 뽑혔다. 3위는 옥한흠 목사(14%), 4위는 하용조 목사(7%), 5위는 김성수 주교(3%)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인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각 종교지도자들이 10월 18일 종교예술제 개막식에 앞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제8회 종교예술제 개막…미술 · 영화 · 음악 부문

제 8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가 미술제를 시작으로 개막됐다.

10월 18일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이장인 법장 스님을 비롯해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 이혜정 원불교 교정원장, 이철기 천도교 교령, 최근덕 성균관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미술제, 영화제, 음악제 등 3개 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8년만에 다시 회장에 추대

대광맹인불자회 이재달 회장



"대광맹인 불자회가 발족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대구경북지역의 맹인불자뿐 아니라 전국의 맹인불자들과 모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포교단체로서 선구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10월 22일 대광맹인불자회 8대 회장에 취임한 이재달 회장(46 · 사진)은 1991년 대광맹인불자회 창립회원이며, 91년부터 96년까지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모든 시각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느라 잠시 물러나 있다가 이제 다시 8대 회장에 추대됐다.

"14년 전 시각장애인들이 법회를 보기 위해 일반인들 틈에서 힘겹게 법당을 찾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대광맹인불자회를 설립하게 됐지요." 설립 당시 장애자 포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회장은 20년 전 25살 때 실명을 했다.

이 회장의 마음은 여느 장애인과는 사뭇 다르다. 갑자기 다가온 장애라는 운명을 오히려 모든 장애인을 위해 승화시켜나갔다.

이 회장은 "150여명의 맹인불자회원들이 현재 40여 평 남짓 공간을 법당과 맹인불자회관으로 함께 쓰다보니 매우 협소하고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내년에 좀 더 큰 법당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불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복지법인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배지선 기자

불교회관 건립에 매진

화순사암련 새회장 보화 스님



"화순지역 불자들의 숙원사업인 불교회관건립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4대 화순군 사암연합회장으로 추대된 화순 개천사 주지 보화 스님(사진)은 "불교교양대학과 유아포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도심 속의 열린 공간인 회관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한 "지난 여름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화순지역에 타종교 단체들의 자원봉사는 줄을 이었으나 불교계는 봉사단체가 없어 부끄러웠다"며 "중생과 함께 살아있는 불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사암련 산하에 불교봉사단체를 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남대 화순병원 등 현장에서 불교자비를 실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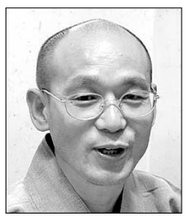
또 "사암련이 중심이 되어 지역 화합과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보화 스님은 송광사 현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5년 전 개천사 주지로 부임해 선원건립과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위빠사나 기초과정 개설

광주 마하연 선원 목우 스님



"수행도 습관입니다. 수행습관이 몸에 훈습되기까지에는 매일 한 시간씩 3~4개월의 기본 교육이 필요합니다."

최근 위빠사나 명상수행에 참선요가를 곁들인 '위빠사나 선수행 기초수행자' 과정을 개설한 광주 마하연선원 주지 목우 스님(사진)은 "위빠사나 수행은 재가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며 "선방에서 내려오는 참선요가를 곁들여 수행습관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위빠사나 명상수행은 부처님이 몸소 실천하고 가르친 불교 수행법의 원형이다"며 "삼독심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제어시켜 나가다보면 수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신체 운동만이 아닌 내부 에너지와 내분비선을 자극하고 활성화 시켜 감정과 마음까지 조화로움에 이르게 하는 참선요가를 함께하면 수행에 더욱 힘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마하연선원의 위빠사나 선수행 기초수행자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매주 2회(월, 수) 강의가 진행된다. (062)676-2840

이준엽 기자

김충현 은관 · 송춘희 씨 화관

문화예술 발전공로 문화훈장 받아



김충현 씨



송춘희 씨

문화관광부는 2004년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에 대한 '문화훈장' 수상자로 서예계의 원로 일중 김충현 씨(82)와 가수 송춘희 씨(68) 등을 선정했다.

김충현 씨는 10월 20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글 고체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문화훈장'을 서훈했다. 1921년 어릴 때부터 사서삼경을 읽으며 자연스레 서법을 익힌 그는 중동중학교 에 재직 중이던 38년 서단에 등장했다.

김충현 씨는 스님들과의 인연도 깊어 많은 사찰의 법당 현판과 주련에 글씨를 남겼다.

'노래하는 포교사' 송춘희 씨도 이날 화관문화훈장을 서훈했다.

송 씨는 서민의 애환을 서정적으로 표현하여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로 국민정서 함양 및 가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훈장을 받게 됐다.

송 씨는 1966년 발표한 '수덕사의 여승'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린 불자가수로, 76년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던 중 광우 스님(前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을 만나면서부터 군 위문공연, 재소자 교화,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90년 '백련장학회'를 설립해 소년소녀가장의 학비를 지원해 왔다.

송 씨는 "부처님 가피로 그동안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노래와 봉사로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행자부장관 '감사장' 받아

조계사 이세용 포교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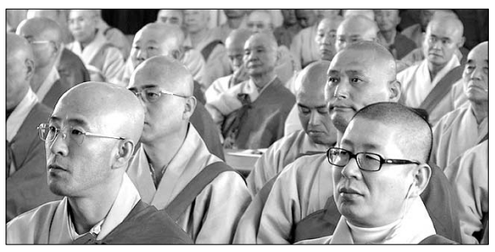


조계사 이세용 포교과장(사진)이 10월 21일 제5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허 장관은 감사장에서 "이세용 포교과장이 지역사회 발전 및 경찰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 같은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난 8월 범인 검거 도중 피살된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고 심재호 경위(32)와 이재현 경장(27)의 영정을 조계사에 모시고 영가천도를 위한 49재를 봉행하는 등 평소 지역민들의 안위와 편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김은경 기자

태고종 승려 합동연수교육



태고종은 전국 승려 합동연수교육을 10월 18~20일 이천 산림연수원에서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연수는 교육원장 수암 스님의 '태고종의 정체성과 나아갈 길', 이평래 교수의 '새로운 승가상' 등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효봉대종사 38주기 추모법회 봉행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영조)는 10월 15일 대웅전에서 '효봉대종사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효봉 스님 입적 38주기를 맞아 열린 이날 법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사부대중 500여명은 효봉 영각에서 탑돌이를 하며 효봉 스님의 유지를 기렸다.

부산 사하불교련 몽골 방문



부산사하불교연합회는 불교 교류를 위해 7박 8일 일정으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 10월 11일 귀국했다. 연합회 소속 사찰 주지 및 신도 3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나란 챠츠탈트 몽골 前 총리와 환담하고 극빈층 지원금 500달러를 전달했다.

광주 종교인들 무각사서 평화예술제



광주지역 6대 종교인들이 모인 광주종교인 평화회의(KCRP)는 10월 19일 광주 무각사 경내에서 '제5회 광주종교인 평화예술제'를 개최하고 화합한마당 대동제를 펼쳤다. 이날 부산대표 정각 스님이 부산천도교여성합창단과 함께 참석했다.

서울대 심재룡 교수 타계

10월 20일, '지눌연구' 등 남겨



불교철학연구에 매진해왔던 서울대 철학과 심재룡 교수(사진)가 10월 20일 지병으로 타계했다. 향년 6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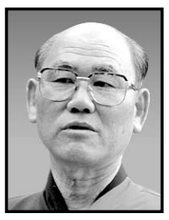
심 교수는 경향신문 기자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학교 동양학과 한국학 초빙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캠퍼스 동양학과 객원교수를 거쳐 1980년부터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고인은 특히 보조 지눌 스님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왔으며, 최근에는 <지눌연구>를 펴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한국 선불교의 철학적 기초> <중국불교철학사> <동양의 지혜와 선> <부처님이 올 수 없는 땅> 등의 저서를 남겼다.

유철주 기자

조불련 황병준 부위원장 입적

9월 8일, 평불협 10월 26일 49재 봉행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황병준 부위원장(사진)이 9월 8일 타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남북 불교 교류사업을 벌이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최근 북경 사무소를 통해 조불련에 문의한 결과 황 부위원장의 사망사실이 밝혀졌다.

황 부위원장은 박태화 위원장, 심상진 서기장과 함께 북한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북한 불교계의 대외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다.

황 부위원장은 2002년 3월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3 · 1절 남북 공동법회'에도 참석하는 등 남한 불교계에도 익숙한 인물이다. 평불협은 10월 26일 서울 통일법당에서 황병준 조불련 부위원장 49재를 봉행했다.

강유신 기자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性과 法의 간격

'순결을 소중히 하는 고귀한 성품을 지닌 여성과 천박하고 타락한 여성이 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여성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었다. 어처구니없는 편견이 아닐 수 없다. 여성들조차 여기에 익숙해져 이를 의심해 본적이 드물다. 아내에게는 순결을 강요하고, 밖에 나가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타락한 여성'을 필요악이란 이름으로 두어왔던 남성중심 사회가 만들어 낸 이중규범의 억지였다.

현대에 들어 페미니즘이 등장, 이 뿌리 깊은 편견을 바로잡으려 노력해 왔다. 도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은 이제 '그것이 편견'임을 사회에 널리 인식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전의 '윤락행위 방지법'이며 얼마 전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 금지법'도 한국 페미니즘의 성과 가운데 하나다.

성(性)이란 매매 대상이 아니다. 그것이 매매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수많은 사회악의 온상이 되어왔고 지금도 그렇다. 성매매금지법은 그런 의미에서 보다 깨끗한 사회를 위한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법리의 엄정함이나 법 시행을 다짐하는 당국의 각오도 새삼스럽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기만 하면 한국 사회는 오랜 퇴폐의 늪에서 빠져나와 그야말로 깨끗한 사회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질 만하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글쎄'라는 심정적 반응을 갖게 되는 것일까?

문제 자체가 어느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그럴 것이다. 스스로의 도덕적 결벽을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 잣대도 위험할 수 있다.

첫째, 이것은 인간의 욕망에 관한 문제다.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 스스로의 욕망에 자신이 고삐를 잡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고삐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우리는 이 드문 이들을 성자의 반열에 넣는다.

개인 사생활과 연관되기 마련인 고삐잡기 어려운 이 생리적 욕구를 엄정하게 법으로 집행하기가 그리 쉬울까? 아니, 이 같은 해결법이 오히려 문제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역사적 통찰로 보건데 모든 악을 너무 서둘러 박멸하면 더 큰 악이 생기더라는 경험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둘째, 이 문제의 당사자인 성매매를 하는 여성 문제다.

예부터 성매매 여성은 사회의 대책 없는 약자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들은 창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택한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그들은 이로써 생활비를 번다. 스스로 좋아 뛰어든 사람은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들이라 해서 '타락했다'는 괴로움이 없을까? 성매매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자살을 택한 성매매 여성들은 자책과 함께 막연함을 감당키 어려웠을 것이다. 보호되어야 할 '사회적 약자'의 자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경제문제가 쉽게 풀린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성매매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데 성매매를 택하는 여성이 나올 리 없다.

서구 현대사회의 고삐 풀린 성의 자유분방함도 성매매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을 것이다.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엄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일임을 우리는 선진국의 예에서 배울 수 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이명박 서울시장이 수도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봉헌서를 낭독하여 규탄을 받더니, 이제 또 정장식 포항시장이 포항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자는 모임의 창립을 주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참으로 공직자들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과 공직자가 그 공적인 지위에 있는 한 종교에 대하여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를 어기는 공직자는 단순히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공직자의 기본 윤리와 강령을 어겼다는 점에서 엄한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문제들이 종교 사이의 갈등과 오해의 깊은 골을 만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혹 그렇게 신앙심 깊은 공직자가 있어 자신의 종교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야말로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가 믿는 특정종교를 공격하려는 방향으로 다른 종교에서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점입가경' 공직자 종교편향

이는 모든 종교들이 함께 나서서 비판하고 단죄해야 할 일이다. 자신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 공직자의 기본 윤리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런 몰지각한 공직자가 종교의 평화로운 공존을 해치는 사태에 대하여 다함께 우려하고 그 재발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불교계가 그동안 어떤 특정 종교의 공격적인 포교로 인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좀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종교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큰 움직임을 주도적으로 일으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과잉 신앙의 표출 정도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종교들에 이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원종교시대의 평화로운 종교 공존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마당으로 끌어내야 한다. 종교 공존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그러한 움직임을 위한 이념을 제공할 때 종교적 관용성을 지닌 불교의 우월성이 드러날 수 있으며,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종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에 엄하게 대응하되, 더 큰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큰 움직임을 일으킬 때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성수대교 참사 10주기

복이 화를 낳는다는 것은 편안하고 느긋할 때 사치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게으름이 극도에 달하기 때문에 재앙이 생긴다는 것이다. 〈선림보훈〉

1994년 10월 21일 온 국민을 충격과 혼란 속에 빠뜨렸던 '성수대교 참사'가 10주기를 맞았다.

느닷없는 다리 붕괴사고로 3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던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희생자 출신고교의 학생들은 21일 참사현장에서 추모행사를 열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의 가슴 속에 남겨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아, 이들은 추모행사 내내 굵은 눈물과 가슴속의 한을 하염없이 쏟아냈다.

이날 유가족들이 추모사를 통해 밝힌 바람은 한 가지. 바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 마다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고질병' 중의 하나가 바로 '인재(人災)'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어난 대구지하철 참사나 최근에 일어난 관광버스 추락사고 등도 역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 할 수 있다.

<중아함경>에서는 "한량없는 착한 법을 얻는 것은 방일(放逸)하지 않음을 근본으로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해를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예방과 대책은 인간의 몫이다. 이제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투자에 힘쓰고 일반시민들의 안전의식도 개선돼야 할 때다. 우리의 잘못과 방일로 무고한 사람들이 숨지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수령(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한국불교 제자리 찾자

조계종과 태고종이 스님들의 자격기준은 물론 승가고시를 강화해 스님다운 스님을 만들겠다고 한다. 요즘처럼 스님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마당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님은 인천의 사표라고 했다. 따라서 스님들은 재가불자와 일반인들에게 마땅히 존경과 공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님으로서의 수행력과 인격을 갖추어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됐을때 불자들은 스님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에 반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불자들을 현혹하는 이상한 각종 법회가 불교계 신문의 광고에 버젓이 실리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초종파'니 '마정수기'니 하는 정체불명의 종단과 법회가 비일비재해 불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또 사찰에서 오계나 보살계 수계법회를 연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동참비를 요구하는 일도 많다. 어찌 불자가 계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단 말인가.

언제부터인가 올바른 불교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스님은 스님답고 불자는 불자다울때 한국불교는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 한사람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니라 모든 스님과 불자, 즉 한국불교 전체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도성호(충남 논산시 취암동)

한국 불교의 정체성

서양에서 '불교'라고 하면 아직도 일본불교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몇 년 전까지도 선풍적인 유행을 일으켰던 '젠 스타일(zen style)'에서조차 다분히 일본색이 느껴진다. 사실 이것은 문화 전반적 문제다. '동양'하면 일본, 또는 중국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탓이 크다.

이러한 점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직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에 종속적이라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일본불교와의 뚜렷한 차이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불교의 문화 예술이 세계인들에게 주목받고 해외에서 인정받는다는 <현대불교>의 소식은 반갑기 그지없다. 세계인들이 느끼게 될 '한국불교 문화'의 특수성은 포교 기능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론적으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논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은 문화에서 더 나아가 학술적으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에 소중하게 느껴진다.

부디 이번 학술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 속에서 한국불교의 위치가 재정립되기를 바란다. '중국도 일본도 아닌, 그것과는 조금 다른 문화'가 아니라 '한국불교'의 전형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서현숙(경남 김해시 대방동)

불교환경의제21 실천 서둘러야

불교환경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교환경의제21이 시행되지도 못한 채 사장될 위기라고 하니 가슴이 아프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은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각 교구본사들이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는 무척이나 아쉬웠다.

부처님은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또 뭇 생명들을 소중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에 반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온 것이 바로 불교환경의제21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불교환경의제21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사찰과 재가불자들이 불교환경의제21 실천을 준비하자. 그래서 교구본사도 동참할 수 있게 하고 관련 단체와 지자체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

조승수(서울 도봉구 방학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노인요양원 건립 스님들이 나섰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사진 오른쪽 끝)을 비롯한 사중스님들이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통도사 스님 12명 선서화 246점 모아 전시
창작 시연 등 호응…수익금 전액 기금으로

노령화시대를 넘어선지 오래, 노인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다. 발 앞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해진 노인복지문제 해결에 통도사 대중스님 12명이 발 벗고 나선 특별한 선서화전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10월 4일 부산을 출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울산에서, 통도사 개산대재 기간인 21일, 22일에는 통도사 경내에서 열린 통도사자비원 무료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기금 마련 선서화전. 이 선서화전에는 조계종 종정이었던 월하 스님을 비롯, 통도사 산내 암자 에 사는 수안 · 성파 · 원명 · 석정 · 청운 · 동원 · 원산 · 상우 · 중선 · 관우 · 무주 스님 등 12분의 수행 정신이 깃든 선서화로 노인복지에 뜻을 보탰다.

스님들이 희사한 선서화는 무려 246점. 전시 공간이 좁아 그림을 모두 전시할 수 없었을 정도였으며 부채에 그림이나 글씨는 쓴 소품에서 맑은 선의 세계를 담은 대작까지 맑은 선의 세계를 담은 작품들이 대거 선보였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설립을 이끌었던 월하 스님의 글씨는 스님의 수행력을 흠모하는 많은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석정 스님의 선서화와 수안 스님의 뛰어난 색감이 돋보이는 그림에 곁들여진 선시도 전시회의 품격을 한껏 높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산내 암자에서 수행 정진하던 여러 스님들의 선기(禪氣)어린 작품들이 일반에 첫 공개되는 귀한 자리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전시회는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의 복지사업을 위해 통도사 산중 스님들이 뜻을 모았다는 것과 더불어 스님들이 노인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전시회 기간동안 직접 전시회장을 찾아 불자들의 만남을 통해 관심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 통도사자비원 원장을 지낸 수안 스님은 매일 전시회장을 찾아 한지 부채에 직접 그림을 그려주는 창작 시연의 시간을 가져 전시회장을 찾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중선 스님은 울산 지역에서 법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 전액은 11월에 개원될 통도사 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운영에 사용된다. 지하 1층 지상 4층 680평 규모로 최첨단의 재활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개원될 통도사 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 대덕 스님들의 마음까지 보태져 부처님의 자비이념을 펼 이곳에서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으며 오갈 곳이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여생을 보내게 된다. 앞으로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시는 위한 봉사와 지속적인 후원이 모두의 과제로 남겨졌다. (055)383-3999

글 · 사진=천미희 기자

태고종 행자들, 단체로 '생명나눔'

합동득도수계산림 참가자
헌혈 46명·골수기증 서약 25명
장기기증 서약 53명 동참

태고종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한 행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 헌혈과 골수 기증, 장기기증 서약 등을 실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태고종 총무원 공동주관으로 10월 21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단체헌혈 및 골수기증, 장기기증 캠페인에 태고종 행자 123명이 동참했다. 이날 행자들은 헌혈 45명, 골수기증 25명, 시신 및 장기기증 53명이 서약했다. 이어 열린 생명나눔 서약식에서 행자들은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예비 성직자들의 서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곳에 써달라"며 45장의 헌혈증서를 생명나눔본부 이혜숙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태고종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한 행자들이 10월21일 순천 선암사에서 단체헌혈을 하고 있다.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행자들이 이번 합동득도수계산림교육기간을 출가의 의지를 다지고 성직자로서 평생을 사회와 종단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서원의 장으로 승화시켜나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발의하고 요청해 이를 추진하게 됐다"며 "행자들의 이번 결의는 출가수행자로서 사회와 종단을 이끌고 제도하는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요, 신심의 발로에서 나온 거룩한 불사"라고 말했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단청문양전시회 연 김윤오 씨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 전달

본사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8만4천 창작단청문양전시회'를 연 단청장 김윤오씨가 10월 21일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 30만원을 나눔의 손잡기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김씨는 "첫 전시회가 원만히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찾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현대불교에서 진행중인 소년소녀가장돕기 운동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싶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사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경인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개최한 '김윤오 8만4천 창작단청문양전시회'에는 연인원 2천여명이 작품을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김원우 기자


단청장 김윤오씨(사진 왼쪽)가 현대불교 서정만이사에게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나눔의 성금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신도일동 – 60만6천380원

단청장 김윤오 – 30만원

총 누적금액: 26,399,330원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을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 1구좌 1만원입니다.
-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리무진 무료관광 봉사 **이윤규** 씨

독일서 광부로 일해 번돈 리무진 구입

독거노인·장애인·백혈병 어린이들 태워 효도·위로관광

지장보살 마음으로 남은 생 봉사로 …

지난 20일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노인분들과 함께 경복궁으로 단풍놀이를 나온 이윤규 씨가 한 낮의 햇살 만큼이나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차 보다 나누는 행복이 더 커요"

꿈인가 생시인가 손을 꼬집어 보는 할머니. "꽃마차 타고 시집갔는데, 죽기 전에 또 꽃마차 탄다"며 펑펑 우는 할머니. "그랑께 시방 내가 대통령이나 타는 차를 탔승께 인자부턴 내가 대통령이여"라고 목에 힘주는 할아버지. "당신은 지금 산에 묻혀 있는데 나만 이렇게 좋은 차를 타서 미안해요"라며 연신 눈물을 훔치며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할머니.

배기량 5천 7백cc, 차 길이 7m 52cm의 푸루트우드 캐딜락 리무진과 샤워시설, 침실, 노래방, 씽크대, 비디오 시설이 갖춰진 캠핑카를 탄 어르신들의 반응이다. 익산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리무진과 캠핑카로 무료 관광을 시켜 주는 이윤규(55 · 전북 익산)씨는 '노인분들이 차를 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 고 말한다. 그는 2001년 5월부터 이 차로 한 달에 5~6번씩 마이산, 내장산, 채석강 등으로 노인들을 모시고 나가 관광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때로는 케익과 과일을 준비해 생신잔치를 열어 드리기도 한단다. 지금까지 이렇게 효도관광을 다녀온 노인은 줄잡아 2천여명.

그가 이렇듯 '리무진으로 효도관광을 시켜드려야겠다' 고 생각한 것은 독일의 한 장례식장에서다. "독일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리무진이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용 차량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았죠. 효도 한번 못 받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와 자식을 위해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 생각에 캐딜락을 구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죽어서 좋은 차 타본들 무엇 하겠어요. 살아 생전에 태워 드려야죠"라고 조언한 부인 이옥금(48)씨의 말에 결심이 서자 그는 1999년 27년 간의 굴곡 많은 독일생활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2001년 5월 캐딜락을 샀다.

이렇듯 초호화 차를 소유했지만 이윤규 씨가 사는 집은 정작 23평짜리 임대 아파트다. 부인과 단둘이 사는 이 집은 20년 된 낡은 소파와 이웃들이 버린 것을 주워와 다시 사용하는 커튼 등 재활용품 전시장이다.

전남 강진의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그의 어릴 적 소원은 '쌀밥 한번 실컷 먹어 보는 것' 이었다. 1970년대 독일로 파송된 광부와 간호사가 보내 온 달러가 국민경제에 커다란 버팀목이었던 그 시절, 그 또한 1972년 군복무를 마치고 23살의 나이로 가족부양을 위해 독일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독일의 탄광촌 루루아게 발쭘광산 지하 4km의 막장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낮에는 석탄을 캐는 광부로 밤에는 타일 붙이는 미장공으로 하루에 1시간 새우잠을 자며 일했다. 광산에서 숙식이 제공돼 독일에서 번 돈은 모두 고국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그였지만 고국에서 함께 왔던 동료들로부터 '돈벌레' 라는 비난의 화살도 많이 받았다. 7년간 밤낮으로 탄광일 하랴 타일공 하랴 건강이 배겨나질 못했다.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정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벌이는 시원찮아도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힘든 독일 생활에서 가장 의지가 됐던 것은 부처님이었습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매일 아침마다 <지장보살본원경>을 독송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특히 84세인 어머니 조복순 씨는 지금도 새벽 4시면 일어나 부처님 전에 청정수를 올려놓고 두 시간동안 기도를 올린다.

"어머니의 지극한 기도 정성이 있었기에 사고가 잦았던 독일 탄광에서도 무사히 일을 마친 것 같다" 는 이씨는 "지장보살님의 마음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병 앓는 어린이들에게 계속 무료 관광을 시켜드리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을 토로한다.

초호화 외제차를 갖고 있지만 그는 평소엔 리무진과 캠핑카를 타고 다니는 법이 없다. 70세 이상의 독거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무료 관광을 시켜드리거나 공공기관의 공적업무에만 차를 사용한다. "캐딜락을 몰고 나가면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졸부 보듯 따갑습니다. 돈푼 꽤나 있는 사람이 폼 잡으려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오해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하질 않습니다."고 말하는 이윤규 씨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다. "독일에 있는 동안 동 · 서독이 통일된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부러워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이산가족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태우고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윤규 씨의 '불 · 효(佛 · 孝)' 실은 사랑의 캐딜락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을 모시고 그의 아름다운 마음만큼이나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화사한 단풍 숲길을 달린다.

글=노병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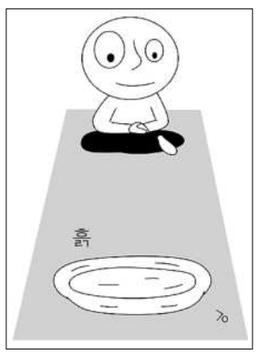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18>

까시나 수행

불교의 수행 체계는 크게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분류 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밝혔습니다. 이 중 사마타 수행은 정학을 말하는 것으로 번뇌와 망상을 그치게 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맑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므로 지(止)라 하고 위빠사나 수행은 혜학을 말하는 것으로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낳게 하므로 관(觀)이라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마타 수행은 수행의 주제가 오로지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일에만 두고 있는 위빠사나와는 달리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점도 역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기질이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마타 수행을 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경전에 언급된 다양한 방법의 사마타 수행들이 우리 한국불교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 지면에 경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행법을 소개하는 가운데 까시나 수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 불교 속에 그와 같은 수행법이 있었느냐는 질문과 함께 좀 자세한 내용을 알려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미 밝혔듯 까시나란 편만(遍滿), 즉 주변에 가득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 주변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수행도구를 가리킵니다. 까시나를 이렇게 편만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유는 이것들은 우리들 주변에 언제나 가득하여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까시나의 종류를 보면 더욱 이해가 됩니다. 논서에서는 열 가지 종류의 까시나 수행을 말하고 있는데 흙을 가지고 하는 까시나, 물을 가지고 하는 까시나를 비롯해 불, 바람,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 빛, 한정된 허공 등을 가지고 하는 까시나가 그것입니다. 이들 수행법들은 한마디로 상념을 지속적으로 떠올려 그 영상을 확대시키고 명료하게 하여 삼매를 얻고 그 삼매로써 평온과 기쁨을 얻는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같은 수행이 나오게 된 연유는 과거 부처님 당시에 덕 높은 수행자들이 자연적인 물질의 형상을 보고서 마음 가운데 삼매가 일어 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땅의 까

주변에 가득한 물질 통해 삼매에 들어

시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많지만, 우선 수행자는 아주 깨끗하고 곱고 빛깔 좋은 흙을 구한 다음 그 흙을 잘 반죽해서 직경 약 두 뼘 정도의 원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잘 말린 원반을 눈에 정확히 보이도록 놓고 그 앞아 수행에 들어갑니다.

앞의 도구를 직시 하고 때로는 눈을 뜨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감기도 하면서 집중적으로 마음에 까시나의 모습을 떠 올립니다. 마치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잃지 않고 떠 올리는 것처럼 마음에 상념을 짓는데 이를 잘 되게 하기 위해 '땅 땅 땅' 하고 불러도 됩니다. 수행자가 이렇게 하여 마음이 집중 되면 앞의 까시나의 모습은 삼매로 연결되어 좀더 높은 선정의 상태로 발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행자는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고 희열과 만족을 얻어 지혜를 이루는 토대를 갖춥니다. ■유마선원장

동화사 담선대법회 —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 '공안참구와 공안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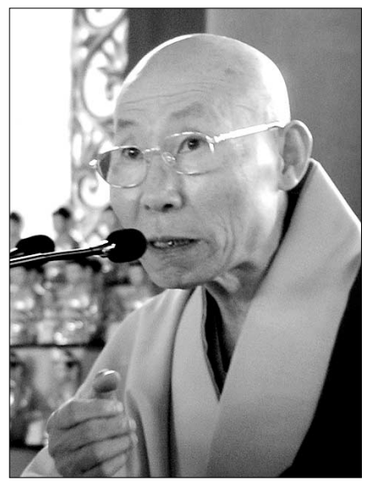
의심없는 화두는 죽은 화두

"의심 없는 화두는 죽은 화두다."

무여 스님(봉화 축서사 선원장)은 조주 스님의 '무(無)자' 화두도, 운문 스님의 '마른 똥 막대기(乾屎橛)' 공안도 의심을 일으키는 '의문거리'라고 말했다. 때문에 의심은 화두의 길잡이고, 생명이 된다고 강조했다.

10월 16일 대구 동화사 통일 대불전에서 '간화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7차 담선법회. 논주로 나선 무여 스님은 간화선의 수행방법인 '공안참구와 공안공부'에 대해 논강했다. 스님은 이 자리에서 "의심을 일으키는 이유는 깨치기 위해서다. 나와 화두, 세계가 온통 의심덩어리가 돼야만, 궁극에는 그 화두의 의심을 타파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수년전부터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참선지도를 해오고 있는 무여 스님은 철저한 체험에서 우러난 화두공부법의 'ㄱㄴㄷ'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 요지.


논강을 하고 있는 무여 스님.

발심이 화두고 화두가 발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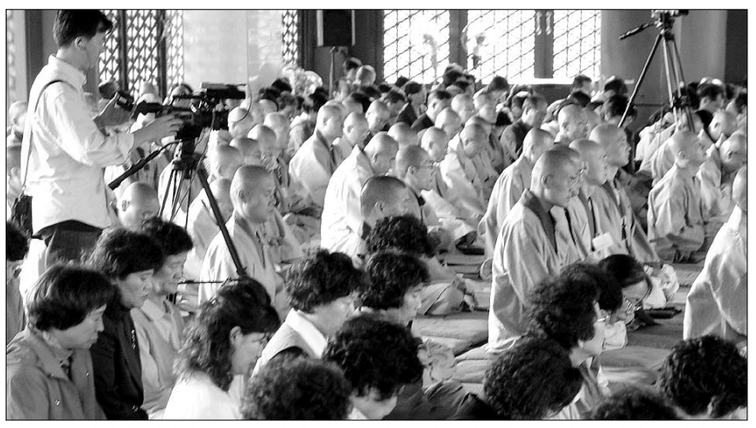
공안 타파는 참선 수행자의 뜻과 정성에 달렸다. 마음공부에 쩔쩔매봐야 화두공부가 깊어진다는 말이다. 무여 스님은 "발심이 화두고 화두가 발심"이라고 말했다. '화두가 잘 안 된다. 참선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발심이 안 됐기 때문이다. 진정한 발심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님은 의심을 간절하게 일으켜야 화두공부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며칠 굶은 사람이 밥을 생각하듯,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 칠순 노파가 전쟁터에 나간 외아들을 생각하듯 의심을 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래야만 화두참구가 절실해진다. 자나 깨나 늘 이마에 간절할 '절(切)' 자를 써 붙이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고집스럽게 화두를 붙들어야 한다는 말도 이어졌다. 쉼 없이 간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쓰러질 때도, 또 쓰러지면서도 화두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예 목숨을 떼 놓고 하라'는 옛 선사들의 어록까지 인용했다.

스님은 또 "동정 일여한 상태에서 가장 일하기 쉽다"며 화두참구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지하게 공부를 하면서 얼마든지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사로 나선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도 논평에서 "개인 발심을 돈독히 하고 용맹심을 전제로 해야 참선자의 정진자세가 투철해 진다"고 무여 스님의 의견에 공감했다.


대구 동화사에서 '간화선의 수행방법'을 주제로 열린 7차 담선법회 논강 현장. 사진=배지선 기자

신심(信心)은 '신심(信深)'이 돼야

도 닦는 수행자는 '깊은 믿음'이 필수다. 신심이 부처의 눈을 뜨게 하고, 불성(佛性)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스님은 '나도 불성이 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화두공부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논강했다.

스님은 특히 '깊은 믿음'이 신앙(信仰)의 원동력이 된다고 밝혔다. 깊은 믿음은 믿음의 뿌리(信根)를 튼튼히 하고, 믿음의 힘(信力)을 키우는 기초가 된다는 의미다. 결국 신앙은 이런 신근과 신력이 든든해져야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스님은 이러한 믿음을 나무의 뿌리에 비유했다. 나무의 뿌리가 깊고 튼튼할수록 흔들림 없이 크게 자랄 수 있듯이 신앙의 힘 역시 크고 깊어야 그 열매가 크다는 것이다.

화두참구와 조바심은 '반비례'

'어서 빨리 공부가 되게 해야지, 누가 공부를 잘하게 해줄 선지식을 얻나' 등의 '속효심(速效心)'을 내면 낼수록 공부는 더 더디게 된다. 조바심은 또렷또렷하고 분명하게 있던 공부도 오히려 희미하게 만든다는 것. 마음을 담담하게 먹어야 화두가 분명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번뇌 망상만 일어나 산란해지기 십상이다.

무여 스님은 무엇보다도 화두공부 끝에 맛보는 고요하고 편안한 경계를 즐기는 것을 경계했다. 안주는 수행자의 독약이 된다는 의미다. 또 화두가 깊어져 느끼게 될 법열(法悅)도 수행자에게는 금기다. 그 이상의 정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으니 항상 마음자리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무여 스님은 일체의 사량과 분별을 일으키는 알음알이를 철저히 배격할 것을 당부했다. 때문에 화두공부는 마음에 들러붙은 알음알이를 끊임없이 떼어 내는데 애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쿠바출신 세계적 무용가 육조사를 찾은 까닭은?

"선을 통해 '마음이 열린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잔잔한 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입니다."

쿠바 출신의 세계적 창작무용가 로사리오 까르데나스(52 · 단사 꼼비나또리아 단장). 제7회 서울세계무용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그가 10월 16일 서울 가회동 육조사로 현응 스님을 찾아 선(禪)공부하는


현응 스님


로사리오 까르데나스

시간을 가졌다.

그의 공연작품 '오우로보로스(Ouroboros: 자신의 꼬리를 무는 뱀을 가리키는 표현)'을 통해 '자신을 크게 한번 죽여라'는 선사상을 이미 재해석했던 까르데나스 단장은 "집착에 얽매여 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다"며 그 이유를 스님에게 물었다.

"고요해지려는 마음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집착하는 동안에도 나는 진리와 같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자기와 함께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비로소 집착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거미줄에 더 감기는 이치와 같죠."

1시간여 계속된 문답이 끝나자 까르데나스 단장은 "쿠바로 돌아가더라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수행하겠다"고 하자, 스님은 "순간순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선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 노병철 기자

세상에 이런 일이....

천일선원에서는 놀랍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하다가 굿이나 천도재등 좋다는 것은 다해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 효과를 못본 환자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양보살(원장)님을 만나 氣치료를 받고 나서 새삶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양보살님을 만나면 병의원인, 빙의상태, 전생업의 실마리를 풀어서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다. 병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담을 해주고 있다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린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Tel. 054)638-2224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주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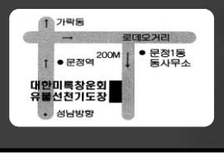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1천년간 썩지 않는 신비의 연밥! 연자육
(조금만 드셔도 공복감이 없습니다) (껍질 벗긴 식용 연씨앗)

수행하시는 스님, 수험생에게 집중력 강화 !!

수행하시는 스님, 수험생에게 집중력 강화
신장, 비뇨기, 집중력 향상 및 혈액순환을 도와 줍니다.
다이어트를 하시고자 하는 분 에게도 좋습니다



● 취급식품
· 연자육 속살
· 유기농 빵 (백련잎빵 / 연꽃씨앗빵)
· 백련국수 / 백련칼국수
· 백련차 / 백련잎차

(주)좋은씨앗 연자육은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껍질을 벗겨 연자육 속살만을 태양에 자연건조 진공포장 하였습니다.

좋은 씨앗

전국지사문의: 080-534-4700 / 제품문의: 042-528-4415

성 명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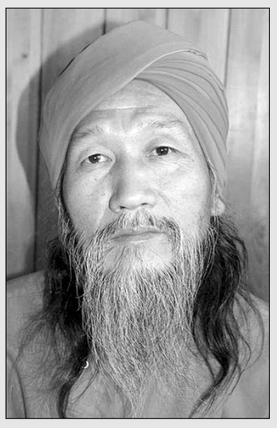
무속인이 사암의 간판을 달고 불상을 모시고 굿당을 하고 있다. 무속인은 신명과 영신이 있다. 사암에서는 스님들께서 수계하고 불상을 모시고 수행정진 하는 것이다. 무속인이 사암을 사칭하여 사월초파일에 등을 달고 하는 것은 불법이며 탈법이다. 이점 인식하시고 무속인들께서 부처모신 불상을 치우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신교 측에서는 불교를 미신이라고 타파한다. 불상을 모시고 신명으로 굿을 하니까 개신교 측에서 미신이라고 한다. 무속인은 본연의 행사를 하시고 부처님은 절에서 스님들께서 모셔야 한다.

불교발전연구협의회 일동은 현재 미래의 문제점을 풀어가야 한다.

대표
상산 혜광 법광 혜만 법상 혜우 법행 우애
011-9836-9561(상산)

心-身-순수의식 조율 대우주와 합일

한국인 최초 출가자가 말하는 아난다 마르가 명상회 '수행법과 공동체 생활'



다다 칫아트만(한국명 고철기)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치타 주립대와 매릴랜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자본주의의 종말〉, 〈공동체 경제를 위하여〉 등의 저서를 내기도 한 그는 성공회대·한서대강사를 역임했으며, 녹색대학 명상 프로그램 등 여러 영성 프로그램 지도에도 폭넓게 참여해 왔다. 1991년 출가한 이래 현재 인도네시아에 명상센터를 열어 현지인을 상대로 아난다 마르가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오렌지색 터번과 의상으로 온 몸을 칭칭 감은 수행자들을 본 적이 있는가. 전 세계 170여 개국의 명상센터에서 수행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구호활동 현장에서 이타행을 펼치며 수행과 봉사가 둘이 아님(不二)을 강조한 그들. 바로 아난다 마르가(Ananda Marga: 행복에 이르는 길) 명상회 수행자들이다.

깨달음의 실현·사회봉사를 모토로 1955년 인도의 아난다 무르띠에 의해 창시된 이들 단체는 내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전주, 부산, 서산에 이어 서울에 센터를 새롭게 마련하고 한국 내 지부 활성화에 돛을 달았다. 10월 18일 고국을 찾은 한국인 최초 출가수행자 '다다 칫아트만(한국명 고철기)'을 만나 아난다 마르가 명상회의 수행법과 공동체 생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아난다 마르가가 국내에는 생소한데.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 이상의 회원, 1500명 정도의 출가수행자가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인 회원은 50여명에 불과하고 한국인 출가수행자 역시 다섯명 뿐이다. 70년대 중반 이탈리아 수행자가 아난다 마르가 명상을 보급한 이래 전주 센터와 서울대 요가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긴 했지만, 대중적인 기반은 취약한 편이다. 출가수행자의 경우 출가 이후에 연고없는 나라에서 수행한다는 원칙이 있어, 현재 국내에는 세 명의 외국인 출가수행자가 한국에 머무르며 수행법을 전수하고 있다.

▲'탄트라 요가'를 전한다고 들었다.

-탄트라는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우주적인 생명력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아난다 마르가 명상회에서는 인간을 육체, 마음, 순수의식(진여)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고, 이 같은 세 가지 부분의 조율을 통해 대우주에 합일하며 지복(至福)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가지가 각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또한 차별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인도에서 구호활동을 펴고 있는 아난다마르가 수행자들. 사진제공=아난다마르가 명상회

출가후 무연고 국가서 수행원칙 오신채 뺀 채식·단식·요가·호흡 생활화

전세계 1800여개 기관 통해 교육 보급·환경 수호·구호 활동

▲육체와 마음을 조율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먼저 육체를 조화롭게 가꾸기 위해 이들은 오신채까지 걷어낸 채식식단을 지키고 한 달에 두번씩 단식을 강행한다. 또한 호르몬 분비 등 내분비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요가 아사나(동작) 수련을 생활화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호흡법(쁘라나야마)도 지도받는다. 이를 통해 몸속 에너지가 이동하는 통로(슈숨나)와 에너지 센터(차크라)를 정화할 수 있다.

마음을 제어하기 위한 엄격한 도덕률도 요구된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필요한 계율인 쟈마(5가지), 개인 내면의 계율인 니야마(5가지) 등 다양한 계율의 준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도덕적인 기초 없이는 수행의 진일보 역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욕망이나 감정 및 외적 대상에 의한 지배로부터의 해방과 자율훈련(쁘라타하라), 집중을 통한 명상(다라나) 등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마음을 초월하는 자리인 '순수의식'은 다루기가 쉽지 않을텐데.

-진여, 불성으로 표현되는 순수의식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과정을 지도한다. 육체적 에너지를 정신적 에너지로, 정신적 에너지를 순수의식으로 모으다보면 몸속에서 잠자고 있는 신성이 궁극의 실체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자리는 고통이나 기쁨 등의 모든 감정을 초월한 자리이며, 가장 높은 삼매의 경지다.

▲개념에 치우친 듯하다. 그 같은 명상법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본적인 명상법은 누구나 무료로 배울 수 있지만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아무에게나 전수하지 않는다. 성불하겠다는 의지는 물론이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 등이 일정 수준에 이른 이들만이 지도 받을 자격이 있다. 키르탄(영적인 노래와 춤)을 통한 내면의 정화, 기본적인 만트라 명상 이후에 이어지는 깊은 단계의 명상법은 비밀스럽게 전수되는 것이다.

가르침의 방식도 일정하지 않다. 수행의 원을 세운 사람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살핀 후에 근기에 맞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지도해준다. 호르몬의 균형, 호흡 방식, 삼스카라(업) 등을 두루 고려해 최적의 명상법을 제시하는 것이 구루(스승)의 역할이다.

▲수행과 별도로 대사회적인 봉사에도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번과 의복의 오렌지색은 '헌신'을 의미한다. 우리는 '깨달음의 실현' 만큼이나 '대사회적 봉사'를 주목한다. 인간 사회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는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보장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영성에 기반을 둔 삶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아난다 마르가 명상회의 디디(여자 수행자)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고아원 놀이방 등을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다(남자 수행자)의 경우 환경문제와 식량문제 등의 사회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엔의 NGO로 등록된 우리 단체는 전 세계 1800여 개 기관을 통한 교육보급을 비롯해 각종 구호활동과 환경 수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031)348-1998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禪과 21세기

선의 세계 63

돈오(頓悟)-6

돈오, 모든 중생을 부처로 섬긴다는 뜻 본각사상 "이미 해탈은 이뤄져 있다"

어떤 스님과 돈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스님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생각에, 돈오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섬긴다는 뜻이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되었다. 선종에서 말하는 돈오가 본각사상을 바탕으로 성립한다는 설명은 앞에서 누누이 하였다. 본각이란 모든 중생이 이미 깨쳐있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자면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얘기이다.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걸 안다면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섬기며 살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서 널리 알려진 얘기로는 조선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와 무학 대사가 나누었다는 대화가 있다. 이성계가 무학 대사에게 '나는 스님이 돼지로 보입니다.'라고 했더니 무학 대사는 '내게는 당신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그 얘기 말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지만 부처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처이다.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임을 아는 이에게는 모두가 부처일 뿐이다. 하지만 그걸 모르면 중생과 부처가 구별되고, 부처란 뭔가 색다르고 별나고 멀리 있는 존재라고만 생각된다. 그래서 가까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중생으로만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님인 줄 아는 이에게는 모두가 부처로 보인다는 말은 '본각의 이치를 깨달은 이는 본각의 이치로써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동어반복이다.

달리 말하자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으로 산다'는 식이다. 부처님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부처님이라야 부처님으로 살 수 있다'고 답변한다면 실제로는 아무런 답변이 안 된 셈이다.

그러나 선(禪)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다. 본각 사상에 충실하자면 '부처님이 되면 부처님으로 살 수 있다'고 해도 틀린다. 부처는 되고 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경전에 보면 해탈, 열반은 불가득(不可得), 즉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대목이 흔히 나온다.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얻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왜냐? 본각 사상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해탈, 열반, 성불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내가 이렇게 또는 저렇게 수행하면 부처가 되겠거니 하고 기대하는 것은 해탈, 열반, 부처라는 상(相)에 사로잡혀서 일으키는 망상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합장하고 절하며 "성불합시다"라는 인사를 나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성불하여 있다고 하는 본각 사상을 배웠으면서도,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각의 이치에 입각해서 보자면 망상일 뿐이지만, 또 한편으로 현실에 입각해서 보자면 정직함이다. 이는 단순하게 논리로만 보자면 분명히 모순이지만, 불교신행의 역동성이 우러나오는 가장 깊은 샘이 바로 거기에 있다. 불교신행의 목표는 간단하게 말해서 부처님으로서 사는 데 있다. 그런데 선사들은 우리 모두 이미 부처님이라고 가르친다.

그 가르침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또한 나는 지금 부처님으로 살고 있지 못함을 정직하게 자인한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모순으로 닥쳐온다. 사람은 모순을 모순인 채로 내버려두고는 살지 못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없애려는 치열한 노력의 원동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제3회 초종파

구족계 · 득도계 · 보살승계 · 보살계 수계 안내

敎는 부처님 말씀이고 禪은 부처님의 마음이며 戒는 부처님의 행(行)입니다. 옛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언설(言設)로만 믿는 불교를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매년 수계대법회를 봉행해 왔습니다.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산 금수사에서는 종파를 초월하여 제3회 수계대법회를 봉행하오니 숙세인연(宿世因緣)과 선근(善根)이 깊은 불제자들은 무루 동참하시어 불연(佛緣)을 맺으시고 출가의 소원을 모두 이루시기 바라나이다.

■수계산림 : 불기 2548(서기2004)년 11월 25일 ~ 28일 (음 10월 14일~17일)
• 행 자 교 육 입 재 : 11월 25일 오전 10시
• 사미사미니 수계식 회향 : 11월 27일 오전 8시
• 구족계 수계자 교육입재 : 11월 27일 오전 10시
• 구족계 수계자 교육회향 : 11월 28일 오전 7시
• 보 살 계 수 계 식 : 11월 28일 오전 10시 ~ 오후5시

■수계내용 : 비구(니)계, 사미(니)계, 보살승계, 보살계

■수계신청서류(수계비)
1)비구(니)계 : 수계신청서, 도첩 및 승적사본, 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증명사진 3매(수계비 300,000원)
2)사미(니)계 : 수계신청서, 행자등록증사본, 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증명사진 3매(수계비 200,000원)
3)보 살 승 계 : 수계신청서, 사원등록증 및 임명장 사본(법사자격증 사본), 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3매 (수계비 250,000원)
4)보살계 : 수계신청서(수계비 30,000원)

■증계아사리 석주 율사(조계종 칠보사 조실)
증계아사리 보성 율사(조계종 송광사 방장)
전계아사리 수진 율사(태고종 용화사 주지)
갈마아사리 덕산 대화상(원효종 종정)
교수아사리 고산 대화상(원효종 총무원장)
존증아사리 구산 대화상(금수사 주지), 도전 대화상(성주암 주지)
유 나 청일(사무총장)

☞ 수계 신청자는 2004년 11월 20일까지 금수사에 도착하셔야합니다.
☞ 원효종 총무원 (051)466-0977(각교구 종무원 종무원장)
☞ 원효종 종도는 종단 지정 색상(황색) 가사, 장삼 및 발우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사 및 장삼 문의 : (051)466-0977

불기 2548(서기 2004)년 10월 일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김 고 산

아토피 · 비염 · 천식

무료 특별강좌

유아기의 경우 안면과 팔 다리의 바깥쪽에 습진을 보이며, 성인의 경우 팔다리가 접히는 부위에 피부가 거칠어지는 태선화된 습진을 보입니다.
가려움증을 쉽게 느끼며,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땀 흡수나 통풍이 잘되지 않는 모직, 합성섬유, 실크 등의 직물로 된 내복은 환자에게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고, 털로 만든 인형이나 털 목도리 등도 쉽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온도변화가 가려움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갑자기 더운 방에 들어가거나, 목욕을 하게 되면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운동본부 | 마고한의원

강 사
• UP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 동의학 박사 박성법
• 한의사 홍성인 원장님
• 한의사 오달석 원장님

일 시
• 2004년 11월 30일 오후 2시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선불교 대법당

문 의 02)587-0001

※ 참석하실 분은 전화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17) 12연기(緣起), 혹은 곤경의 연쇄 고리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 원숭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말합니다. '나만의 세계!' 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는 물질적 환경이나 지리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각자의 고유한 '자아'가 의존(住)하고 있는 심리적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삼계유심(三界唯心)! 우리 각자의 자아는 서로 다른 유전적 자질에, 서로 다른 가정적 환경에, 오랜 사회적 훈련에 의해 고유하게 만들어진 '의미체'입니다. 이 구성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각자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바로 이 심리적 자아의 세계를 통해 살고 있습니다. 자아는 외계와 접촉하고, 그것을 판단하며,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선택하는 도구입니다. 자아는 또한 그 기획과 활동을 통해 다시 자신의 세계를 수정하고 재구성해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성격' 혹은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각자의 세계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과연 몇 개의 세계가 있나

그런데, 이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굳이 따지자면, 이 세계는 실재하면서 실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또 그 안에서 울고 웃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없으니',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통해 얽은 가건물일 뿐, 객관적 물질성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양면성과 가변성이 불교의 불가해한 역설과 휘황한 변증을 가능하게 한 진원지입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 수만큼 있겠지요. 불교는 대체로 여섯 개가 있다고 합니다. 육도(六途)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살며, 어떤 사람은 아귀처럼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아수라처럼 싸우고, 어떤 사람은 예외적으로 홀쩍 신선으로 축복받은 삶을 누립니다. 이들은 극단적 케이스겠지요. 보통사람들은 때로 기쁘고 때로 슬프며, 때로 즐겁고 때로 비참하며, 그래도 사람 노릇을 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세(人間世)'의 장삼이사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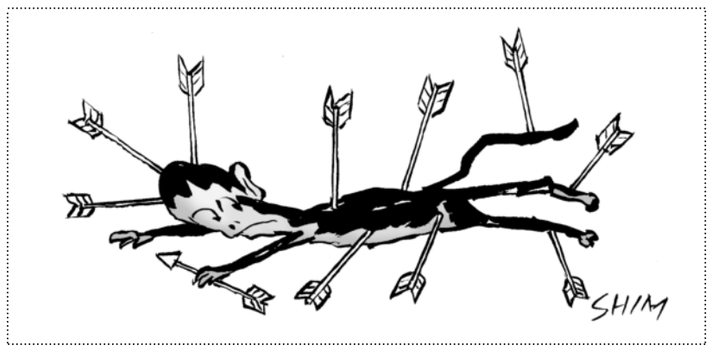
불교는 이 '욕망의 세계(欲界)'를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합니다. 짐승이라면 사람 노릇하라고 권하고, 사람이라면 신선이 되라고 권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교는 신선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다른 행복의 철학과는 좀 다릅니다. 신선들은 육체의 제약이 적고 장수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인간세보다 나아 보이나, 그 축복은 공덕이 다하면 언젠가는 다시 하급의 윤회로 떨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예 이 윤회의 바퀴를 영원히 떠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금강경>도 설파하고 있습니다. 불도(佛道)를 통해 '삶의 물길이 바뀌면(豫流)' 처음에는 '한번만 더 윤회했다가(一來)' '더 이상 윤회하지 않다가(不來)' 마침내 '이 사바의 곤경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아라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과정 또한 함부로 가보지도 않고 용훼(容喙)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은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정 변혁해야만 아라한의 과실을 기약할 수 있을까를 짚어보는 것입니다.

12연기는 욕망에서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욕망의 세계에서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2연기법(緣起法)'입니다. 이 열두 개의 정식항을 두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핵심적인 취지는 분명합니다. 5세기 남방불교의 집대성자로, <청정도론(淸淨道論)>을 쓴 붓다고사는 이 12개를 세 묶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앞의 것은 전생에, 가운데 것은 현생에, 뒤의 것은 내생에 배정했던 것입니다.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방편으로 취하기로 합니다. 전생은 알 수 없고, 내생은 오지 않았으니, 현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번째 명색(名色): 세계의 출발은 개인의 몸(色)과 마음(名)입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이 신체와 정신이 없다면 세계는 순전히 무(無)일 뿐이겠습니다. 각 개인은 외적 내적 대상과의 통로인 5번째 육입(六入), 즉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또한 일종의 감각기관입니다.

"세계는 육입(六入)을 통해 일어난다. 그 육입을 통해 세계가 알려진다. 세계는 육입 위에 세워지며, 육입 속에서 사라진다." 아난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눈, 코, 귀, 혀, 몸, 그리고 의식이라는 육입을 통해서 세계를 의식하고, 세계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붓다가 말하는 세계이다."

감각 기관은 대상을 향해 '불타오릅니다.' 우루벨라의 산상수훈을 기억하십시오. 감각기관은 그 대상이 없이는 공허하고 굶주리기 때문에 늘 그 짝을 찾아 날뜁니다. 흡사 '불이 장작을 먹어치우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나무들 사이를 폴짝대며 뛰어다니듯이.'

6번째 촉(觸): 이것은 감각기관이 구체적으로 대상과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대상이 감각기관과 '어우러져' '사랑을 나눕니다.' 유명한 티베트판 윤회도에는 이 항목이 남녀간의 사랑 행위로 그려져 있습니다.

수백 개의 화살이 박힌 상처 입은 짐승

7번째 수(受): 대상이 감각기관을 자극하면, '느낌'이 오겠지요, 옛 경전에는, "나무토막을 비비면 열이 발생하듯이 쾌감을 주는 접촉으로 인하여 쾌감이 온다"고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티베트판 윤회도에서는 이것이 '눈에 화살이 박힌 형국'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섬뜩하지요. 그것은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그만큼 강렬하고 동시에 위험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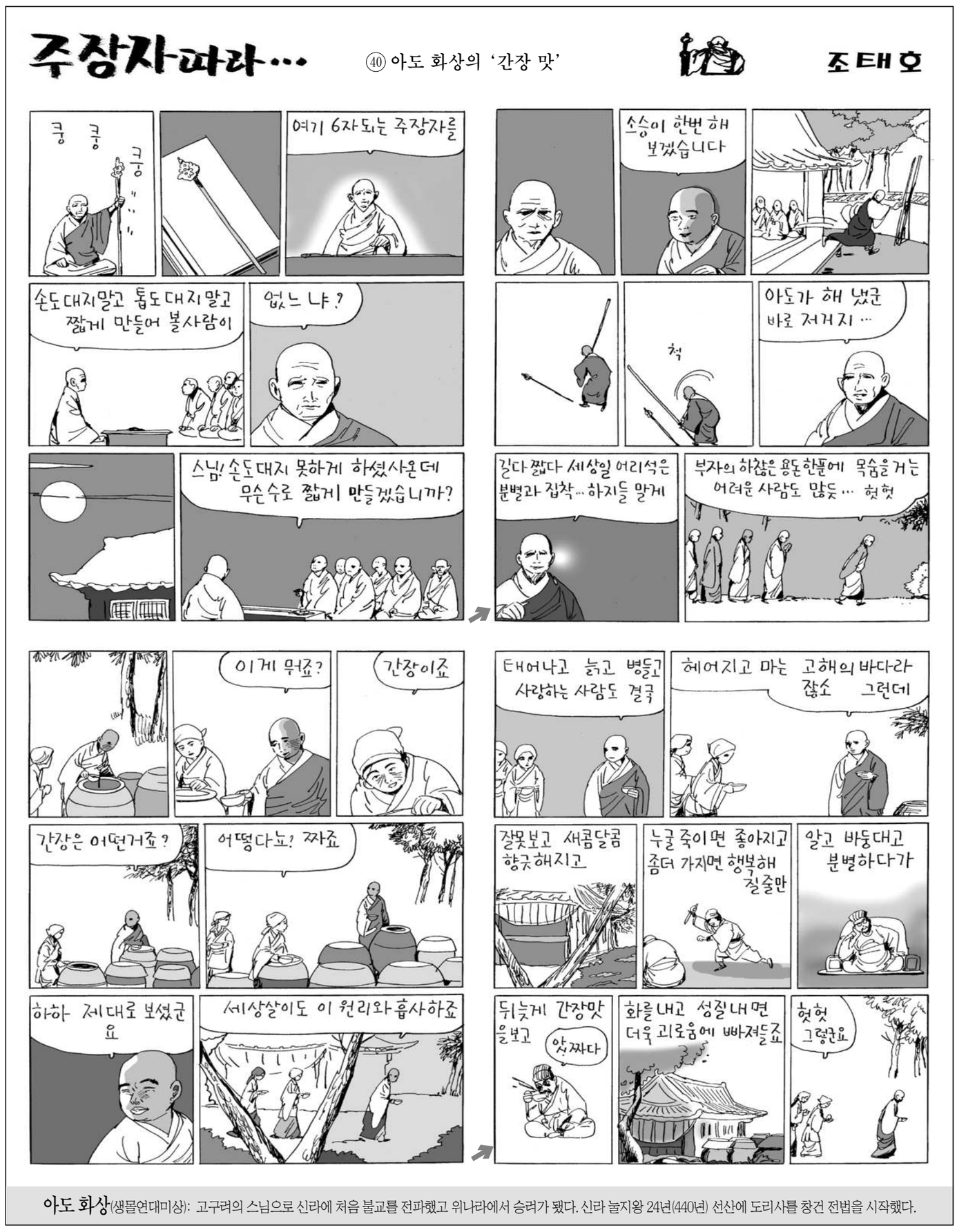
그래서 붓다는 말합니다. "인간은 수백 개의 화살이 꽂힌 상처 입은 짐승이다!" 여기 '화살들'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향해 시시각각 무수히 날아와 꽂히는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번째 애(愛): 이때 쾌감을 주는 자극은 계속시키려 하고, 불쾌감을 주는 자극은 단절시키려 합니다. 인간은 감각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한 다음, 적극적으로 수용 혹은 배제하려 합니다. 이 과정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진행됩니다. 가끔 의식되기도 합니다. 이 적극적 반응을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9번째 취(取): 욕망은 지속되면서 집착으로 굳어지고, 특정한 패턴과 지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각자는 이 지형도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고, 인식의 영역을 결정해 나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상적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그 반응'의 구조입니다. 이 사이클은 반복 강화되어 한 인간의 퍼스낼리티를 형성하고, 그의 세계를 결정합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아도 화상(생몰연대미상): 고구려의 스님으로 신라에 처음 불교를 전파했고 위나라에서 승려가 됐다. 신라 눌지왕 24년(440년) 선산에 도리사를 창건 전법을 시작했다.

네티즌 교리문답

'부처와 조사를 죽여라'는 뜻은?

문 선종에서 '살불살조'라는 말을 자주 보는데, 단순히 '부처와 조사를 죽여라'는 말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유래와 숨은 뜻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여러 불자들의 오해가 풀리겠군요(ID 활불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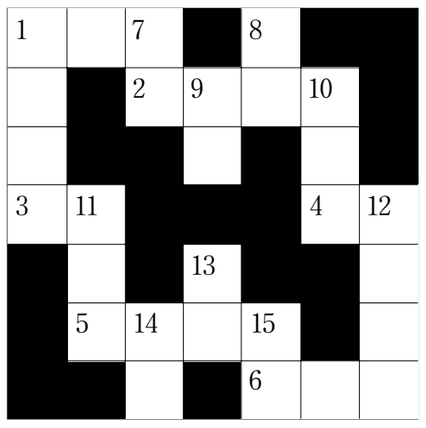
답1 : 불교라는 종교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거의 누구나 초발심이 일어나는데 그 감탄과 경탄이 눈물겹도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인가 회상하면 부처님의 감로 같은 법설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하면 아예 수행자의 길로 인생의 진로를 바꿔 버리는 일이 허다하고 사정상 그러지 못한 사람은 늘 수행자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부처님의 믿음과 신뢰가 절대적이며 부처님의 진리에 감히 도전의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 진리의 길이 오히려 부처님의 경전과 율장과 논장에 구속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처님의 말씀에 감동돼 부처님과 조사와 다른 스승들에게 다시 구속된다면 결국 그 대상이 다를지라도 부처님과 조사들에게 또 다시 구속돼버리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그 목적지의 입구에서 또 다른 족쇄에 속박을 당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셨고, 참된 스승들은 이런 오류를 벗어나기 위하여 살불살조(殺佛殺祖)를 말씀하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시자)

답2 : 부처님과 조사의 법문뿐만 아니라 의지하던 모든 견해가 모조리 분쇄되고 철저하게 궁지에 몰려 밝혀주던 빛들이 사라지고 암흑이 몰려온 곳에서 새롭게 눈이 열립니다. 이것은 분별할 수 없는 인식의 도구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화두가 자기 본래의 속성을 실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화선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살불살조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일체의 모든 개념과 선입견, 고정관념, 권위의식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방하착)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가로 1. 조개껍데기 2. 입을 예쁘게 살짝 벌리고 소리 없이 밝고 보드랍게 자꾸 웃는 모양 3. 명령을 내림 4. 무위자연설을 근간으로 하는 중국의 다신적 종교 5.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 6.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된 여섯 명의 충신.

정답은 26면에

세로 1. 법당이나 승방 등의 신발 벗는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말,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살피라는 의미 7.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8.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함 9. 어처구니가 없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툭 터져 나옴 10. 북한 주석궁 침투를 목적으로 결성된 특수부대가 지옥훈련 받던 섬, 동명의 영화가 있음 11.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하여 염라대왕과 시왕(十王)을 모신 전각 12. 세속오계중 하나, '벗을 사귈 때는 믿음으로써 사귐' 13. 왕의 부인 14. 항상됨이 없음 15. 아무 일 없이 편안함.

※창간 10주년 기념 상식퍼즐(495호) 당첨자

김만호(경북 안동시 운흥동), 이민정(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이창환(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김수진(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김은숙(부산시 동래구 명장1동), 이영수(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승은(대전시 유성구 둔곡동), 김후례(경남 통영시 용남면), 조차순(전북 남원시 인월면), 박주형(미국 오클라호마)

*당첨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거대문명을 구현했던 티베트인들의 얼굴에는 문화적 자신감이 나타나 있다.



'대지의 배꼽' 티베트



티벳의 문화
롤프 A. 슈타인 지음
안성두 옮김
무우수 | 1만5천원

고대 신화에서 현대까지 역사 종교 예술 짚어가며 부정적 편견과 오해 풀고 티베트 고유 문화 특징 설명

티베트인은 자신들의 땅을 '대지의 배꼽'이라 부른다. 지구가 아기라면, 티베트는 그 아기와 어머니인 우주를 연결하는 탯줄이 되는 셈이다. 태초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배꼽. 티베트인들은 그 어머니의 어머니를 만나는 천년의 여정을 불교와 함께 해왔다.

티베트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 춥고 거칠어 살기 힘든 땅, 3백년 넘게 중국의 지배를 받는 속국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머리를 스칠 것이다.

하지만 이건 분명 티베트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다. 티베트는 1천년의 역사를 지녔고, 아시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국이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로 불교를 품었다. 자부심도 대단했다. 그리고 겸손했다. 그 '대지의 배꼽'에 서서 인도불교, 이슬람문화, 중국 문명을 수용했기에 그렇다.

티베트학의 세계적 권위자 롤프 A. 슈타인은 <티벳의 문화>에서 티베트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하나 풀어헤쳤다. 고대 신화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문화, 종교, 관습, 문학, 예술 등 티베트 전반에 걸쳐 시공을 넘나들며, 오해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역사, 어떻게 높은 문화적 품격을 갖추게 됐는지, 심원한 종교적 이상의 나라였고, 지금도 그런 나라임을 구석구석에서 꼼꼼히 일러준다.

우선 저자는 "티베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이 나라가 일반적인 인류의 역사를 위해 기여한 특별한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책을 쓴 의도를 소개한다. 토지와 주민, 역사, 사회, 종교와 관습 등 4개의 장으로 나눠 티베트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짚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저자의 펜 끝은 철저히 티베트 고유의 문화 찾기에 맞춰졌다. 인도불교의 부산물 내지 아류로서의 티베트 문화읽기 문제점을 지적한다. 티베트 문화의 특징은 '응축 내지 집중'에 있다고 강조한다. 15세기 전통종교 뵌 교와 오랜 갈등을 풀고, '법왕(法王)제도'를 확립한 것, '라마교'라는 티베트만의 불교를 발전시킨 것 등을 통해 티베트 문화의 특징을 설명한다.

오해 풀기 작업은 티베트인이 오로지 목축에만 종사하고 있는 유목민으로만 보는 관념에서 시작한다. 티베트 경제는 동아시아의 초기문명에 의해 발전된 곡물 농업과 축산으로부터 파생돼 나왔다는 것을 저자는 주목한다. 약간의 변형은 단지 고산지 환경의 관점이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티베트 고유문화 찾기 여정은 기존의 잘못된 인식 바꾸기로 이어진다. '티베트는 인육을 먹는 자들의 땅, 몽매하고 야만적인 곳'이라 묘사된 한역 경전의 비판이 이를 대변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최초의 티베트인은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농경에 적합한 산림으로 덮인 산악지대에 정착했다고 설명한다. 처음 경작지는 티베트 남동부 지역 야룽계곡의 소탕에 있었고, 가장 비옥한 지방인 야룽은 왕가의 발상지였다는 점. 그리고 산림의 원숭이와 바위의 여자정령이 티베트 최초의 조상이었다는 그들의 전설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저자의 티베트 문화 읽기는 티베트가 엄연한 독립국가였다는 점을 중국과의 역사적 사실 관계 속에서 추적한다. 10세기 말 일종의 교단국가로 발전됐던 티베트 사회의 특징과 함께 18세기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속국으로 될 때까지 역사를 파헤친다. 또 근대에 들어 티베트인들이 중국과 영국의 조약으로 두 동강난 조국을 경험했고, 급기야 중국에 강제 편입된 아픔까지도 저자의 문화읽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키워드가 불교로 확장된다. 불교 관념이 티베트 역사를 훑는데 길라잡이가 된다는 것에 저자는 중점을 둔다.

불교가 도입되면서 티베트는 문명화의 옷을 입게 된다. 정방형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고, 문자도 만들었다. 불교는 티베트의 뼈와 살이 돼온 것을 강조한다. 이후 불교는 영토가 남으로는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까지, 서북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동북으로는 장안 근처까지 뻗어서 당시 세계 최대 제국 당나라를 위협할 정도의 국가로서 당당하게 군림하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저자는 이어 티베트인의 문화적 자신감을 부각시킨다. 서기 792~794년 삼예사에서 벌인 중국과 교리적 논쟁에서 승리한 것을 티베트가 완전한 독립 국가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논쟁에서 중국측 마하연은 '돈오'와 단선적인 사고로 선업을 적용하려는 무의미성을 주장했지만, 선업은 성불을 위한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수'의 논리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때문에 이 책은 그간 국내에서 간간이 소개된 티베트 여행 기록과 그곳에서의 수행 체험을 담은 명상서 등과 처음부터 성격을 달리한다. 저자의 학문적 역량, 탄탄한 연구 등이 바탕이 돼 티베트의 속살을 제대로 보여주기에 그렇다. 여기에 60여 장의 흑백사진이 파노라마처럼 티베트의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를 고스란히 전해준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티베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민을 묻어나게 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말해요, 찬드라 글 이란주 | 삶이 보이는 창 | 9천원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해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리를 잡고, 나아가 정보화가 사회 곳곳에서 그 위력을 떨치는 상황은 우리들에게 가히 혁명적인 변화에 허덕이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루하루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돈이 되거나,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그 변화의 흐름에 도태되거나 아니면 돈이 되지 않는 변화에는 무관심하다. 우리 주위에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 역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로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몇몇 사람들과 단체들이 이방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

<말해요, 찬드라>를 쓴 이란주 씨는 1995년부터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활동가로 일해오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상담하고, 같이 지내면서 쓴 이 책에서 그는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삶을 맑은

외국인노동자를 보는 맑은 시선

이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의 삶 조명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하려 한다. 그리고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대한민국의 편견, 부정의, 무책임 등에 따끔한 비판과 반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서글픈 이름 '찬드라'를 다시 기억하게 된다. 찬드라는 네팔 여성으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행려병자로 처리돼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선미아'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채 정신병원에 6년 4개월이나 있어야 했다. 찬드라의 잃어버린 이름과 시간은 우리들의 무관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찬드라의 곁에서 지켜본 이란주 씨는 조용히 얘기하고 있다.

'찬드라'처럼 어처구니없는 현실 뿐아니라 이 책에서는 다양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망 등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결혼가정, 무료진료소 풍경, 한국어 말하기 대회의 뒷이야기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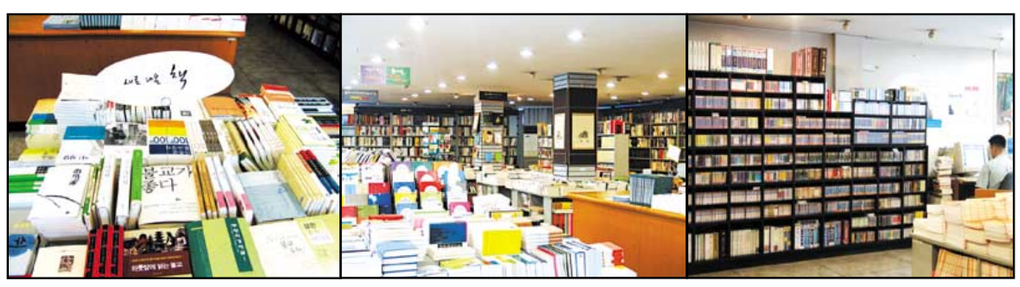
자신의 얘기가 아닌 남의 모습을 글로 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거나,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씨는 흥분도, 엄숙하지도 않은 다정한 시선과 문체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그만큼 이 씨는 이주노동자와 가까이 있으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다.

<말해요, 찬드라>는 한국에서 잃어버린 이주노동자의 소리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내주기를 바라는 간절하면서도 소박한 바람을 모았다. 제3자가 아닌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이 씨는 지금 새롭게 아시아의 인권과 문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의 바람처럼 온 세상에서 자신의 할 말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정진우** (작은손길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소장)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과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Hot!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과 만나십시오

1. 신비의 호흡요법
스와미라마 지음, 길연 옮김
신국판 / 240쪽/값 10,000원
관음출판사

2. 한국의 마애불
이태호, 이경화 글, 사진 유남해 외
신국 양장판 / 496쪽 / 값 45,000원
다른세상

3. 멍텅구리 부처님
불영자광(임붕준) 지음
신국판 / 338쪽 / 값 9,500원
도피안사

4. 365일 부처님 말씀
윤창화 엮음
4×6판 / 287쪽 / 값 7,500원
동충동

5. 금강경 강의
남회근 지음, 신원봉 옮김
신국판 양장 / 604면 / 값 20,000원
문예출판사

6. 김교수가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김용덕 엮음 / 전 2권
각권 값 8,000원
도서출판 부름이

7. 바로보인 환단고기1,2,3
문재현 역저 / 신국판
값 1권12,000원 2권15,000원, 3권15,000원
바로보인

8. 그 곳에 스님이 있었네
임효림 지음
신국판 / 296쪽 / 값 10,000원
바보새

9. 도애 팔상록
오고산, 이종익, 심재열 편역
신국양장판 / 541쪽 / 값 15,000원
보련각

10.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혜능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 / 1067쪽 / 값 30,000원
부다가야

11. 법화경 上 · 下
무비 옮김, 박상근 펴냄 / 신국판
상 282쪽 · 하 320쪽 / 값 각권 8,000원
불광출판부

12. 국내 최초 큰스님들의 일대기 집대성
한국 현대 고승 대전집
삼각형프레스

13. 위빠싸나 수행의 길
거해 스님 엮음
신국판 / 343쪽 / 값 12,000원
샘이깊은물

14.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지음
양장판 / 값 9,800원
샘터

15. 마음의 눈
문윤정 지음
신국판 / 296쪽 / 값 10,000원
솔과학

16. 선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여시아문

17.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방경일 글, 김장열 그림
국배판 변형 / 257쪽 / 값 10,000원
도서출판 솔바람

18.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말씀
신국판 / 컬러 도판 20컷 / 269면 / 9,000원
시공사

19.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지음
신국판 / 382쪽 / 값 11,000원
이름다운 인연

20. 노스님의 젊음
지묵스님
신국판 / 336쪽 / 값 10,000원
우리출판사

21.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김영재 지음
신국변형판 / 384쪽 / 값 20,000원
윤주사

22. 수도자에게 주는 글 해탈의 길
성철스님 지음
신국판 / 248쪽 / 값8,500원
도서출판 장경각

23. 선사들이 띄우는 깨달음의 편지
정념 엮음
신국판 / 292쪽/ 값10,000원
장 승

24.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슈리 담마난다 지음, 홍종욱 옮김
신국판 / 240쪽 / 값 8,900원
지혜의 나무

25. <21세기 자연건강시리즈> 지 압
폴 런드버그 저 / 이의영 역
46배판 변형 / 192쪽 / 값15,000원
하남출판사

26. 명상수행의 바다
전재성 역
신국판 / 635쪽 /값3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7. 행복하게 사는법 아름답게 죽는법
정재 지음
신국판 / 240쪽 / 값8,000원
행복한세상

28. 아! 청담
김광식 지음 / 신국판
352쪽 / 값 12,000원
화 남

29.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1, 2
정민외 3인 지음 / 국배판 변형
282쪽 / 각권 값 15,000원
휴머니스트

30. 천문학자가 풀어 낸 금강경의 비밀
이시우 지음 / 신국판
348쪽 / 값 13,000원
도피안사

31. 바가반과 함께 한 나날
데바라자 무달라이아르 기록, 대성 옮김
신국판 / 384쪽 /값 13,000원
탐구사

32. 선어삼백칙(禪語三百則)
차차석 역애
신국판 / 420쪽 / 값 10,000원
여시아문

★ 본 연합광고 서적은 책방 여시아문에서 11월 30일 까지 특설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할 예정 입니다 ★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법공양 상담합니다>

악명 떨친 데바닷다 악인일까 선인일까

"데바닷다는 여러 번에 거쳐 부처를 해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매우 괴로워했다"<파승사> "데바닷다는 항상 석존의 칭찬을 받았다"<대방등무상경>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불교 역사에서 데바닷다(제바달다)는 절대적이라 할 만큼 '악인'의 전형으로 그려져 왔다. 거의 모든 역사가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는 점에서 데바닷다 역시 '역사적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일까?

<데바닷다, 그는 정말 악인이었는가>는 제목에서 보여주듯 그동안의 일반적인 평가를 넘어, 대·소승 경전이 전하는 데바닷다에 대한 기록에 담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자 제자인 데바닷다는 승단분열을 책동하고 아자타삿투 왕자를 부추겨 죄를 범하게 하고 부처님을 해치려 하는 등 극악한 행동으로 불교 교단사에서 가장 지탄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사리불에 의해 "훌륭한 집안에서 출가했고 총명하고 큰 신통력을 가졌으며 용모가 단정하다"고 찬탄받는 등 양면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도를 여행한 법현 스님의 <불국기>나 당나라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 등을 보면 부처님 사후 1000여 년이 지날 때 까지 데바닷다를 모시는 교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악인의 전형이 된 데바닷다가 어떻게 교단을 이룰 수 있었을까? 대만 불광대 종교학과 란지푸(藍吉富) 교수는 책에서 데바닷다의 선행(善行)을 기록한 <미란타왕문경>과 그의 악행이 부처님의 공덕을 드러내주기 위한 방편이라 주장하는 <대방등무상경>의 기록을 근거로 데바닷다의 참 모습에 한 발 더 다가가려 한다.

하지만 책은 단순히 불교경전들의 '혼란되고 통일되지 않은' 평가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지은이는 데바닷다의 예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전의 기록이 모순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문헌의 조각을 신앙의 근거로 삼는 신앙방식은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곧 불자들에게 깊은 통찰과 올바른 판단,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경전마다 서로 다른 각도의 견해와 전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현대인들의 불교신앙 혹은 연구에 더 넓은 사고공간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데바닷다, 그는 정말 악인이었는가
란지푸 지음 | 원필성 옮김
운주사 | 8천원

활을 쏘는 순간 '나'는 없다



활쏘기의 선
오이겐 헤리겔 지음 | 정창호 옮김 | 삼우반 | 9천원

서양인이 日서 체험한 궁도와 선
유럽에 선문화 알린 필독서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독일의 철학자 오이겐 헤리겔(Eugen Herrigel)은 일본 도호쿠(東北) 대학 교환교수 자격으로 처음으로 일본에 발을 들인다. 6년간 일본에 체류하며 일본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궁도(弓道)를 배웠던 그는 독일로 돌아간 이후 당시의 경험을 책으로 펴냈다. 1948년 독일에서 출간된 <활쏘기의 선>은 이후 독일과 유럽에 일본의 선(禪) 문화를 알리는 필독서가 됐다.

이 책이 최근 <연금술사>로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브라질 출신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가 "젊은 시절 영감과 열정을 일깨워준 책"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다시 한 번 세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책의 줄거리는 단순하다. 학창시절부터 신비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던 헤리겔은 '선불교'를 일종의 '신비주의의 동양적 발현'으로 여기고, 선 사상에 접근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쏘기를 배우게 된다. 처음에는 활시위를 당기지도 못하던 헤리겔은 일본 궁도의 명인 아와 겐조(阿波研造, 1880~1939)의 지도 하에 '대나무 잎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눈처럼' 화살을 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궁사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겨냥한다'는 지극히 비서구적인 가르침을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

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헤리겔이 스승과의 대화를 통해 '활쏘기의 비밀'을 전해받는 대목이다. 가령 활을 제대로 당기지 못해 오랫동안 고생하던 그는 스승이 가르쳐 준 호흡법을 익히자 활쏘기에 성공하게 된다. "왜 처음부터 호흡법을 말해주지 않았냐"는 헤리겔의 질문에 스승은 답한다.

"만약 수업을 호흡법에서 시작했다면, 호흡에 결정적인 것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거듭된 시도를 통해 좌절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던져 주는 구명 튜브를 움켜쥘 준비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스승은 "활쏘기에 이르는 길은 마음이 순수하고, 활쏘기 외에는 잡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열리게 마련"이며 "활을 쏠 때는 쏘는 사람 자신도 모르게 쏘아야만 흔들림이 없다"고 말한다. 무심(無心)의 상태에서 '함이 없는 함'을 해야 한다는 '활쏘기의 기예'는 바로 선불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 오이겐 헤리겔(Eugen Herrigel, 사진 왼쪽)과 일본 궁도의 명인 아와 겐조(阿波研造, 1880~1939)가 활을 쏘는 모습. 사진제공=삼우반

이 책은 서양인의 시각에서 본 일본 궁도와 선에 대한 보고서이자 넓은 의미에서 '서양인의 동양 문화 체험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헤리겔은 일본의 선불교를 유럽에 알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서양인들이 동양, 그 중에서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보여준다. 신비적이고 반이성적이라 여기던 '선'의 요체를 시종 진지한 자세로 깨우쳐나가는 지은이의 노력도 흥미롭다. 이미 출간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책이 독자들에게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늦깎이 출가자가 들려주는 삶의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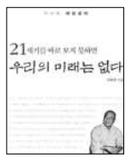
지난해 고희의 나이에 출가해 화제를 모았던 지연 스님(박현태 前 KBS 사장)이 20~30대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출가 전 '망언광장(www.parksviewpoint.com)'이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들을 묶은 것이다.

<21세기를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에서 스님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평화롭고 번영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들려준다. 출가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11대 국회의원, 동명정보대 총장, KBS 사장 등을 역임하며 겪은 다양한 경험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더라도 "19, 20세기의 구시대적 발상을 뛰어넘어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스님의 뜻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야생화와 신문, 자격증, 결혼식 등 다양한 일상 속의 소재를 통해 잔잔한 감동과 '생각거리'도 던져준다. 과도한 의미부여나 과장 없는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가 글맛을 더한다.

책은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다', '세상에 대해 자유롭고 솔직하게 말하다', '21세기를 준비한 세계사', '이웃나라 이야기' 등 모두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해 10월 순천 선암사에서 출가해 '지연(志淵)'이란 법명을 받은 스님은 현재 경기도 마석 백련사에 주석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21세기를 바로 보지 못하면…
지연 스님 지음 | 샘터사 | 9천원

새로나온 요가책

요가, 알고 즐기면 효과 두배

요가의 세계 게오르그 호이에르슈타인 지음
이태영 옮김 | 여래 | 1만원

쿤달리니 요가 이태영 지음 | 여래 | 1만원



요가가 '유행'하고 있다.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요가수련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한다. 요가에는 삶의 활력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이 있고, 참살이(well-being)의 핵이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스타일이 있다고. 그렇다면 그들에게 묻는다. 그 안에서 깨달음을 논해 본 적이 있는가.

<요가의 세계>는 그 같은 의문에서 시작한 책이다. 40여 년 이상 요가 사상을 연구한 게오르그 호이에르슈타인은 처음에는 유행이나 건강을 이유로 요가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을지라도, 요가의 사상과 본질을 접하게 되면 상상 이상으로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건강 체조로 대표되는 '하타요가'에만 익숙한 이들에게 소리의 힘을 응용한 만트라 요가, 성에너지의 전환인 탄트라 요가, 요가에서의 가장 높은 각성을 의미하는 쿤달리니 요가 등을 설명하며 영적 여행의 종착점인 '삼매'와 그 종류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까다로운 철학서를 상상할 필요는 없다. '힌두신이 거주하는 사원'으로서의 '육체'를 드러내기 위한 신체 정화법과 체위법 등이 두루 소개된다. 불교의 계율에 비할 수 있는 5가지 금지계·권고계를 비롯해 채식주의 중심의 요가 식사법 등을 힌두교 전통 경전을 풀어가는 가운데 함께 전하고 있다.

<쿤달리니 요가>는 한국요가연수원 원장이자 요가철학자인 이태영 박사가 요가의 맛을 느끼기 시작한 요가수행자들을 위해 쓴 책이다. 쿤달리니는 척추 기저부에 감겨진 힘으로, 인간 생명의 근원이자 잠재된 무한한 에너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의 존재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범속한 삶으로부터 초월하고자 하는 야심 있는 자만이 이것을 계발할 수 있다. 이 같은 에너지 각성 방법이 바로 쿤달리니 요가다.

지은이는 쿤달리니 각성 체험을 바탕으로 실질행법 중심의 쿤달리니 요가를 설명한다. '쿤달리니 요가'라는 말 자체가 국내에서는 생소한 편이지만, 지은이는 쿤달리니 요가의 사상적 배경인 '탄트리즘'의 신비를 벗겨내며 호흡법과 명상법 등 구체적인 행법들을 간결하게 정리해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스님	아름다운인연
2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3	포교사고시 예상문제집	조계종출판사편집부	조계종출판사
4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5	선사들이 띄우는 깨달음의 편지	정념 스님	장승
6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림
7	서장	전재강	운주사
8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9	선방 가는 길	정찬주	열림원
10	왜 사는가	무량 스님	열림원

도서 안내 : (02)737-0695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6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제8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음악제

- 생명 평화 그리고 사랑 -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가 함께 꾸미는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음악제가
오는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술의 선당 콘서트홀에서 그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생명 평화 그리고 사랑' 이라는 주제로종교간의 진정한 이해와 화합을 도모코자 마련된
이번 공연에는각 종교계를 대표하여 삼선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의 찬불가 수화공연과
소프라노 "김영미", 국악인 "오정해", 아카펠라그룹 더솔리스트의 축하공연과 함께
300여명의 소년소녀연합합창단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하는
가을밤의 축제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 2004년 10월 26일 (화) 오후 7:30~9:00
●장 소 :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주 최 :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주 관 :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후 원 : 문화관광부
●협 찬 : 대한불교 진각종 YAHOO! KOREA 커뮤

※ 입장권은 불교방송에서 선착순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프로그램

▌가톨릭대 성심오케스트라 / 지휘 : 윤용운
▌삼선승가대학 수화동아리(불교)
●사랑해요 부처님
●부처님께 귀의 합니다
●사랑으로
▌임마누엘 합창단(천주교)
●만남
●주는 날 구원하시네
▌오정해(원불교)
●배 띄어라
●한가로움 이어라
▌The Solist
●Java Jive / Autumn Leaves
●터키행진곡

특별출연
- 김영미
●날 잊지 마세요 / 살아계신 주
●주여 평화를 주소서
- 하유스님
●오프닝 연주
- 연합합창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PBC소년소녀합창단
CBS소년소녀합창단 원음소년소녀합창단
●Heal the world / 아이들
●달밤 / 활짝 웃어라

BBS 불교방송
http://www.bbsfm.co.k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 문의전화 : (02)705-5301

오페라로 다시 온 동승

주경중 감독의 영화 '동승'이 오페라로 만들어진다.
세종오페라단(예술감독 장선희)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국내 초연 창작 오페라 '동승'을 무대에 올린다. 오페라 '동승'의 큰 줄거리는 영화 '동승'과 거의 같다. 어머니를 그리워 하는 동자승 도념의 정서를 불교적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작품은 동양적인 불교 소재를 서양의 음악 장르인 오페라로 각색 했다는 점에서 공연전부터 주목을 끌고 있다. 이건용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가 대본과 곡을 쓴 오페라 '동승'을 미리 살짝 들여다보고 '100배 감상'을 위한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대갓댁 미망인이 동승인 '도념'을 보듬어 주고 있는 장면. 사진제공=세종오페라단

▲영화 '동승'과 오페라 '동승'의 차이점은?

줄거리와 등장 인물은 영화와 별 차이점이 없다. 다만 30대 중반으로 설정된 상좌 스님인 정심이 자식과 남편을 잃고 서울에서 내려 온 대갓댁 미망인을 사모하는 것은 영화와 다르게 각색됐다.

▲오페라 동승의 전개방식은?

오페라는 기본적으로 음악과 노래, 춤으로 구성돼 있다. 주인공이 부르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독창곡을 '아리아' 라고 하는데 이번 오페라 '동승'은 기본적으로 아리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모든 출연자들이 아리아를 부르지만 '친정어머니' 역만 내용 전개상 아리아가 없다. 여기에 대사와 연기를 통해 줄거리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불교 무용인 '승무'가 5분 정도 간주곡을 연주할 때 들어가는데 직접 무대에 나와 춤을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 하얀 천막을 마련해 춤사위의 그림자만 관객들에게 보여준다.

▲영화화된 작품을 오페라로 각색했는데 특징이 있다면?

영화 '동승'은 영상미와 배우들의 내면연기가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 오페라는 무대위에서 단막극으로 표현하다보니까 내면 연기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동양적인 소재를 서양 장르로 각색하다보니 대사와 심리 묘사에 애를 먹었다고 제작진은 귀띔한다.

▲무대 장치와 조명은?

아리아와 춤 어우러져 극 전개
단조로운 세트 조명으로 극대화
출연진 종교 제각각…예술로 승화
'도념' 역 여고생 김지영양 눈길

공연시간이 약 1시간인 단막극이다 보니 무대장치의 변화가 거의 없다. 눈내리는 겨울 암자가 주요 무대배경이다. 여기에 요사채로 들어가는 길은 언덕으로 꾸밀 예정이다. 무대가 단조롭다 보니 화려한 조명 장치로 다양한 무대를 연출할 계획이다.

▲음악은 어떻게 구성하나?

현악 4중주로 구성된 니르바나실내악단 10여명이 음악을 맡는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인원과 악기 편성으로는 극적인 효과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작진은 대안으로 다양한 음색을 나타낼 수 있는 일렉트릭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도념이 어머니를 찾아 암자를 떠나는 장면에서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목탁소리로 효과음을 낼 예정이다.

▲주인공 '도념' 역에 영화와 달리 여자를 캐스팅 했는데.

'도념' 역의 연령층에 맞는 남자 연기자들은 대부분 중학교 2년에서 고등학생 정도다. 오페라는 주인공이 아리아를 불러야 하는데 대부분 남자 배우들은 변성기여서 배역에 적임자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선화예술고 2년생들인 김지영과 이솔잎을 캐스팅 했다.

▲배역진들이 대부분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 불교 작품을 하는데 힘든 점은.

실제로 주지 스님 역의 박성규씨와 정심 역의 이동원씨를 제외하고는 개신교 신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성악가들이 오페라 '동승'을 단순한 종교 작품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처음에 성악가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개신교 성악가들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200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마음선원 합창제. 현대불교 자료사진

'간암환자돕기 한마음선원 합창제'

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과 자비의 음성공양 메시지가 전달된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1월 6일(오후 3시), 7일(오후 3·7시) 양일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간암환자돕기 한마음선원 합창제'를 봉행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한마음선원 본원 어머니, 거사, 청년, 어린이 합창단과 15개 국내지원 및 해외지원 합창단 등 1천여명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거사·어머니 혼성합창단의 '그 마음 그대로' '해수관음의 빛' '한시루의 대중이여' 등 선법가로 문을 연다.

국내외 15개 지원 등 1천여명 한자리
11월 6·7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서

이어 어린이 합창단은 '임의 소식' '챔피언' '댄싱 퀸'을 부른다. 이번 공연에는 '마음의 불씨'와 '일체 제불의 마음'을 음성 공양 할 스님 합창단도 출연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해외 지원 연합 합창단도 가세해 '삼세가 둘 아닌 노래' '누가 하는 가요' 등을 음성 공양 한다.

이번 공연에는 찬불가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본원 혼성 합창단은 '천안 삼거리' '농부가' '경복궁 타령' 등 민요도 들려줄 예정이어서 신명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마음선원은 지난 2001년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음악회를 개최해 모은 1억원의 성금을 한국복지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031)470-3173

김주일 기자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자미두수 입문

※ 4×6배판 변형판 424쪽,
부록 명반배치 CD포함.
저자:이두 김선호.
2004년 8월 발간.



자미두수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하여 만든 책. 자미두수 명반작성과 명반보는 법을 기초로 14정성과 잡성을 명쾌하게 풀이하여 명반추론의 순서를 밝혀 놓았다. 천지인반을 수록한 CD 포함. 혼자서도 가능함.
자미두수입문을 보고, 실전자미두수, 심곡비결, 자미두수전서를 참고로 보면 자미두수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음.

▸실전 자미두수

※ 변형신국판 700여쪽.
상하 2권, 36,000원
저자: 이두 김선호.
2004년 1월 12일 출간



"더 이상의 비법은 없다!"고 자부하며….
자미두수계의 선구자 이두 김선호선생의 13년 풍부한 임상경험의 비법을 아무런 사심없이 공개한 책, 사람의 명반을 놓고 "이때 왜 이 사건이 벌어져는가?"에 대해 일일이 별들과의 관계를 추론해 나간 책. 이 두 권만 다 소화한다면 누구나 자미두수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음.

▸자미두수 CD(전문가용)

※ 자미두수cd, 매뉴얼,
제작 : 대유연구소
가격: 400,000
출시기념으로 10월말까지
350,000원에 판매합니다.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면 자미두수 명반이 포국되고
명반의 별을 클릭하면 별들의 특성에 대해 설명이 됨
자미두수입문+실전자미두수+심곡비결+자미두수전서의 내용이 들어있음
주역점 기문포국 등이 부록으로 딸려있음

▸주역입문(周易入門)2

※변형 4×6배판
360쪽 15,000원
저자 : 김수길, 윤상철



하도에서 선천팔괘가 나오고
낙서에서 후천팔괘가 나오는
주역의 원리를 알기쉽게 풀이
+주역 전반에 대한 개괄설명

▸심곡비결

※ 4×6배판 700여쪽. 43,200원
역자: 이두 김선호.
2004년 7월 발간



인조반정의 성공을 예측하여
수명을 3년 늘린 심곡선생의 비결서!

▸자미두수 전서

※ 4×6배판 1,700쪽.
상하 2권, 100,000원
(명반 CD포함)
자미두수의 완결판, 진희이선생의
비급 자미두수전서를 완전번역.
역자: 이두 김선호.



음부경과 소서 심서

천부경과 대가 되는 음부경, 한나라 고조를 도와 중국을 통일하게 한 장량의 비책이 이 책에서 나왔다고 하는 처세철학 중의 최고봉 황석공의 소서,
삼국지의 주인공 제갈량의 병법비책이 담긴 심서
총 3권 22,000원



▸근간안내

홍음2, 법륜대법 9일강의 비디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대유학당
2249-5630
홈페이지 : 대유학당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



늙은 어머니의 눈물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풍속에 의하면 죄인의 목은 전다라족 사람이 베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목을 자르기로 되어 있는 전다라족 사람은 '공교롭게도'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와서 죄인의 목을 쳐라."

이렇게 명하는 왕의 사신에게 그 전다라족 사람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을 자르는 일은 꼭 내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 몸은 비록 임금의 명령을 받고 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왕에게까지 전해지자 왕은 크게 노하여 그를 불러 준엄하게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천한 사나이는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벌레 하나의 목숨도 해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인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네가 그토록 고집을 부려 죄인을 죽이지 않으면 네 목숨을 내놓아야 할 텐데…?"

"대왕이시여, 제 몸은 대왕께서 마음대로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만은 비록 저 하늘의 제석천왕이 명령한다 하여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그만 이성을 잃고 노하여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그 남자의 아버지와 여섯 형제를 모조리 끌고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저 오만방자한 녀석이 감히 왕의 명을 어겼다. 그러니 너희들이 대신 저 죄인의 목을 쳐라."

왕은 그 남자의 아버지에게 명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거부하였습니다. 곧이어 그의 형제들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들도 하나같이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왕은 그 사나이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막내가 남았습니다.

"자, 어떠냐? 너라도 죄인의 목을 쳐라."

막내 동생은 자기도 왕의 명을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소리쳤습니다.

"이 자도 끌고 가서 죽여 버려라."

이때 이들 일곱 형제의 어머니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대왕이시여, 제발 이 아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단 하나 남은 제 막내아들입니다."

왕은 노파의 이런 애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죽은 아들 여섯도 모두 너의 친자식이 아니었던가?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는 잠자코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일곱째 아들 하나만큼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냐?"

늙은 어머니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대왕이시여, 앞서 목숨을 잃은 아들 여섯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착실하게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으면서 나쁜 짓을 저지른 적이 없으니 죽는다 한들 제 마음에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막내아들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끼면 나쁜 생각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들의 목숨만은 구해 주십시오."(<대장엄론경> 제8권)

극악한 범죄 저지른 10대들의 부모에게서 자식의 삶 가엾이 여기는 통곡 듣고 싶어

십대 아이들이 또래 여자 아이를 감금하고 밤새도록 폭행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는 뉴스를 막 접하였습니다. 저는 흥분한 나머지 "저런 못된 애들은 그 부모를 잡아다 혼내 줘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뉴스를 보던 남편은 이렇게 대꾸하더군요.

"아마 어떤 부모는 이미 내놓은 자식이니 내 책임 아니라고 할지도 몰라."

물론 위의 경에서는 극악한 범죄자의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도 틀림없이 경찰서로 불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다 제 잘못입니다. 부모인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질렀니, 응?"하며 자식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그들의 입에서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니 법대로 처리하시오"라는 말만큼은 나오지 말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식의 삶 그 자체를 가엾이 여겨 눈물을 흘리는 그 늙은 어머니의 애원을 듣고 싶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게으른 자 깨치지 못하리라



지상 백고좌

혜정 스님

(보은 법주사 회주)

불교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 되는 점을 한마디로 압축해 규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와 불교가 특징적으로 차별이 되는 것은 신(神)을 섬기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불교는 신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종교이지요. 다시말해 인간을 중심으로 마음을 찾아서 깨쳐가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육신과 마음이라는 2중 구조로 돼 있습니다. 숨을 한번 쉬었다 내뱉지 못하면 그 자리가 바로 저승이요 죽음이지요. 육신을 묶어 관속에 넣은 뒤 다비장해서 태워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한 줌 재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일이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참나일까요? 육신은 거짓자아 즉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참자아인 진아(眞我)는 바로 육신을 끌고 다니는 마음입니다. 참자아인 마음이란 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음의 모양은 저 허공과 같아서 모양도 형상도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이 물건은 '있다 없다'의 개념을 초월한 물건입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도 뛰어넘은 것이지요. 이런 마음은 어떻게 찾아서 깨치는 것일까요? 옛 조사 스님들은 마음을 찾아서 깨치려 한다면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양동이에 있는 물이 물건을 적실 수는 있지만 물이 물 자체를 씻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음도 결코 갖고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왜 마음을 찾는 종교라고 하는지, 마음을 찾는다는 자체에 대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의 연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것인 마음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공부 방법은 다른 학문과 차별을 갖는 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음찾는 확실한 방법을 깨달은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재가자든 출가자든 할 것 없이 구경(究竟)의 경지에 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두마저 사라져야
무심의 경지 도달
본래 마음 못찾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서 마음을 찾을 것인가' 에 대해서만 생각합시다. 책도 생각도 내려 놓고 마음을 찾아 한 번 발벗고 나서봅시다. 마음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마음을 찾아가는 첩경으로 간화선, 많은 조사 스님들의 선체험록인 조사어록 등이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분이 바로 조주 선사입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한 제자가 묻자 "무(無)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고 묻자 "유(有)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그럼 스님에겐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나는 없느니라"고 했답니다.



10월6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불광회 창립 30주년 법회에서 혜정 스님이 "오른손을 번쩍 들어 당당하고 멋지게 살자"고 주문하자 참석자들이 손을 번쩍들어 보이고 있다.

엄격한 수행가풍 · 돈독한 신심 중시

혜정 스님은 스님은 엄격한 수행가풍을 중시 여긴다. 항상 불자들은 부지런해야 한다며 근면한 수행을 강조하는 가하면, 24시간 화두를 놓지 말라고 이르기도 하신다. 무슨일이든지 일념으로 정성을 가지고 해야만이 깨치거나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1933년 전라북도 정읍의 선비 집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19살 때 충남 예산 수덕사로 출가했다. 1953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62~83년 1~8대 조계종 종회의원, 1972년 중앙종회 부의장, 1977년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법주사 주지와 율주 소임을 거쳐 지금은 법주사 회주로 사리각에 주석하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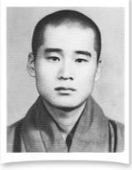
특히 혜정 스님은 깨달음을 향한 정진에 있어서는 교학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력과 확고부동한 신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십년 수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게 되었다고 법문때마다 강조한다.

한마디로 수행이 얼마나 잘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신심이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돈독한 신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애의 구렁텅이로 빠질 뿐이라는 것이다. 신심을 바탕으로 화두에 대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해갈 때 그 의심덩어리는 깨지고 깨달음을 증득하게 된다며 불자들에게 항상 신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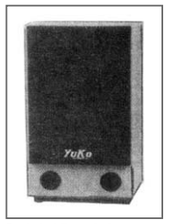
부처님이 광명으로 나투시어 감로법비가 내리고 있는곳
동 해 사

감로법비의 신비스러움을 지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법비기간 : 양력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세가지 소원중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감로법비도 맞으시고
기도로써 소원이루어 보세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033-672-2900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빕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나,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제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한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효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없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꼭 한번 래원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서울약령시장(경동시장) 내
효성약초 사암침연구소
TEL. 02) 965-2724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쪼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쪼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쪼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심아파트 주차장 내)



생사를 걸고 반드시 깨쳐야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백척간두에 진일보 한다면 확철대오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혜정 스님.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찌 스님께서는 불성이 없다고 하십니까?"라고 되묻자 "나는 중생이 아니니라"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제자가 묻기를 "그럼, 선사는 부처이십니까?"라고 하자 "나는 부처가 아니니라." 그러면 스님은 무슨 물건입니까?" 라고 하자 "물건도 아니니라"고 했지요.

그러면 "생각이나 말로는 미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생각으로도 말로도 이것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니라, 생각도 말도 추구하는 길이 단절된 것이니라, 그러니 화두를 잘 음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찾는 방법입니다. 생각과 말로는 미칠 수 없으므로 불가사의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지만 직관의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간화선 또한 직관의 방법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화두 참구입니다. 화두를 들고 깨달음을 찾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화두를 들고 깨치면 바로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두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무의 선사의 말을 되새겨 봅시다.

"하늘을 봐도 하늘이 보이지 않고 땅을 봐도 땅이 보이지 않는다. 산을 봐도 산이 아니요 물을 봐도 물이 보이지 않으니, 온 몸과 마음을 통해서 화두를 깨칠 것이며 이것을 깨지 못하면 내 혀를 자르리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찾기는 어렵고 그것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치 오미자차를 내가 마신 후 이 맛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본들 100%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오미자 맛이 '시고 달다'라고 설명해 본들 여러분이 직접 이 오미자 차 맛을 봐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미자차의 맛을 알려면 오미자를 마셔보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화두를 들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禪)은 실천(경험)이지 머리(생각)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 분량이 방대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바로 '마음' 입니다. 자신이 직접 마셔보고 체험해 보지 못하면 그것은 남의 것일 뿐이지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야지 그것을 끝까지 지고 가려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이렇듯 나중에는 화두마저도 버려야 합니다. 화두마저 사라지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맑은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심(無心)의 경지이지요. 그 경지까지 가면 움직임도 없고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심의 경지가 우리가 바라는 구경의 상태는 아닙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인 것처럼 무심한 경지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라 했습니다. 생사를 걸고 반드시 깨쳐야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먹는다면 백척간두에 서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지와 마음에 들 때만이 확철대오할 수 있지요.

내가 하는 법문만을 믿지 마세요. 그 법문의 뜻만을 품고 있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실천에 옮기는데

종교는 나를 위한 선택
너무 신성시해선 안돼
무엇을 하든 당당하고
열심히 하는 삶이 멋진 인생

힘써야 합니다. 물의 수원지가 없으면 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본래의 마음을 찾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짐승 등 모든 생물체에는 본래 마음이 존재합니다. 즉 개유불성(皆有佛性)이지요. 이것을 깨달은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물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묻지를 않았답니다. 몇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의심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으나 올기만 할뿐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불도를 닦아라."

불자들은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행운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병폐인 게으름 때문에 그 행운을 잡지 못하고 번뇌 망상과 집착에 빠져 살아갑니다.

종교는 나를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바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이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 신성시하거나 절대시해서도 안됩니다. 오히려 과하면 자기를 망치고 집안을 망칠 수 있습니다.

공부할때만이라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당당하고 열심히 하는 삶이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가장 당당하고 멋있게 살다간 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배울 것이 아니라 모습도 본받읍시다.

자, 여러분 오른 손을 번쩍들고 따라 하세요. 그리고 힘차게 외쳐 봅시다.

"당당하고 신나게, 멋있게 살자."

정리=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선곡 스님 (上)

선곡(禪谷) 스님은 1898년 태어나 1968년 입적했다. 육조 혜능 대사처럼, 머리 깎은 스님이 되기 전에 깨달음을 얻은 기연을 가졌던 스님이다. 선곡은 자호(自號)이고 법명은 도윤(道允), 법호는 설곡(雪谷)이다. 열일곱에 송광사에 들어가 공양주를 보면서 행자생활을 삼년이나 했다.

요즘엔 행자 생활을 해도 머리를 깎고 하지만 그 시절에는 머리를 그대로 두고 속복을 입은 채로 했다. 세월이 한참 가서 절에 익숙해질 무렵에야 머리를 깎이고 먹물 옷을 입을 수 있게 했다.

어느 날 선곡은 점심을 먹은 뒤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삼일암(三日庵)에 들어가게 되었다. 삼일암은 나중에 효봉 · 구산 · 법정 · 보성 스님 등 쟁쟁한 선사들이 주석하면서 수좌들과 일반인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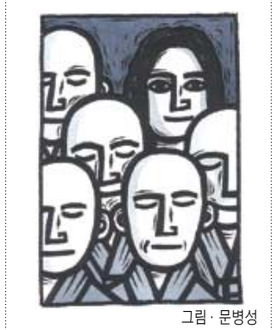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낯익은 암자가 되었다. 암자에 들어가 이리저리 살피다가 병풍을 하나 보았는데 무슨 소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와서 떨쳐지지 않았다. 요즘 같으면 불교를 조금만 알아도 십우도니 심우도(尋牛圖)니 하고 알아보았을 텐데 당시에는 아는 이가 드물었다.

선곡은 이상하게도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느꼈다. 선곡은 무릎을 치면서 "그렇지! 헐어진 외양간을 뛰쳐 나온 소! 그 소를 나도 꼭 찾아야지!" 의지를 곧추 세웠다. 삼일암을 내려온 선곡은 송광사 원주스님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괴나리 봇짐을 싸서 조계산을 올랐다.

언젠가 스님들이 한담을 하면서 이야기한, 참선하는 수좌가 살고 있다는 비로암(毘盧庵)으로 갔다. 비로암은 송광사의 뒷산을 넘어서 비탈 양지바른 곳에 있었다. 선암사 산내 암자로서 처음 아도화상이 이곳에 도량을 열었다고 한다. 비로암에는 당시 두 세 명의 수행자가 또아리 치듯이 좌선만 하고 있었는데 선곡도 아침저녁으로 밥을 해주면서 참선을 같이 했다. 생각해보면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들 틈에 봉두난발한 속인이 같이 있는 것이 이상했을 텐데 아무도 그런 생각이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수행을 했다.

지금도 비로암은 아주 작은 암자로 승려들이 편하게 있을 곳이 못되는데 당시에는 더 형편없었다. 그렇게 있다가 다른 스님들은 다 나가고 선곡 혼자서 10여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좌선하던 다리를 풀고 경행이나 할까 하고 문을 열고 나오다 조계산 능선에 아침볕이 내리쬐는 모습을 보고 홀연히 깨달았다.

계송을 읊어대고 꽃이나 새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해 산 아래 선암사로 전했다. 당시 선암사 본절에는 뒷날 4대 강백(講伯)중 한 명이라 일컬어지던 경붕(景鵬)스님이 칠전선원 조실로 있었다.

선암사 출신 대강백은 함명(涵溟), 경붕(景鵬), 경운(驚雲), 금봉(錦峯), 네 스님이다. 경운 스님은 조선불교의 초대 교정으로 추대되었지만 나서지 않아서 만해 한용운 스님에게 권한대행을 하게 한 선교 일치의 거장이었다. 나머지 세명의 스님도 강백으로 유명했지만 선(禪)에도 일가를 이룬 거장들이었다. 경붕 스님이 사람을 불러 선곡을 내려오게 하고는 물었다.

삼일암서 심우도 보고 발심
10여년 정진…출가전 오도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데 무엇을 보았다는 게냐?"

"무엇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아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붕 스님은 시자를 불러서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을 내오게 해서 시자에게 읽어주라고 했다. 한데 선곡은 몇 줄을 듣더니 말했다.

"아직 한 번도 읽어 본 적은 없지만 내용이 짐작이 갑니다."

하면서 초심(初心)부터 자경문(自警文)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데 막힘이 없었다. 경붕 스님이 선곡의 깨달음을 인가하고 출가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도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용성(龍城) 스님을 찾아 갔다. 선곡은 봉두난발한 채로 용성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속에 이글거리고 있는 소식을 전했다.

용성 스님은 물건이 왔다며 선곡을 인가하고 자신의 수제자인 선암사의 선파(禪坡) 스님 밑으로 출가시켜 법을 잇게 하였다. 그때 선곡의 나이 29세였다. 선파 스님 밑으로 출가했지만 오래 모시지는 않고 법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만공(滿空) 스님을 찾아가서 거량을 하였다. 마침 만공 스님은 법주사에 머물고 계셨다. 만공 스님이 법상에 올라 대중법문을 하고 있었는데 선곡 스님이 법을 묻고자 하니 만공 스님이 "네가 얻은 소식을 일러라." 하였다. 선곡 스님이 좌정하고 말없이 빙그레 웃자 만공 스님은 "네가 왔으니 내 법문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 하시며 법상에서 내려와 버렸다고 한다. ■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나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2월 9일)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

육 법 등 (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애니메이션과 함께 꿈과 환상의 나라로



춘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10월30일~11월3일
7개국 30여 작품 무료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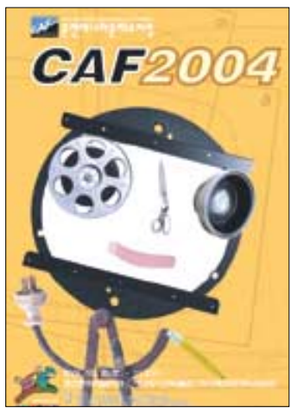




"어린이에게는 꿈과 상상의 나래를, 엄마 아빠에게는 동심의 세계를."

7개국 30여 애니메이션 작품을 볼 수 있는 만화영화 축제가 10월 30일~11월 3일 열린다. 춘천 문화예술회관, 애니메이션박물관 등에서 개최되는 제8회 춘천 애니타운페스티벌에는 80년대를 대표하는 호조 츠카사의 원작만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티헌터' 시리즈를 비롯, '패트레이버' '애플시드' 등 최신작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청소년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엄마찾아 삼만리' '개구리 왕눈이' '이상한 나라의 폴' 등 작품들은 엄마 아빠 세대들까지 스크린으로 불러들이기에 충분하다.

춘천 애니타운페스티벌 공모전 단편만화 부문에는 총 13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캐릭터와 시나리오 부문에도 50여 명이 넘는 응모자들이 지원,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본선심사는 10월 31일 열리며 11월 3일 폐막식에서 시상을 할 예정이다.

특히 '란마 1/2'과 '바람의 검심'을 제작한 준지 니시무라 씨가 초청돼, 그만의 독특한 애니메이션관을 듣는 기회도 제공된다. '미래소년 코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등을 감독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친필사인이 들어있는 '이웃집 토토로' 원화부터 미국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드래콘 테일즈'의 셀 작업물 등도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다.

개막작은 조용한 농촌마을에 갑자기 들이닥친 UFO 목격소동을 다룬 아키모토 오사무의 '고치카메'다. 주최측은 모든 입장권을 사전예매 없이 당일 현장에서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caf21.org, (033)258-6982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고치카메'의 주인공 미나와 료츠칸키치, '오! 나의 여신님'의 주인공들, 우비소년, '코치카메'의 테라이, 해적 마테오.

※ 상영일정표

날짜	시간	춘천문화예술회관	애니메이션박물관	LG마트특별시사실
30일	18:00	고치카메(개막작)	오! 나의 여신님	미녀와 야수
	20:00	에스카플로네	엄마 찾아 삼만리	
31일	10:30	게으른 고양이 딩가	공모전 본선	베베
	15:00	엘시드	시티헌터1	
	18:00	패트레이버	오! 나의 여신님	걸리버여행기
	20:00	엄마 찾아 삼만리	플란다스의 개	
11월1일	10:30	깨모의 모험	찰리는 망토…	피오
	15:00	랙덜	시티헌터2	
	18:00	패트레어버2	오! 나의 여신님	헤라클레스
	20:00	라스트 뱀파이어	펭귄은 괴로워	
11월2일	10:30	우비소년	키퍼	피오
	15:00	곰이 되고 싶어요	시티헌터3	
	18:00	개구리 왕눈이	오! 나의 여신님	노아의 방주
	20:00	트리스탕과 이졸데	이상한 나라의 폴	
11월3일	10:30	뽀롱뽀롱 뽀로로	해적 마테오	
	15:00	시티헌터4		
	18:00	까에나(폐막작)		

전시·공연

북한산 심곡암 단풍문화축제

10월 31일 음악회…11월 7일까지 서화 · 사진전



지난해 열린 심곡암 문화축제에서 원경 스님과 불자들이 다도시연을 하는 모습.

아름다운 단풍이 산하를 화려하게 수놓는 10월. 북한산 심곡암(주지 원경)은 불심과 자연이 어우러져 한 폭 화엄 세계를 연출하는 제7회 단풍문화축제를 마련한다.

이날 행사는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사시기도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낮 12시 30분 다도시연 및 시음, 오후 1시 30분 본행사인 산사음악회가 이어진다.

심곡암 문수전 개원을 기념하는 전시회는 10월 31일~11월 7일 열린다. 일장 기현 성륜 스님 등의 서화작품을 비롯해, 김영아 씨의 염색 직물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02)914-8860

기타리스트 글래스필드 공연

대구 동화사 10월 30일 산사음악회에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인 크리스 글래스필드(오른쪽)와 조나단 프레이스

대구 동화사가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크리스 글래스필드와 조나단 프레이스를 초청하는 '가을밤 산사의 작은 음악회'를 마련한다.

10월 30일 오후 6시 30분 동화사 통일대전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어느 때보다 삶의 무게가 무거운 대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싶다'는 주지 지성 스님의 뜻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한국 스님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글래스필드가 "한국 사찰에서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기획됐다. (053)982-0101

개인소장 문화재 한자리에

11월 9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 6세기 반가상 공개



그동안 도난이나 훼손을 우려 공개가 꺼려져온 개인 소장 문화재들이 한자리에 전시돼 일반에 공개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 주최하고 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종춘)이 주관하는 '개인소장 문화재 특별전'이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경복궁 옛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것.

부산과 대전 전시에 이어 열리는 이번 서울 전시에는 불상 1점, 불화 1점을 비롯해 도자기, 공예품 등 260여점이 출품된다.

특히 평양 평천리에서 출토된 금동미륵반가사유상(사진)은 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박물관에서도 만나기 힘든 오래된 불상이다.

그밖에 금속기를 본떠 봉황뚜껑 등을 조형한 청자퇴화연당초문주자(靑磁堆花蓮唐草紋注子), 큼직한 물고기를 추상적으로 철화 장식한 분청사기 철화어문병(粉靑沙器鐵畵魚紋甁) 등이 출품됐다.

이번 특별전은 서울 전시회 후에 국립대구박물관(11월19~21일)과 국립광주박물관(12월 10~12일)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된다. **박익순 기자**

'문화유산 보는 눈' 길러 줍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 직원 · 시민대상 강좌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 직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갖는다.

11월 1일부터 8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오후 5시~6시 30분) 대전 정부종합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에는 '불교미술의 기본원리와 석탑의 탄생' '부도(사리탑)의 발생과 하대신라의 미술' '불상의 이해와 삼국시대 불상' '통일신라의 불상'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강좌는 문화재청 직원을 상대로 한 직원연수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일반 시민도 수강이 가능하다. 10월 19일부터 문화재청 홈페이지(www.ocp.go.kr)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042)481-4631

● 강좌일정

11월 1일	고려청자와 상감청자
11월 8일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
11월 15일	한국의 선사시대와 한민족의 뿌리
11월 22일	삼국시대 고분미술
12월 6일	불교미술의 기본원리와 석탑의 탄생
12월 13일	부도의 발생과 하대신라의 미술
12월 20일	불상의 이해와 삼국시대 불상
12월 27일	통일신라의 불상

성철 스님 열반 11주기 기념 칠일칠야 법회

성철 스님의 열반 11주기를 기리기 위한 '칠일칠야 팔만사천배 참회법회'가 10월 26일~11월 2일 해인사 백련암, 대적광전 등에서 봉행된다.

법회 참석자들은 평소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스님을 가르침을 되새긴다는 취지 아래 '마음이 불행하고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10월 26일)'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기도(27일)' 등을 주제로 두 시간마다 일천배를 해 일주일 동안 총 팔만사천배를 하게 된다.

3천배 참회기도는 11월 1일 성철 스님 사리탑 앞에서 거행되며, 추모재는 11월 2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린다. 백련암 (055)932-7300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갓바위 소원성취메달

대구 팔공산 '갓바위부처님(관봉석조여래좌상)'을 그대로 은메달 속에 옮겼다. 갓바위는 정성을 다해 빌면 한 가지씩 소원을 이뤄준다는 대표적인 기도처.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가까운 친구와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상품. 가격 4만9천5백원, 재질 순은, 무게 31g.(02)732-1520



불교TV 보며 안방에서 공부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불교 교리와 수행법을 익힐 수 있게 불교TV가 가을개편을 맞아 신설한 수행 · 교리 프로그램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체험! 붓다의 수행법 위빠사나'(월 09:20/20:30)와 '영어법문 디스커버링 부디즘'(금 09:20/20:30),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목 12:00/22:10) 등이 바로 그것.

'…선지식을 찾아서'는 고승들을 직접 찾아가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대담형식으로 잔잔히 풀어간다. 첫 시간인 10월 28일에는 도문 스님(장수 죽림정사 회주) 편이 방영될 예정이다. '…디스커버링 부디즘'은 티베트에서 수행하는 외국인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티베트 문화를 조명하며 영어도 배울 수 있다. '체험! 붓다의…'는 위빠사나 수행으로 시청자를 안내한다.

20면 상식 퍼즐 정답

조	가	비		소		
고		방	실	방	실	
각			소		미	
하	명				도	교
	부		왕			우
	전	무	후	무		이
		상		사	육	신

게시판

공부합시다

'노인의 성과 사랑' 세미나 서울 성북노인복지관은 10월 2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노인의 성과 사랑'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02)929-7950

청소년 성교육 부산 몰운대복지관은 10월 29일 오후 4시 초등학교 4~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교육 강좌를 마련한다. 또한 복지관은 11월 13일 오후 2시 인근 중학교에서 열릴 예정인 '4:4 붉은 악마 축구대회'에 참여할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있다. 마감은 11월 12일까지.(051)264-9033

함께 해요

도롱뇽 후원의 밤 행사 환경단체 도롱뇽소송시민행동은 10월 29일 오후 6시 서울 대학로 안토니아스라인에서 도롱뇽소송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02)766-1654

재활운동치료 이용자 모집 서울 금천노인복지관은 만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 치료 이용자를 모집한다.(02)804-4058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공주 금강복지관은 11월 7일까지 동학사 불교문화원 앞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바자회를 연다.(041)856-6110

운주문화축제 화순 운주사를 배경으로 운주문화축제가 10월 29~31일 열린다.(사진) 노래자랑, 석불세우기, 산사음악회, 목화체험 등 행사가 마련된다.(061)374-0660



진영단감제 한국 단감의 첫 재배지 경남 진해 진영읍은 11월 6~7일 풍성한 단감 수확을 축하하는 '진영단감제'를 개최한다.(055)330-3114

연극 '어린왕자' 공연 부산 낙동복지관은 10월 29일 오후 2시 극단 동그라미그리기가 연출하는 '어린왕자'를 공연한다.(051)271-0560

불교복지 대축제 조계종 사회복지관은 10월 29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자원봉사단체와 봉사자 등을 초청한 '나눔으로 하나되는 대축제'를 마련한다.(02)723-5101

자원봉사자 모집 시흥장애인복지관은 물리치료, 조기교실, 방과후교실, 주간보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정업무, 가정지원사업 등 분야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031)431-9114

한기창 전시회 화가 한기창 씨의 한국화 전시가 11월 5일까지 서울 평창동 갤러리 세줄에서 열린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된다.(02)391-9171

즐겁게 떠나요

부석사 답사 답사단체 수요테마는 10월 27일 부석사, 하회마을 등을 둘러보고 인근 사과 농장에서 사과 따기 행사 등에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02)774-0886

단풍여행 답사단체 우리문화는 10월 30일 단풍이 아름다운 내장산과 강천산 계곡을 둘러보는 단풍여행을 떠난다.(02)335-7137

신행수기

먼지를 털고 때를 닦아라 〈상〉

최순옥 (경북 구미시)



그림 · 김흥인

버스서 들은 '법구경'에 감동해 개종…경전 탐독

지금부터 17년 전. 사는 집은 남에게 넘어가고 쌀 한 톨 남아 있지 않은 살림살이를 꾸리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 고3, 중2짜리 자식들의 학비도 의식주도 나 몰라라한 채 나가서 딴 살림을 하면서 살고 있던 남편. 나는 그가 죽어간다는 연락을 받고 가는 길이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신혼 초부터 그 사람이 저질렀던 온갖 듣지도 보지도 못한 행실들이 떠올랐다. 당황하고 놀라며 고통 속에서 겪어냈던 '잊고 있었던 일들'이 어제 일인 양 끊임없이 솟아올랐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나는 내가 하던 외판일을 그만뒀다. 그리곤 남의 가게 옆 빈터에 비닐을 치고 작은 꽃가게를 꾸리며 중학교 2학년이었던 막내까지 대학공부를 마치게 했다. 그동안 내가 겪어야 했던 온갖 고초들….

죽을 때가 되니 용서를 구하고 싶은지 죽음에 임박해서야 우리를 찾는 소행이 괘씸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그런 감정들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불자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오십 년이 넘게 한 가지 종교만 있는 듯 생각하고 살았다. 그 종교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내가 불교를 접한 것은 버스에서였다. 가끔 버스를 타고 가다 방송에 귀를 기울일 때면 가끔 주의를 집중하게 만드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다. 나는 알 수 없는 그 소리가 좋아 방송이 잘 들리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다름아닌 불교 경전 〈법구경〉의 경구라는 것을 안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내가 그 경전을 처음 대했을 때의 놀람은 거의 경이에 가까웠다. 세상에 〈법구경〉같은 경전이 있다니… 그 후 〈한마음 요전〉을 비롯한 여러 불교서적들을 허기만난 사람처럼 찾아 읽었다.

불교 성전을 끝으로 삼 년 여 만에 '불교야말로 내가 찾는 종교다'라는 단언을 내리고 개종을 하였다. 그리스도교로 채울 수 없던 내 마음에 불교가 자리하기 시작했다.

그 후 남편을 이해하기도 한결 쉬워졌다. '전생에 내가 지은 것이다. 두 번 다시 이런 인연은 만들지 말자. 어디서 누구와 살든 잘 살기만 바랄 뿐이다'라고.

그러나 불교경전을 비롯한 여러 경전들을 읽고 감격해 마지 않았던 나는 그 귀한 경전들을 번역하고 출판해 나 같은 사람의 손에까지 도달하여 부처님을 알게 해주신 운허스님이 계셨다는 봉선사를 찾아갔다.

거기서 벅차오르는 뜨거운 감격으로 일주문에서부터 오체투지를 하면서 큰 법당까지 간절히 가고 싶었던 나였건만, 막상 아이들의 아버지가 죽어가니 와달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지난날의 온갖 일들을 끄집어내고 분해하고 미워하고 괘씸해하고….

참말이지 불쌍하다는 감정은 하나도 없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한다면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후회했다. '이혼했더라면 이런 귀찮은 일은 없을 것인데'라고….

나는 밤낮으로 안고 살다시피 하던 경전의 말씀을 진실로 이해했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남편에 대한 생각을 철저히 끊고 냉담하게 의식의 밑바닥에 그냥 덮어 두기만 했던 것이다.

그것이 열려버리자 용해되지 않은 지난 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유보된 채 잠자고 있던 온갖 감정들이 살아나서 목소리를 내었다. 그 산란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와 불교에 입문하기 전이나 후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마음 상태를 확실히 볼 수가 있었다. 경전공부는 오직 읽기만 했지 전혀 내 것으로 녹이지 못한, 철저한 겉모습만의 불자였음을 새삼 깨닫게 됐다.

이런 나를 따갑게 느끼고는 억지이긴 하지만 그 사람과 나를 구별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해주면서 잘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병상의 그를 대면했다. 내 모든 감정은 죽음이 임박한 그곳에서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그는 폐암으로 말을 못했고 나는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읽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줬다.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표시를 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러주는 속에서 그는 그렇게 갔다.

그는 자기 몸을 윤이 나도록 밤낮으로 가꾸던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는 그 몸이 말도 못했다. 남편이, 육체가 아닌 마음을 그렇게 가꾸었더라면 그가 한 행위의 반대되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남기고 갈 수가 있었을 텐데.

복잡했던 심신이 정리돼 갔다. 전에 일하던 곳에는 갈 수가 없게 돼서 나는 어느 회사에 청소부로 취직을 했다. 그런데 청소를 해보니 이게 막연한 그냥 일거리가 아니고 마음공부하는데 더 할 나위없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신행수기 잘 쓰려면

글쓰기 요령 ②

자기 과시 지양, 독자 이해에 초점을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창조적인 욕구는 나면서부터 부여된 인간 본연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한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요, 자기 발현이요, 존재의 외침이다. 살아 있으면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억압이요, 대나무 밭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는 이발사가 되게 할지도 모른다. 수필이나 수기가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감동과 정서적 만족이다. 감동, 독자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란 과연 어떻게 전달될까? 그것은 글쓴이의 정직한 반성과 지순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 성찰의 거울

병이 깊어야 약의 효험을 알 수 있듯이 톨스토이의 영혼도 병들어 방탕과 도박, 간음과 성병, 낙제, 허영심,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에겐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다. 비틀거리는 자신을 냉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거울, 일기가 그것이었다. 어느 날 그는 일기장에 자신을 괴롭히는 세 가지 악마에 대해서 분석했다. ①도박열은 가능한 싸움 ②성욕은 매우 곤란한 싸움 ③허영심은 가장 무서운 싸움.

그의 인생 82년의 생애 중 나머지 반은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데 바쳐진 삶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 개선의 노력, 그 과정이 우리를 고무시키고 감동시킨다.

감동적인 글쓰기

남을 감동시키려면 필자는 우선 거짓이 없어야 하고 자기(글 속의 나)를 과시하거나 미화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신행 생활 중 지극한 기도 끝에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환상, 신비한 체험 등은 독자가 납득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

맹난자(수필가, '에세이문학' 발행인)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 게재됩니다)

릴레이 수행일기 〈상〉



권경임
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

어느새 50대 문턱에선 장년층이 되었으니 세월의 무상함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추억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대학교 때 친구와 함께 불교를 공부하고, 스님들과 친분을 갖게 되면서 절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불서를 읽고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출가에 간절했던 시기도 있었을 만큼 세속적인 관심은 별로 없었고 나의 청춘은 불교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 할까.

처음 친구와 송광사, 해인사 산문 밖에서 일주문안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렇게 환희심이 넘칠 수가 없었다. 산문 밖에 대나무 숲과 아름드리 나무들이 우리를 반기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느낌에 압도되었다고나 할까. 절 문을 들어서자 절에서 나는 풍경소리, 나무와 향냄새, 심지어 고색창연한 절집에서 나는 냄새까지도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었다. 마치 새롭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심정이었다. 그저 특별한 이유 없이 절이 좋고, 불교가 좋아서 절에 가면 저절로 환희심이 나고는 했다.

스님이 되고 싶은 꿈 이루지 못했지만
사찰순례 · 법회참석 · 불서 읽기 생활화

한번은 동화사에서 스님 외에는 출입불가란 팻말이 있었는데 스님께 간청하여 들어가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스님들이 참선수행하는 금당선원이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왠지 그 곳이 낯설지가 않고 마당에 나무와 돌로 된 불상이 있었는데 친숙한 느낌이 들어서 그 곳에서 한참을 놀았다. 그 무렵 나는 소위 일원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때는 그것이 일원상인지도 몰랐었다. 친구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더니 헛것을 보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 이후에 나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했다.

그 이후 수선회에서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환희심에 행복해 하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3~4년간 참선수행을 하기도 하였는데, 처음에는 망상이 들어 힘들기도 하였으나 차츰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었다. 참선수행은 화두만 잘 들면 되는 것 같지만 그리 간단한 수행이 아니었다. 때론 상기가 들기도 하고 몸을 잠시도 편히 두어서 안 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였는데, 몸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경전에서 거문고를 탈 때의 비유와 같이 몸도 마음도 너무 느슨하지도 팽팽하지도 않게 중도를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수식관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를 다진 후에 신심과 의심과 분심을 가지고 망념 없이 지속적으로 단련해 가야 하는 수행인 것이다. 그때 숭산 스님의 〈선의 나침반〉이란 책은 어렵게만 느껴지던 선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외국인 제자들의 발심 출가 수행담은 더욱 수행의지를 갖게 하였다. 그 외에 진제 스님, 정일 스님, 송담 스님 등의 법문을 듣고 신심을 다질 수 있었다.

여러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다보니 선지식을 한 분만 모시고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백운암에 계신 서옹 스님을 만나 뵙고는 유언, 무언의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출가에 대한 생각을 다지기도 하였다. 서옹 스님께선 찾아오는 모든 신도들에게 똑같이 대하셨는데, 한번은 오래 전부터 스님께 다니던 보살이 젊은 처자가 절에 자주 다니는 것이 평범해 보이지 않았는지 나에게 한마디하자 큰스님께서 '보살이여' 하시던 말씀을 가끔씩 떠올리곤 한다.

절에 다니는 신도들은 누구나 다 보살인데, 그 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예사롭지 않게 들렸는지, 어쨌든 지금은 그 보살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수행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들기도 한다.

만다라(曼陀羅) 개운학 강좌

거력 배성현 선생께서
현실의 어려움을 알고 방술
처술과 개운의 비법을
서울과 대전에서 강의 하십니다.

● 모집부문 : 九성기학, 기초 전문반
● 배성현 선생
현 일본 운명 관상협회 회원이시며
저서로는 | 백리길 여행으로 운명이 바뀐다
만다라 개운법
가정수장술
변하는 손금 바뀌는 운명
八백十통 변화비전
공방살의 위력

● 서울사무실 : 02)766-8577
010-3174-1958
● 대전사무실 : 042)256-345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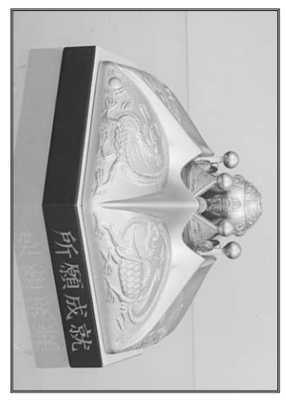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충청도 : 011-327-7697
강원도 : 010-3044-9708 경상도 : 016-9294-8580
경기도 : 019-690-4018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북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북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제9회 명원차문화대상'

공로상에 中 정혜 스님

민속학자 임동권 교수 학술상, 선 다례 · 다계작법 시연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혜 스님이 '제9회 명원차문화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명원차문화대상은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이 다도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외국인이 선정된 것은 2002년 일본 센리큐 우라센케(天利休 裏千家)의 15대 가원(家元)인 센소시스(千宗室) 박사에 이어 두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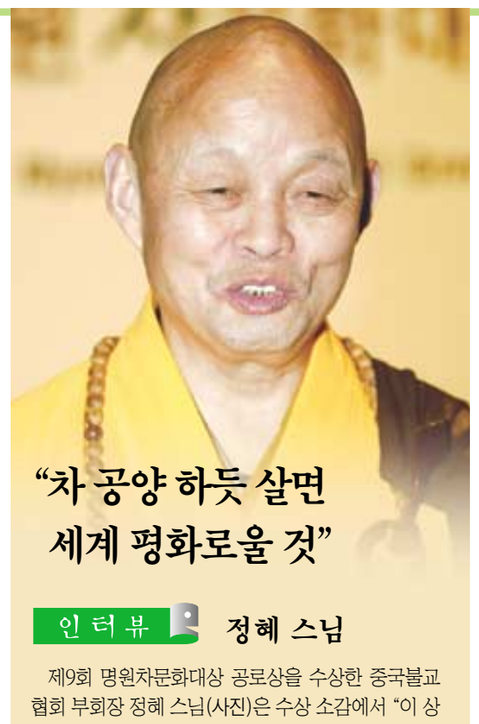
10월19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명원차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선보인 신라다례 연등회 모습. 연등을 든 사람들이 탑 주위를 돌며 가족과 국가의 평안을 기원한다.

10월 18일 저녁 방한한 스님은 19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을 계기로 한중 차문화 교류와 우호증진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이원홍 前 문화공보부 장관, 서양원 한국제다 대표를 비롯해 1천여 명이 참석했다.

1935년 출가한 정혜 스님은 88년 중국 하북성 불교협회 창건에 참여했으며 89년 불교잡지 <선(禪)>을 창간하는 등 '생활선 활동'에 앞장서 왔다. 98년부터 하북성 백림선사 주지를, 2001년부터 하북성 불학원장을 맡아 불교와 차문화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인터뷰 기사 참조)

학술상을 수상한 임동권 중앙대 명예교수는 민속학의 거목. 임 교수는 이번 명원차문화대상 수상에 이어 20일 문화훈장 은관상도 함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임 교수는 서라벌예술대와 중앙대 교수를 거쳐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심의위원, 백제문화연구원장, 학교법인 국악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와 전통문화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임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차문화와 그리 인연이 깊지 못한 민속학도에게 이런 상을 준 것은 앞으로 차문화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민속학적 연구를 해 나가라는 채찍질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에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신라 왕족 출신인 무상 스님의 '선 다례'와 연꽃을 들고 탑돌이를 하는 연등회 시연, 동희 스님의 다계작법(茶戒作法)이 펼쳐졌다. 신라 성덕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무상 스님은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사천성 정중사를 중심으로 선사상을 구현한 인물. '선 다례'는 무상 스님의 '무억 무념 막망'을 다례로 표현한 것으로, 명원문화재단이 2001년 처음으로 발표한 다법이다. (02)730-7191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차 공양 하듯 살면 세계 평화로울 것"

인터뷰 정혜 스님

제9회 명원차문화대상 공로상을 수상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혜 스님(사진)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저 혼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차문화 발전에 힘써 온 모든 차인들에게 주는 것"이라며 "다양한 민간교류활동을 통해 세계인이 선다(禪茶)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수상 소감은?

-지난 2001년 명원문화재단이 중국 백림선사에 '조주고불선차기념비'를 건립하면서 한국 차문화와 인연을 맺게 됐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차문화 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여기겠다. 차 마시는 것과 선(禪)은 생활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차 한잔을 주위에 공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세계는 더욱 평화로워질 것이다.

▲한국과 중국 차문화의 차이점은?

-중국의 차문화는 일상적인데 반해 한국의 차문화에는 깊은 의미가 내포된 것 같다. 차를 마시는 의식이 온전히 보존돼 있고 다례 과정 하나하나에 선불교의 사상이 녹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 중국과 한국의 차문화가 진일보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또한 차를 마심으로써 마음을 닦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올 '초의상'에 이원홍 前 장관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기리는 제13회 초의문화제가 오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해남 대흥사와 해남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7일 오전 10시 대흥사 대웅전에서는 '선고다인 추모다례제'도 개최될 예정이어서 차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선고다인 추모다례제'는 효당 스님과

내달 6~7일 초의문화제 근현대차인 추모행사도

운학 스님, 금당 최규용 옹 등 우리나라 근현대 차문화 발전에 앞장섰던 다인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몽산, 대흥사 주지)는 "올해부터는 다회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100가족 들차회'와 행사 기간 중 산사체험을 할 수 있는 '차의 향연 템플스테이'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12회 초의문화제에서 초의 스님 동상에 헌다하는 모습.

'100가족 들차회'는 차를 즐겨 마시는 가족 2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자들은 주최측이 제공하는 차를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공양한다. 참가비는 무료. 초의문화제 행사에 참가하며 산사에서 1박을 할 수 있는 '차의 향연 템플스테이'에서는 발우공양과 참선, 예불 등 사찰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 1만원.

한편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시상하는 초의상 수상자에는 이원홍 前 문화공보부장관이 선정됐다. (061)535-0986

박병근 교수 '리서치 어워드' 수상



박병근 교수(마산대 한약재개발과 · 사진)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일본 시즈오카(靜岡)에서 열리는 '2004 국제녹차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a culture and science, 이하 ICOS)'에서 우수연구발표자로 선정돼 '리서치 어워드(Research awarrd)'를 수상한다.

한국차학회 이사로 활동 중인 박 교수는 지난 6월 30일 '다학의 구조와 갈래(Structure and Categories of Teaics)'라는 주제의 논문을 제출해 400여 명의 참가자 중 우수논문발표자로 선정됐다.

박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차와 관련된 전공분야를 189개로 세분화한 뒤, 이를 '다학(영문 Teaics)'이라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차와 관련된 연구를 '다학'이란 이름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피아골 단풍과 녹차의 만남 10월29일 시음·시연 행사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남 구례군 토지면 임곡리 송림무대에서 개최되는 '제28회 피아골 단풍제'에서 차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구례차생산자 연합회는 구례농촌기술센터 차문화모임 등과 함께 다도 시연회와 무료 시음회를 마련해 단풍제 참가자들에게 차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단풍제 기간 중에는 특별 코너에서 녹차를 시음할 수 있고 30일과 31일 낮 12시 30분에는 다도 시연회를 감상할 수 있다. (061)782-0301



3. 삼국 시대 ①

이 시기 중국에서는 차가 약용으로는 물론 음용(飮用)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차의 보급이 확대되어 계층의 구분 없이 생활화되었고, 상품으로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가 차문화의 배태기(胚胎期)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 차의 전래 중 하나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남방 전래설에서 본다면 가야 허황옥의 도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근래에 우리 말 속에 인도의 남방언어가 많이 섞여 있고 또 혈통까지 같은 유전인자가 많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허황후의 도래는 차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당시 인도와 한 두 번의 교역이 아닌 인적(人的) 장기적 교류가 빈번

'허황옥 도래' 茶와 깊은 관련

했고 그 수도 상당했다고 볼 수 있다.

① 이배(耳杯)란 손잡이가 있는 잔 형태의 그릇을 말한다. 손잡이가 있었다는 점에 미루어 약이나 음료 등의 뜨거운 것을 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허황옥의 도래는 차가 전래된 역사적 근거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허왕후가 인도에서 올때를 전후해 차가 수입되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③ 백제는 일본과의 교류가 특히 많았다. 우리의 음료문화도 이때 벌써 일본의 왕실이나 귀족 사이에 전해졌다고 본다.

④ 청자저다옹은 후한의 초기 유물로 중국 절강성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⑤ 중국도 이전부터 차를 마셨으나 불교가 전래되면서 선가(禪家)의 필수적 음료로 등장해 확산되었다.

⑥ 화타는 후한 때의 명의로 그가 지는 <식론>에 "쓴 차를 많이 마시면 생각에 도움을 준다(苦茶久食 益意思)"라고 적혀 있다.

기원전 시대 @ 표는 약(about)

	한 국	중국	일 본	서양 기타
삼국시대	3 고구려 국내성 천도 4 원시4년명반(元始四年銘盤)과 이배(耳杯) 제작 ① 26 구다국왕(句茶國王) 고구려 투항 48 허왕옥의 도래 ② 52 건무칠(建武漆) 이배 제작 57 신라, 왜(倭)와 사신이 오가다 68 영평명(永平銘) 이배 121 왜구의 침입 191 을파소(乙巴素)가 고구려 국상(國相)이 됨 247 고구려 평양천도 283 백제, 봉의공녀(縫衣工女) 일본에 파견 284 아직기가 일본 태자의 스승이 됨 ③ 285 왕인의 도일(度日), 유교 경전 전달	한대 8 신(新)의 건국(왕망) 25 후한 건국(유수) @ 청자저다옹(靑瓷 貯茶瓮) 발굴 (절강성) ④ 67 중국에 불교 전래 ⑤ 82 반고의 <한서(漢書)> 105 채륜의 제지법(製紙法)> 184 황건적의 난 삼국시대 200 화타의 <식론(食論)> ⑥ 216 위(魏)의 건국 221 촉한 건국 222 오의 건국	고분시대	고대사회 30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286 동서로마 분리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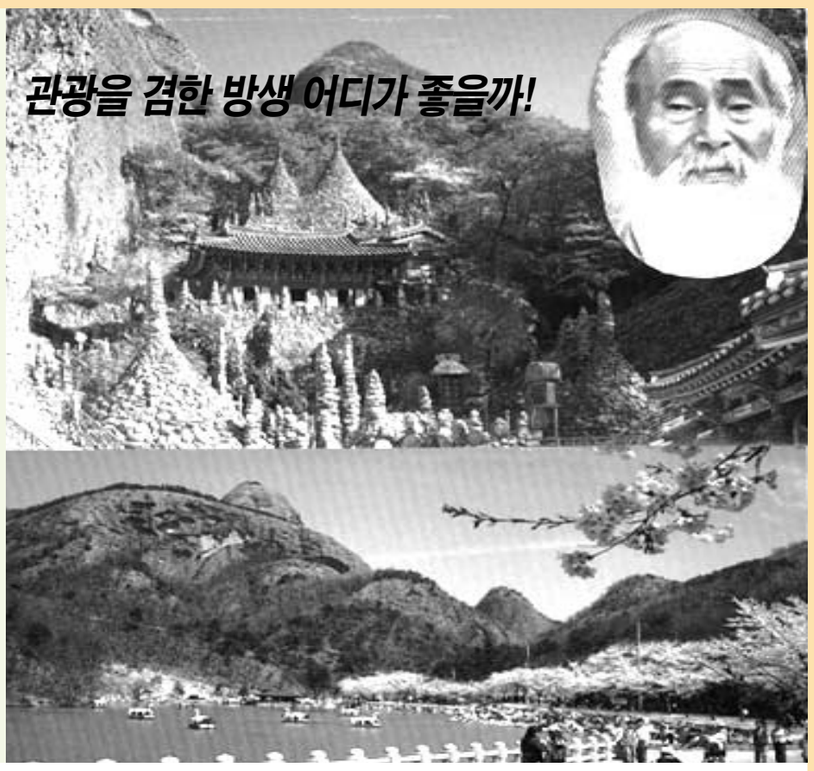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다구요? 차에 가까이 계시다구요?
그럼 매달, 월간 『다도(茶道)』 한 권 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차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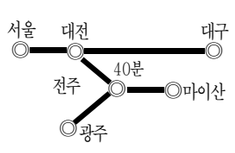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현대불교 제497호
서기 2004년 10월 27일
(음력 9월 14일) 수요일

너도 나도 다 둘 아니게 돌아가니 하나도 없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엄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만 깨달아도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께서도 늘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물질문명이라는 편리함 속에서 살다보니까 금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스님의 말씀을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끄달리는 의식들이 너무 힘이 세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려 하고 어떤 닥쳐오는 시련이나 아니면 죽음과 삶의 길에 도달했을 때, 큰 재료가 있을 때에만 그런 말씀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문명이 편리하다 보니 여기에 끄달려져 있는 이런 저희들의 중생심이 과연,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과 저희들의 지금 현실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코앞에 있는 것도 같고 때로는 굉장히 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은 어떻게 다시 알아듣고 또 수행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일러주십시오.

▲스님: 이 마음이란 멀고 가깝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어떠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도자가 전깃줄이라면,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하죠. 지도자가 전깃줄이라면 전깃줄을 이쪽에서 하나 대주면 그냥 불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불이 들어오면 모두가 밝으니까 밝음의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전지의 그 밝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밝죠?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은 밝으니깐 따라가야지 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고 그 도리를 하나도 모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시로 변통을 해서 건지는 수가 있고 구원하는 수가 있고, 하나는 정말 지도자가 이 도리를 알아서 거기다가 한 마음이 같이 돼준다면, 진짜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손으로서, 천백억화신 자체의 손이 한손이 돼가지고 그대로 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죠. 모르고 구원을 주느냐 받느냐, 알고 구원을 주느냐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면 그 가정과 그 나라를 다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말을 하죠. 지도자한테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면 그 마음이 전체가 한 그릇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집어넣어준 사람의 마음대로 그냥 행이 나옵니다. 마음이 생기고 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이끌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동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저쪽 물방울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이쪽 물방울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없죠? 밝게 불이 들어와서 같이 밝게 살 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래심(如來心)이라고 합니다.

밝게 불이 번쩍 일어났을 뿐이지 이런 용도에는 이런 불이 필요하고 큰 용도에는 크게 불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심력으로 말미암아 그 불빛은 가지각색으로 이쪽 전깃줄에다가 저쪽 전깃줄을 붙여주면 불이 들어와서 큰 데는 크게 불여주고, 작은 데는 작게 불여주고 이렇게 해서 천차만별로 건지는데, 건져도 건져준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 네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면에 불어서 불이 들어왔다면 불 들어온 것뿐인데 이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저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은 서로서로가 교환하면서 돌아가면서 말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인연에 따라 상대성 원리로써 계발도 하고 발전도 하고 이러는 창조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다 물리학이다 하는 이름을 넘어서서 심성의학이라야 되고, 심성과학이라야 되고, 심성물리학이라야 그것이 알맞게 작용을 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이것도 없고 저래도 저것도 없다 하는 것은, 크다 작다 한 것이 없다라고 한 뜻은 어떠한 까닭에 없다라고 했는가 그것을, 우리 공부하면서 그 뜻을 잘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보러 온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말을 했으면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준다고 믿으면 될 거를, 왜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서 되묻고 되물어서 오히려 전깃줄이 불었다 떨어졌다 불었다 떨어졌다 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외려 불발이 되어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불었다 떨어졌다, 불었다 떨어졌다 하면 불발이 돼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수가 십중팔구는 되죠.

그러니 때와 장소를 가려서, 때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하면 그냥 하는 걸로 족하게 생각하고 갔으면 되는 거를, 귀가 있으면 듣겠지 하고 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야 되는 거지 조건이 있다면 '너는 이런 업이 있으니까 못하고 이런 업보를 지었으니깐 못하고 무슨 이러한 병이 있으니깐 너는 못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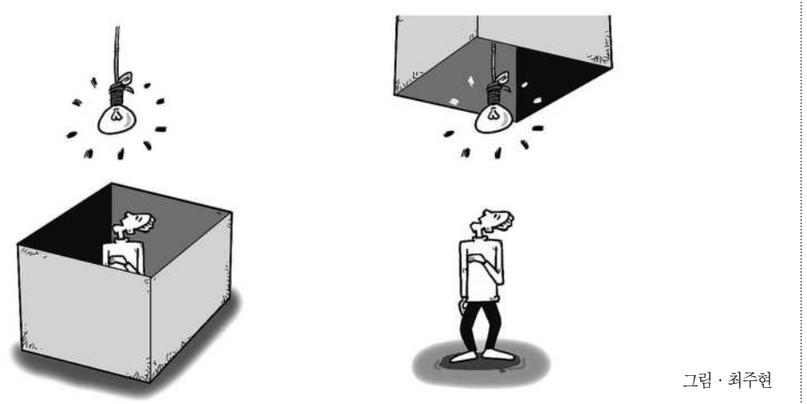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을 거기다 모아 놓는 데서 이 무명초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붙으면 전깃줄과 전깃줄이 어떻게 불습니까? 이유가 없이, 불을 켜려면 이유를 불문에 붙이고 전깃줄을 한데 합치는 거죠. 그죠? 이걸 불일까 말까, 이거 불일까 말까 하고 불입니까? 무조건이지. 그래서 컴컴하면 딱 불여서 불을 켜서 밝게 살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변소 가고 싶으면 변소 가고. 하하하.

▲질문자2: 예.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또 여쭐 말이 있어서, 대중들께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오점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심쩍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깨닫고 난 뒤에는 다시 깨달을 것이 없다. 깨닫고 난 뒤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어찌 무엇이 있으랴,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어떤 스님들께서는, 깨닫고 난 뒤에는 보임을 잘 해야 된다. 깨닫기 전에는 깨달을 것이라도 있지만 깨닫고 난 뒤에 보임을 잘못하면 그건 또 영원히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런 큰스님들의 말씀이 아직까지 공부하는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의문으로 돼 있습니다. 정말 깨닫고 난 뒤에는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깨닫고 난 뒤에는 보임을 잘 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스님: 깨닫고 나서 보임을 잘 해야 한다는 것도 맞고,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건덕지도 없다 하는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성 부(父)와 자(子)가 한데 합쳐지면 (주먹을 서로 불여 보이시며)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데 합쳐졌을 뿐이지 자기가, 즉 씨를 심어서 싹이 났을 뿐이지 자란 것은 아닙니다. 자라려면 그만큼 수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머리 깎은 사람들이나 머리 안 깎은 사람들이나 입산을 할 때는 무명초를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하고선 다짐을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애당초에. 그랬는데 형식적으로만 끊어버렸지 수행해 나가는 데 진실하게 우리가 무명초 하나하나를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마음을, 모든 것을 거기다 모아서 놓는 데서 이 무명초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점수다 하는 거는 그런 수행을 하는 나를 발견했으면, 보림이라고 해도 좋고 보임이라고 해도 됩니다. 즉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남의 원망을 하지 말고 어떤 게 있어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로 밀어 넣고 나한테 놓고 또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보임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놓고 가야 합니다. 악이든지 선이든지 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안 되는 거는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놓고, 이렇게 해서 건지는 겁니다.

컴컴하면 딱 불을 붙여서 밝게 살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어라

또 세번째 가서는 둘 아닌 도리를 탁 알았는데 나투는 도리를 모르는 겁니다. 아까 전깃줄과 전깃줄을 대어주고 떼어주고 대어주고 떼어주고 하는 도리를 모른다면 모두 일체 여래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일체 중생이 나 아님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투는데, 즉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이렇게 나툴 줄을 모른다. 이럴 때는 그 나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세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세번째 깨달음이 있어서 만약에 나툼의 도리를 안다면 일체가 나 아님이 없이 모두가 난데 자기가 자기 쪽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화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됐을 때 내가 됐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땐 점수라고 해도 맞고, 그게 끝났을 때는 '아! 너도 나도 다 둘 아니게 돌아가니 하나도 없다.' 하는 소리도 맞고, 둘이 다 맞으니까 둘이 다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도리를 물렁물렁하게 봐서는 아니 됩니다. 형상을 보고 무시하거나 그래서도 아니 됩니다. 이거는 형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형상과 정신과 둘 아니게 작용하는 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고도 없고 일체 만물만생이 생명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력이 똑같듯 생명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면 모두 하나도 버림이 없어야 되고 버림이 없어야 항복을 받고, 항복을 받아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도리가 나옵니다. 질문하실 분 또 없습니까?

▲질문자3: 스님, 간단하게 무와 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 사람들이 전체가, 무와 유가 같이 산다는 걸 근래에 와서 더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래 제사라든가 이런 걸 지낼 때 집안 전체 싸움이 난다거나 할 때에 무의 세계에서 그런 문제를 만든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숙모님이 추석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신 이후로 산소를 갔다 오다가 그 이웃집에서 삽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도망가고 뒤에서 삽을 들고 도망간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고, 연속 낫을 들고 들어가고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그런 문제들도 무의 세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체가 무와 유가 같이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스님: 그런데 무도 아니요 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신세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세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발생이 되고 가라앉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를 지내거나 천도를 시키거나 하더라도 그게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부러지지 않게 하느라고 천천히 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저 찹쌀가루 전병 부쳐서 세 조각 아니면 일곱 조각, 일곱 조각 아니면 아홉 조각, 열두 조각 이렇게 해놓고…. 일체 부처님의 조상이나 중생들의 조상이 따로 없으니까 모두가 한 조상, 한마음의 조상으로서 일체 영령들에게 다 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촛불 켜놓고 향 사르고 물 한 그릇 떠놓고 그거면 족합니다.

그래서 영령들이 상을 차려놓으면 상 차려놓았다는 스님네들의 마음부터 벌써 캐붑니다. 상 차려놓았다는 생각을 벌써 영령들이 알거든요. 그 상 차려놓은 것만 알게 된다면 영령들이 어떻게 천도가 됩니까? 먹을 생각만 하겠지. 그러니까 우주 전체 한 티끌만도 못한 우주를 한꺼번에 거기다 제시한다면, 우주 삼세를 다 제시한다면, 문을 열어준다면 그건 저절로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도가 됐는데 왜 또 지내느냐, 이러겠죠? 그거는, 죽어도 마음들은 제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꽉 찰 수도 있고 천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식들이 부모의 묵은 빚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도 되고, 둘째는 자기가 자식을 기르는데 제도를 하기 위해서도 지낸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방편을 쓰더라도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방편을 써서 죽은 영령들도 산 사람들의 영령들도 둘이 아닌 (손바닥을 서로 불여 보이시며) 까닭에 그렇다는 사실을 모두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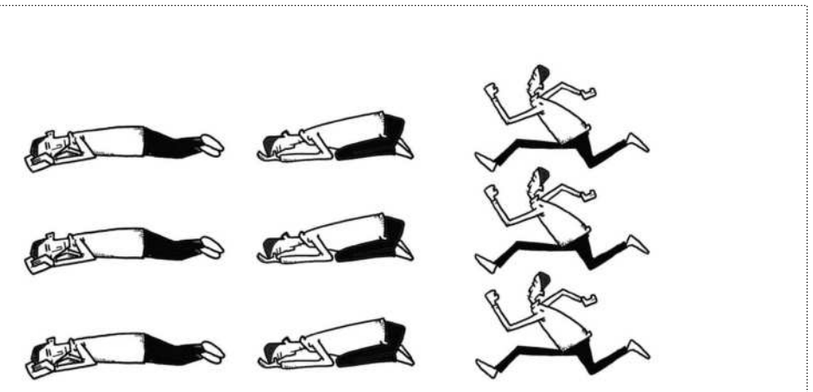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후퇴하는 것도 법, 전진하는 것도 법

☞29면에서 계속

▲질문자3: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제사를 양쪽 집에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근래 제 마음자리에다 제사를 지내고는 제사 지내러 두 집에다 안 갑니다. 그냥 내 마음자리에 전생이 있다면….

▲스님: 이거 봐요. 사람이 좀 쥘락 펼락이 있어야지. 바늘을 끼었다 뺐다 끼었다 뺐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쥐었다 폈다 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에 가더라도 마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아무리 큰집에서 그렇게 차렸다 하더라도 마음으로서 거기에 모두 응해서 따라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는 영령들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댁이 마음이 흥락하고 좋으면 조상님도 좋고, 그런데 그 몸뚱이가 뭐 잘났다고 거기를 안 갑니까? 그놈의 '나'라는 거를 빼놓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가고 간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마저 빼놓고 슬근슬근 물레방아 돌아가듯 슬근슬근 돌아가십시오.

▲질문자4: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병원에 늘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지만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요즘은 눈이 아파가지고 영 앞의 사람이 안 보입니다. 병원에서는 시신경이 말랐다 하는데 치료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스님, 이 눈에 빛과 광명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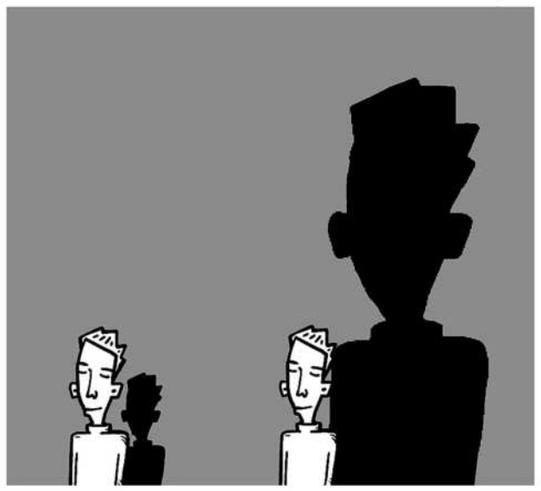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일체 중생이 나 아님이 없다!

▲스님: 여기서는 관하는 도리를 무조건 가르칩니다. 관하는 도리를 첫째로 알아야 하고, 두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운전수가 차를 몰고 다니듯이 자기 정신적인 마음이 바로 물질적인 육체를 끌고 다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리로 끌고 가고 저런 생각을 해서 저리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병원에서 그러한 말을 했으면 한 대로 또 들으면 듣는 대로 보면 보는 대로 그것에 착을 두고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된 그 자체를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관법을 아셔야 합니다. 관하는 법을 열심히 진실하게 알고 행하면 모든 병 증세도 거기서 나온 거니깐 거기다 놓고, 거기서만이 이끌어줄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아마 그것도 멀지 않아서 해결이 날 것입니다.

▲질문자5: 저는 주인공 관법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번에도 병이 났는데 주인공을 믿고 관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믿어도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허허허.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는 뜻이 있어. 우리가 돌아서서 갈 때도 있고 앞으로 그냥 갈 때도 있지? 응. 어떻게 바로 가는 것만 가는 거고 뒤로 가는 거는 가는 게 아니겠어? 싸울 때도 전진할 때가 있고 후퇴하는 때도 있지? 그러니까 안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거야. 우리가 싸우다가 포위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 뒤로 물러서야 되는 거거든. 후퇴를 해야 살지? 후퇴하는 것도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살리기 위해서 후퇴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후퇴를 하는 것도 법, 전진을 하는 것도 법이다.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야만이 그 도리를 알게 돼.

▲질문자6: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친정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52살 난 동생이 있는데 하도 아파서요. 한 7년 전부터 너무너무 아파서요, 79세 되신 어머니가 오히려 시중을 드는데 부닥치기만 하면 싸우고요, 병이 안 나아서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스님: 병원에 가니까 뭐라고 합디까, 여긴 병원이 아니니까.

▲질문자6: 간이 좀 나쁘다 그래요.

▲스님: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80%, 90%는 마음에서 병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디가 좀 아프면 바깥으로 그냥 쪼르르 갑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런 소릴 들으면 날더러 욕을 하겠지만, (대중 웃음) 그게 아닙니다. 의사들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땐가 내가 얘기했죠. 다리가 썩어서 잘라야 할 텐데 그 마음과 마음이 전깃줄을 붙이니까 고만 인체의 마음들이, 골수의 모든 생명 의식들이 전부 작용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깐 썩어 들어간 게 금방 내려가서 발목으로 내려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자를 걸 안 자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도 머리를 꺄우뚱거리고 종교를 뭘 믿느냐고 묻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몸속에 들은 인체의 모든 의식들이, 이 관법을 알아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모든 의식들을 다스리면서 한마음으로 귀결을 짓고 둘로 보지 않아야만이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법이 없죠. 자기가 자기를,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꺾을 수는 없죠, 이 손가락 하나가. 그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인체의 의식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한 주장자로 돼 있는데, 손가락처럼 하나로 돼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까? 그러니깐 작용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모든 데서 작용을 해줘서 굳어 들어가는 데를 완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병이든지 어떠한 거든지 종류 종류가 따로 따로 있겠지만 모두 뼛속에서, 너무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병이 위중하든 간단하든 뼛속의 골수에서만이 모든 작용을 해주고 서로 대치를 해주고 바꿔주고 이러는 데서, 그 의식들이 작용을 해주는 데서 병이 완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들으면 '아이구! 이젠 영락없이 나 죽네.' 하면서 아무리 해도 이것은 안 나으니깐 이제는 꼬박없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식들도 전부 작용을 하다 말고 이젠 영락없이 죽었다고 그러곤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 한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귀중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대로 여여하게, 심력이라는 것은 빛보다도 더 빨리 더 귀중하게, 아까 전깃줄 붙이듯이 (주먹을 서로 붙여 보이시며) 그렇게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다 건진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과거로부터 지은 것이 돼놔서 참 완고한 사람이라면 어찌해 볼 수가 없죠. 그렇다는 건 뭘 뜻하느냐? 그릇을 만들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착한 마음의 그릇을 만들지 않을 때 그릇에 담기질 않아요. 붙여지질 않아요. 전깃줄도 선을 까고 붙여야죠? 까지 않고 그냥 붙일 수가 없죠. 까지 않고 붙인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까서 붙이면 아주 붙이 들어오게끔 까가지고 붙여야지 까지도 않고 어떻게 붙여집니까.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서 받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6: 그런데 왜 아픈 환자하고 어머니하고 자꾸 싸움을 하려 합니까?

▲스님: 그것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온 거니까 거기다 놓는 관법만 아시면 그거는 대번에 안 할 수 있어요.

삼 형제가 사는데 만날 싸우고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다니고 조금만 해도 '이놈의 새끼야, 네가 더 냈니 내가 더 냈지. 네가 부모를 더 잘 모시니? 내가 더 잘 모시지.' 하고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큰며느리가 가족들의 화목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길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 어느 때에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서로를 보고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서로 싸우던 게 다 없어지고 화목하게 '아이구,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들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또 우리 형제가 삼 형제밖에 없는데 우리가 왜 그랬지?' 하면서 뉘우치면서 화목하게 술을 마시더니, 그때서부터 그렇게 화목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부지간의 화목도 그렇고 모두 자기가 자기라는 그 마음에서 일으키고 '흥, 내가 숙여? 내가 하는 게 옳은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럭하고선 일으켜 세우면 그거는 절대 화목이 올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6: 그리고 딸이 재수를 하는데요, 시험 때만 되면 공부가 안돼가지고 목도 아프고 방황을 하는데요, 저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님: 아, 그것도 마음의 조작 아닙니까? 자기가 하려니 능력이 닿지 않고 하니깐 어깨가 무겁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렇게 돼서 병이 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병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니깐 관하는 법을 열심히 배워서 하란 말입니다.

모든 의식들을 다스리면서 한마음으로 귀결을 짓고 둘로 보지 않아야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0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41회
3000배 철야정진
● 날 짜 : 10월 30일(토) 저녁 9시~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10월 30일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3000배 수행정진차 판매 (₩10,000)
머리는 순간 맑아지고, 몸속의 노폐물은 폭포처럼 빠져나가며, 위장과 간은 청소되어 피로회복과 컨디션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우주의 맑은 氣가 꽉 찬 기능성 차를 마시며 3000배 정진을 하면 그 효과를 즉석에서 체험 하게 됩니다. 특히, 운전, 등산, 수험생, 싸우나에서 효과를 본 많은 체험 사례가 있습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태안사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분당선 :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웅)
• 버스 : 1116(잠실역), 9413(구 1110번: 삼성역) 분당으로 직통연결 농업기술센타 앞에서 하차 후 SK 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소리산참선캠프 법왕정사가 속해 있던 소리산이 매매되는 안타까운 일로 중단 되었던 3000배 정진을, 수행환경이 아주 좋은 분당의 태안사 대법당 에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소원성취의 기쁨을 누리시고, 호흡에 맞춰 절하는 비법으로 몸속의 노폐물과 나쁜 기운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배출하는 효과를 즉석에서 체험하는 21세기 신류 최고의 건강법인 3000배의 테크닉을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문의 : 02)456-4994 456-0035
양평 소리산 법왕정사
☎ 전화문의 : 031)771-7745 771-6736

당뇨 하당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천하명당 - 배산임수 - 사계절 물이 철철 흐르는 곳
사찰부지 / 연수원 / 복지관부지
위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현산 자락에 위치 안성 C·C근처 / 칠장사 진입도로 입구
도로 2차선 접선지 / 접근성이 매우 훌륭함
면적 면적 3,000평~10,000평 (필요한 면적 만큼)
특기
❖ 天下明堂 地氣를 찾는분 환영
❖ 부지내 지하수가 매우 풍부함
❖ 청룡 · 백호 외호가 뛰어나며 특히, 백호가 역수(逆水)한 곳
❖ 중개인 사절 (실수요자만 직접 면담)
연락처 : (주)02-2269-4023 / (016)011-9713-9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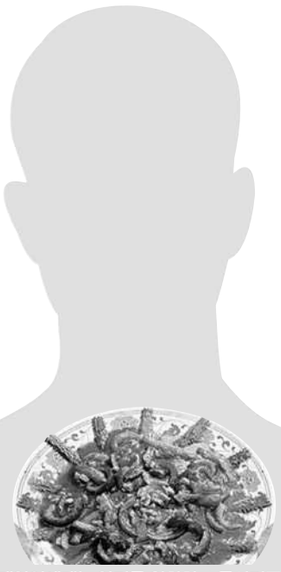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

출판사에 근무하는 김현주(27) 유미진(25) 씨는 요즘 감기에 걸려 며칠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두 사람은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해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목감기로 고생하는 게 연례행사처럼 돼 버렸다. 두 사람 모두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최근 직장 동료의 권유로 사상의학 전문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쓰고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건강을 되찾았다. 비결은 자신이 어떤 체질인지 알아낸 것이다

몸 알면 건강보여요



태양인에게는 양기를 원활히 소통시켜주는 해삼이 좋다.



태음인에게 좋은 오미자차.



비타민이 많은 굴국밥은 소양인에게 특효.



인삼백숙은 기가 허한 소음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체온 상승 체질, 해조류 좋아

▽ **태양인**=봄 가을 할 것 없이 언제나 혈기 왕성하여 비교적 건강 체질에 속한다. 소변이 맑고 잘 나오면 건강한 상태지만 권태감을 심하게 느끼고 입에서 침이나 거품이 자주 나오면 건강의 적신호다. 이럴 땐 오갈피를 달여 먹으면 효과가 있다. 기운이 위로 상승하는 체질이므로 지방질이 적은 해조류나 채소류 등을 섭취함으로써 위로 올라가려는 기운을 하강시키는 음식이 좋다. 몸에 맞는 음식 궁합으로는 메밀 머루 다래 포도 감 앵두 모과 나물 송홧가루 해삼 조개 게 등이다. 얼큰하고 매운 자극성이 강한 음식과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삼가야 한다.

고혈압 · 변비 조심, 과식 금물

▽ **태음인**=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가을철에 특히 과식하기 쉬우므로 음식조절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비만이나 고혈압 · 변비 등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자극성 있는 식품이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과식은 삼가라. 대변이 잘 통하면 건강한 상태나 대변보기가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면 건강을 체크하라. 이 같은 현상이 있을 시 산약 오미자 갈근 녹용 웅담 사향 맥문동을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로운 음식은 밀 콩 고구마 율무 땅콩 현미 잣 호두 은행 도라지 당근 더덕 해조류 등이다. 닭고기 돼지고기 마늘 생강 후추 꿀 인삼 커피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속 불편 하면 '의심' 찬 것 도움

▽ **소양인**=수분을 많이 배출하는 체질이어서 항상 수분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 전신에 땀이 촉촉이 나면 건강한 상태지만 땀이 안 나고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대 · 소변이 어려우면 병을 의심하라. 이럴 때 이로운 약재로는 숙지황 산수유 구기자 생지황 영지버섯이다. 소화기 계통에 열이 많아 서늘한 음식이나 채소 · 해조류 등 열을 식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찰떡 음식 궁합은 보리 팥 녹두 배추 오이 상추 우엉 호박 가지 수박 참외 딸기 파인애플 생굴 새우 호박 잉어 돼지고기 맥주 빙과류가 있다.

파 마늘 고추 생강 후추 닭고기 개고기 꿀 인삼 등은 삼가는 것이 좋다.

손발 따뜻하게, 생식 피해야

▽ **소음인**=건조하기 쉬운 가을철에는 특히 피부보호에 유념해야 한다. 건성피부가 많은 이 체질은 세면이나 목욕 후 오일이나 로션으로 피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소화가 잘 되면 건강한 상태지만 소화가 안 되고 땀이 부쩍 많이 나고 손발이 차지면 병이 날 수 있다. 몸에 맞는 약재로는 인삼 천궁 부자 당귀 황기 계피 등이다. 소화기의 기능이 약하고 소식하는 체질이므로 따뜻한 음식이나 약간 자극성 있는 음식이 좋다. 너무 기름지거나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 생식은 설사 및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쉽다. 이로운 음식은 찹쌀 감자 꿀 닭고기 명태 조기 멸치 민어 사과 토마토 복숭아 대추 시금치 파 마늘 생강 고추 겨자 등이다. 냉면 참외 수박 우유 맥주 보리밥 돼지고기 밀가루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노병철 기자

도움말 주신분:김강(자생한방병원 한의사)

손쉽게 알아보는 나의 체질은?

	외 모	심 성
태양인	가슴 윗부분이 발달한 체형으로 목덜미가 굵고 건실하며 머리가 크나 허리 아랫부분이 약하고 엉덩이가 작은 체형 얼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살이 찌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교능력이 뛰어나다 성격이 급하다 남성적인 성격이 지나쳐 독선적이거나 영웅주의에 빠지기 쉬운 체질
태음인	어깨부분이 잘 발달했으나 엉덩이 부분이 작다 머리가 작고 둥근 편(일명 짱구형 머리)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은 얇으며 턱이 뾰족하다 살결은 희고 윤기가 적으며 땀이 적다	활발한 성격과 민첩한 행동의 소유자 건망증이 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편
소양인	허리 부위가 발달했고 골격이 굵고 비대하지만 목덜미의 기세가 약한 체형. 손발이 크고 겨울에 피부가 잘 튼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많이 흘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침착하지만 때로는 소심한 성격
소음인	엉덩이 부분은 잘 발달됐으나 가슴부위는 빈약한 체형 체격과 이목구비가 작다 피부가 부드럽고 땀이 적다	치밀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사람을 잘 모으는 재주가 있다 내성적 성격으로 추진력 결핍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29

신체 부분별 자극 통해 조직 활성

아유르베딕 마사지의 놀라운 효과들 1

고래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인도의 성서 <바비샤 프라나>에 보면 부부 사이 마사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성서에 부인은 마사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때의 마사지는 허리 부분은 부드럽고 천천히 하되 약간 힘을 주어 참을 수 있는 압력으로 하고, 머리와 발은 힘을 주어 오랫동안 하여야 한다고 씌어 있다. 그러면 아유르베딕 마사지로 얻는 효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노화 방지

아유르베다에 의하면 우리 몸에는 7가지의 조직이 있다고 한다. 영양소 · 호르몬 · 림프를 묶은 것이 하나, 다음으로 혈액 근육 지방 뼈 골수 정액 이 7가지다.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 7가지 조직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 영양소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척추, 손, 발, 머리에 하는 오일 마사지는 정력, 생식력과 함께 생명력을 높여주고 신경계와 면역계의 역할을 강화시켜 준다.



피로 제거

정신적, 육체적으로 생긴 피로에 마사지는 최적의 치료법이다. 정신적 긴장에 의해 생긴 피로엔 아로마가 첨가된 오일을 사용해 머리를 마사지해 주면 좋다. 백단향을 몇 방울 떨어뜨려도 효과가 뛰어나다. 머리의 열을 제거하려면 참기름이나 아몬드 오일 2스푼에 고수 열매 오일을 10방울 정도 섞어 사용한다.

근육에 쌓인 피로는 소금을 조금 탄 따뜻한 물 속에 사지를 담갔다가 압력을 가하면서 마사지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는 타월을 따뜻한 소금물에 적셔서 아픈 부위에 덮어 준다. 그런 다음 부드럽게 압박하면서 문지르면 피로가 풀린다. 물 마사지가 끝난 후에는 오일을 발라주도록 한다. 겨자유, 코코넛유, 참기름에 라벤다 혹은 윈터그린(등록유), 장뇌유를 함께 섞어 사용하면 아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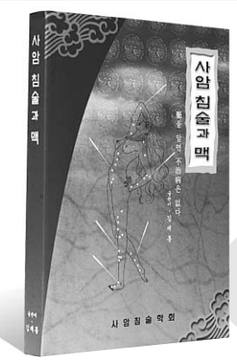
근육 속의 독소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오일을 사용한다. 땀샘을 자극해 땀을 흘리게 함으로써 독소 배출이 용이해지는 것이다. 이때는 윈터그린, 미터, 겨자유, 유칼립투스유나 마늘에서 추출된 기름을 데워서 사용한다.

지나친 바타 도샤의 진정

바타 도샤가 지나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나타나면서 뚝뚝 뼈 마디 꺾이는 소리가 난다. 신경계가 긴장되면서 불안, 초조, 두려움, 지나친 수다, 신경 과민, 성적 탐닉에 빠져들게 된다. 이것은 조리 후 8시간 이상 지나거나 저장된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또는 낮잠, 배고픔 참기, 단식, 배변을 억지로 참는 것, 멘스 기간 중의 성 행위, 오럴 섹스, 시고 맵고 떫으며 지나치게 쓴 음식들을 가까이 할 때도 바타 도샤가 과잉 된다.

■ 포천 중문의대

김재덕 역학교육원
역학, 음양오행, 인성컨설팅 강사 주간지 Goodday 365 "미용역학 삼정의 인연법,사주에어" 고정연재중 월간뷰티패션 "역학풀이" 연재중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의 : 주 1회(화요일) 사주통변이 부족하신 분, 책을 보고 독학하신 분 · 사주통변이 자신 없는 분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 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 011-9702-2237

더 이상의 획기적인 침술서적은 없다!!!
사암침술과 맥
침술인의 필독서 (必讀書)
1. 정확한 취혈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등분법)
2. 황제 내경 맥진법을 하루에 터득 할 수 있다
3. 복합처방으로 난치병도 두렵지 않다
4. 一鍼에 완치 시키는 즉효 요법이 있다
5. 중풍맥을 건강한 맥으로 즉석에서 교정한다
6. 100가지 질병 치료법을 쉽게 터득한다(고급과정)
※득이 없는 막연한 공부는 이제 그만합시다


김재홍 저
505쪽 4×6판
정가 80,000원
구입문의: 사암침술학회
02)2267-9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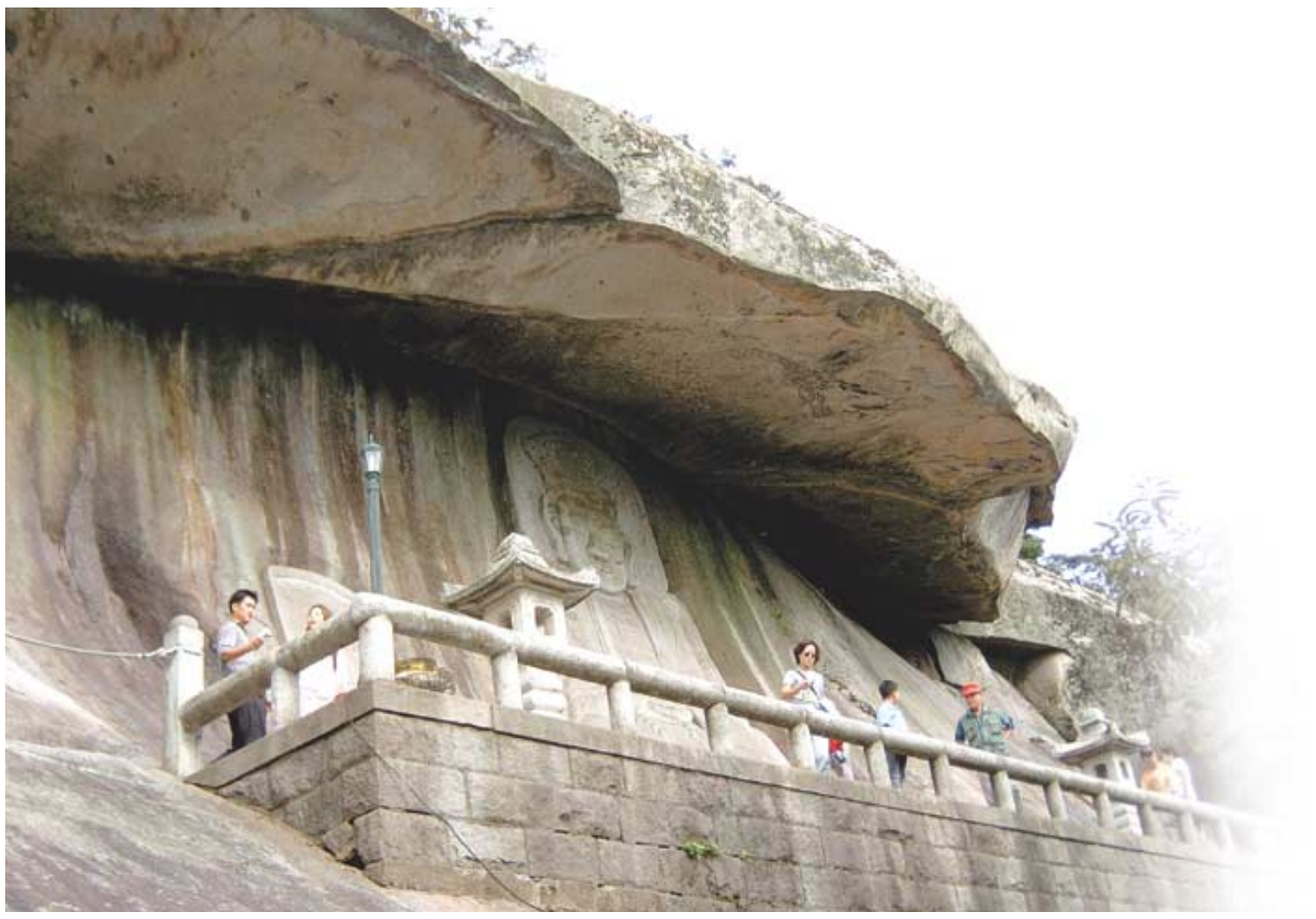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법요집·기초교리 集 괘도 재발간
공부하기 좋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本, 괘도집은 법당에 걸어 비치만 해두셔도 신도님들의 불교 기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보시를 하고자 원하는 불자님들께서 전화 주시면 원찰 주소지로 택배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정근
• 찬양합니다 • 발원 및 축원
• 반야심경 • 사홍서원
• 입정 • 산회가
• 청법가 • 기타찬불가
•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15. 사성제
2. 부처란? 16. 사섭법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7. 십이인연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8. 육바라밀
5. 사찰경내 예법 19. 팔정도
6. 합장과 반배 20. 보왕삼매론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 기획 : 예맥불교문화원 ■ 제작 :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 02-772-9052

불모산영산재
학인모집안내
시 간 매주 화, 수, 금 하오 2시 ~ 5시까지 00명
과 목
화 - 작법무(다게, 운심게, 삼귀의, 오공양, 요잡)
수 - 범음, 범패(불교의식 및 사물)
금 - 바라무(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명바라, 요잡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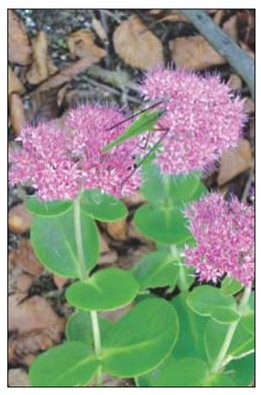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
불모산영산재보존회 무학산 백 운 사
범음범패 · 법고무 예능보유자 주지 김석봉(철우)
경남 마산시 교방동 489번지
전화 055)246-7790 / 팩스 055)221-7769
휴대폰 011-852-1760



보문사 극락보전 뒤 마애관음보살상 위에 눈썹바위가 감실처럼 아늑하게 드리워져 있다.



보문사 들머리 숲길.



큰꿩의비름.



낙가산 등산로에 핀 미역취.

바다위에 놓인 생명 공동체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29) 낙가산 보문사



낙가산에서 본 보문사.

물속에도 산맥이 있다. 강화도가 건너 보이는 김포 손돌목 바닷가에 서면 거친 여울을 만들며 바다 속으로 잠수하는 용의 등갈기 같은 암맥을 볼 수 있다. 이 암맥은 속리산에서 달려온 한남정맥의 줄기이다. 강화도는 바로 이 한남의 용맥이 건너가 이룬 섬이다. 한남의 용맥은 황청리에서 다시 바다로 잠수하여 석모도로 건너가 낙가산으로 솟구쳤다.

풍수하는 이들의 말을 빌리면, 한반도는 서쪽을 향해 서 있는 남자의 형상이며, 강화도는 발기한 남근에 해당하며, 석모도는 그 남근의 사정액[精氣極盡 聚注處]과 같다고 한다. 이번 걸음은 관음성지인 낙가산 보문사를 찾아 나섰다.

외포리에서 석모도는 뱃길로 5분여 거리. 배가 선착장을 뜨면 갯가에 있던 거지 갈매기들이 꽁무니에 따라붙는다. 관광객들이 심심풀이로 던져주는 새우깡을 얻어먹기 위해서다.

석모도는 해명산 상봉산 상주산의 3개의 산이 있어 행정명을 삼산면으로 했다. 보문사를 품은 낙가산은 해명산과 상봉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 보문사가 창건된 것은 635년, 금강산에 있던 회정대사가 내려와 변방의 외진 섬에다 보문사를 세웠다.

일주문을 지나면 키 큰 소나무들이 숲길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가지에 달린 솔방울 숫자가 많을수록,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이 좋지 못하다. 주위의 참나무들과 솔잎흑파리가 소나무를 못 살게 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 진입로를 넓히면서 목 죄듯이 소나무 둘레를 아스콘으로 뒤덮어버려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숲길 가장자리의 석축 틈 사이에는 야생벌들이 줄을 이으며 드나들고 있다. 겨울 양식을 저장하기 위해 바쁘다.

개울 건너편 숲은 새들의 마을이다. 큰오색딱다구리 떼까지 직박구리 멧비둘기 박새류 어치 꿩…. 이 숲에 새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활엽수들이 우점하고, 물 마실 개울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석모도는 쓰레기를 배로 실어다 강화읍 소각장에서 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가끔 보문사에서는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태우고 있다. 마침 거사 한 분이 숲 속에서 1회용 컵과 비닐 등이 섞인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쓰레기가 탈 때 나오는 다이옥신은 사람과 동식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수령이 6백년이나 된다는 노향(老香) 한 그루가 석굴법당 앞에서 있다. 1.7미터 높이에서 용틀임하듯 줄기가 동서로 갈라져 자라 제법 운치를 풍기고 있다. 향나무는 본성이 따뜻한 것을 좋아해서 한강 이북에서는 흔하지 않다. 향나무는 대개 10년이 넘으면 수피가 점차 벗겨지고 1백년이면 줄기의 속이 썩는 부휴현상이 나타난다.

객사의 화장실은 근래 새롭게 등장한 포세식(泡洗式)이다. 이름 그대로 물 대신 거품을 이용해 변기를 세척하는 방식이다. 수세식에 비해 물 사용량이 10%에 불과하고, 굳이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없다. 설치가 간단하며 냄새가 없고 구더기 등 해충이 생기지 않는다. 비교적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 하수시설이 미비한 산중암자나 토굴에 적합하다.

영험하기로 소문난 마애관음보살상은 극락보전 뒤로 난 4백여 계단 끝에 있다. 보살상이 앉은 인좌신향(寅坐申向)은 만물이 시작되고 맺는 생성의 자리이다. 아들 낳는 데는 보문사 관음보살님이 용하기로 소문나 있다.

보살상 위로는 넓고 편평한 눈썹바위가 마치 감실처럼 아늑하게 덮어주고 있다. 지각변동과 풍화작용에 의해 생긴 이 눈썹바위는 화강암이 양파껍질처럼 떨어지는 판상절리(板狀節理)로 해서 생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낙가산 곳곳에서 발견된다.

포세식 변기 사용으로 하수시설 보완
소사나무 · 염습지 등 바닷가 특색 또렷
방죽 아래 억새 군락, 식생들에 쉼터 제공

다시 내려와서 등산로를 타면 20여분 거리에서 낙가산 능선을 만난다. 낙가산은 한 덩어리의 거대한 화강암으로, 전형적인 골산(骨山)이다. 입자가 굵은 화강암이 석벽과 암맥과 암괴들을 연출해 내고 있다. 등산로도 온통 돌길이다. 때맞춰 임상에는 나도송이풀 미역취 구절초 잔대 참취 짚신나물 산국 고들빼기 돌마타리 산부추 맥문동 억새 주름조개풀 닭의장풀 솔새 등의 가을꽃들이 청초하게 피어있다.

나도송이풀은 한해살이 자주색 꽃이다. 잎은 마주나고 세모진 달걀 모양이며,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잎과 함께 부드러운 털이 난다. 잎 뒷면은 자줏빛을 띠며 잎자루가 있다. 꽃은 줄기 위쪽에 있는 잎겨드랑이에 1개씩 달린다.

미역취는 취나물의 일종으로, 노란색의 들국화이다. 잎은 긴 타원형이며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다. 눈썹바위 주변에 큰꿩의비름이 군데군데 무리지어 피어있다. 돌나물과에 속하는 큰꿩의비름의 키는 50센티 안팎이며, 잎은 흰빛이 감도는 연녹색이다.

낙가산 정상에 이르면 바위능선이 해명산-낙가산-상봉산을 잇고 있다. 능선을 걸어 낙가산 정상으로 가다보면 온통 소사나무 군락이다. 소사나무는 바닷바람을 좋아하는 소교목이다. 줄기는 회갈색이며, 잎은 2~3센티미터 정도로 작다. 잎은 진록색으로 빳빳하며, 10쌍 정도의 잎맥이 뚜렷하다.

일주문 밖 들녘으로 나가면 논과 염습지가 있다. 성냥개비보다 작은 송사리들이 떼 지어 돌아다닌다. 송사리는 염도에 매우 강해서 때로는 바닷물이 올라오는 갯골이나 염전의 수로에까지 서식한다. 송사리는 몸집이 작고 체중이 가볍기 때문에 물 흐름이 느린 곳, 수초가 많은 곳을 좋아한다.

근처 습지에서 생태계의 무법자 황소개구리가 관찰되었다. 바다를 두 번이나 건너, 이 외딴 섬까지 황소개구리가 들어와 있다.

갯벌을 막은 방죽 아래에 저수지를 연상케 하는 염습지가 있다. 그 물 위에 낙가산의 푸른 숲과 눈썹바위의 아름다운 풍광이 어려서 영락없는 영지(影池)이다. 그 영지 가장자리로 갯쑥부쟁이 나문재 칠면초 등의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인적이 드문 이곳은 물새들의 쉼터다. 흰빰검둥오리 노랑할미새 알락할미새 물총새 도요새 물떼새 제비 해오라기 백로 등이 평화롭게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갯벌을 막은 방죽은 초가을부터 억새 물결이 시작된다. 바닷바람을 맞아서 그런지 윤이 날 정도로 튼실하고도 매력적인 억새 군락이다. 누가 일부러 심은 것도 아닌데, 절로 자라서 방죽을 튼튼하게 해주고 있다. 방죽에 올라서면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 위로 온갖 게들이 가을 무도회를 펼치고 있다. 최근 보문사 앞 갯벌 칠게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환경오염에 비교적 강하기 때문이다. 칠게의 등껍질 표면에는 작은 과립들이 나 있다. 썰물이 되면 구멍에서 나와 갯벌 위 유기물을 긁어먹는다.

멀리 주문도와 보름도가 마치 고해 너머 정토처럼 아스라하게 바다 위에 누워있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대한항공 전세기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부처님 마음(佛心)이 살아있는 때묻지 않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출발일 : 12월 5일 / 12월 13일 단, 2회 "대승항공여행사" 단독 전세기

✻불교성지순례 - 종전 ₩1,680,000 ⇒ ₩1,380,000 (전세기 특별가)
인천-양곤-파간-만달레이(샤가잉)-양곤-인천

✻문화탐방 - ₩1,450,000
인천-양곤-해호-파간-양곤-인천








(주)대승항공여행사 (www.dsatour.com) 후원 대한항공 한진관광

서울 02)730-0202 부산 051)245-0108 대구 053)572-0108 대전 042)583-0108 광주 062)361-0108

미안마 불교성지순례 일정 5박 6일

일 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전세기	19:00 22:35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기내식
				HOTEL | TRADERS HOTEL CLASS		
제02일	양곤 파간	국내선	06:30 07:50	아침공양후 국내선으로 파간 이동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광-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마누하사원,부파야파고다, 쉐산도파고다,이라와디강 석양감상후 호텔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THARABAR GATE HOTEL CLASS		
제03일	파간 만달레이 샤가잉 만달레이	국내선	08:45 09:15	아침공양후 공파웅왕조의 만달레이 이동 우베인다리, 마하간디용수도원, 만달레이언덕 순례 샤가잉 이동후 쉰우퐁야산, 우민동제파고다 순례 만달레이 귀환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MANDALAY HILLRESORT CLASS		
제04일	만달레이 양곤	국내선	09:30 11:05	아침공양후 양곤 이동후 로카찬다옥불사,차욱탓지파고다,칠엽굴 및 까바예파고다(진신사리 친견/정대불사 봉행) 아웅산마켓 견학 저녁공양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TRADDERS HOTEL CLASS		
제05일	양 곤	전용차량 KE전세기	전일 23:35	아침공양후 쌍쉐다곤파고다,마하시수도원 순례 아웅산기념탑 경유 양곤 출발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 기내박		
제06일	인 천		07:35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 성 불 하 십 시 요 *	조	기내식
					중	
				HOTEL	석	

미안마 문화탐방 5박 6일

일 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전세기	19:00 22:35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기내식
				HOTEL | TRADERS HOTEL CLASS		
제02일	양곤 해호	국내선	15:30 16:40	호텔 조식후 쉐다곤파고다,아웅산기념탑 경우 쉐도파고다,로카찬다 옥불사 해호 이동 석식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한 식
					석	현지식
				HOTEL | HUPPIM HOTEL CLASS		
제03일	해호 파간	전용보트 국내선	17:05 18:35	호텔 조식후 인따족의 수상시장 및 수상경작지 외발노젓기 관광 팡도우파고다,인펭유적지 관광 파간 이동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THARABAR GATE HOTEL CLASS		
제04일	파간 양곤	국내선	18:55 20:15	호텔 조식후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광-쉐지곤파고다,아난다사원,마누하사원,부파야파고다,쉐산도파고다 양곤 이동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 TRADDERS HOTEL CLASS		
제05일	양 곤	전용차량 KE전세기	전일 23:35	호텔 조식 후 칠엽굴 및 까바예파고다 관광 차욱탓지파고다,아웅산마켓 관광 양곤 출발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 기내박		
제06일	인 천		07:35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조	기내식
					중	
				HOTEL	석	